제257회
코베이옥션

삶의 흔적

2022.01.26

수요일 15:00



전시기간

2022.01.19. WED 13:00 –

2022.01.26. WED 14:00 (토요일오픈)

서울 종로구 삼일대로 457 6층 코베이옥션 전시장

경매



주요약관

1. 낙찰은 최고 가격을 제시한 입찰자에게 돌아갑니다.

2. 현장 입찰, 온라인 예약 입찰 서면, 서면 예약 입찰, 전화 입찰자 중에서 입찰금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온라인 예약 입찰,
   서면 예약 입찰자가 우선합니다.
   온라인 예약 입찰, 서면 예약 입찰자의 입찰금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예약이 먼저 완료된 입찰자에게 우선하여 낙찰됩니다.

3. 낙찰 수수료:
   구매자 수수료는 낙찰가 5,000만 원 미만의 경우에는 낙찰가의 15%(부가세 별도)
   낙찰가 5,000만 원 이상~1억 원 미만의 경우에는 낙찰가의 12%(부가세 별도)
   낙찰가 1억 원 초과의 경우에는 낙찰가의 10%(부가세 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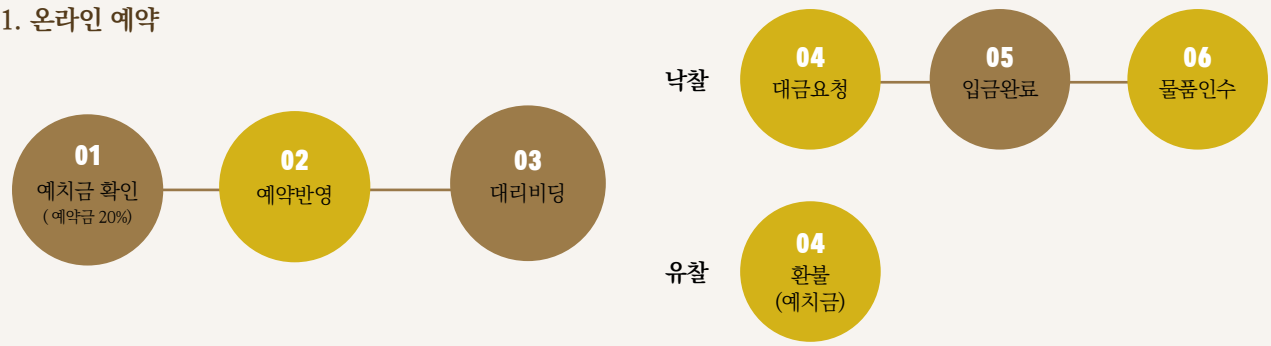
4. 판매 수수료 :
   판매자 수수료는 낙찰가 1백만 원 미만의 경우에는 낙찰가의 15%(부가세 별도)
   1백만 원 이상의 경우에는 낙찰가의 10%(부가세 별도)

5. 낙찰품 인수 기간: 낙찰자는 대금 완납 후 7일 이내에 물품을 인수하여야 합니다.

6. 국외반출금지사항: 낙찰자는 경매로 문화재 및 유물을 구매할 경우에 국외로 수출 또한 반출이 금지되어 있음을 인지합니다.

경매참여방법

1. 온라인 예약



2. 현장



2022년 3월
제258회 삶의흔적 경매 일정

격 월에 한 번 열리는(주)코베이옥션 삶의흔적 경매는 회원님들의 물품을 위탁받아
현장에서 진행하는 경매로 2000년 5월 1회를 시작으로 이번에 **257회**를 맞이하였습니다
삶의흔적 경매전은 격 월에 한번 **넷째 주 수요일**에 열립니다.

접수 2022. 01. 27. (목) ~ 2022. 02. 11. (금)

전시 2022. 03. 16. (수) 오후 1시 ~ 2022. 03. 23. (수) 오후 2시

경매 2022. 03. 23 (수) 오후 3시

장소 서울시 종로구 경운동 수운회관 6층 전시장

문의 02)738-0552 ㈜코베이옥션 필드경매팀

일러두기

1. 본 도록은 ㈜코베이옥션 제257회 삶의흔적 경매 출품 유물에 관한 것입니다.
2. 본 도록에 수록된 물품의 내용 및 보존 상태는 참고사항입니다.
   입찰 전 충분히 상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본 도록에 실린 글과 사진은 ㈜코베이옥션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4. 기재된 유물 크기는 실제 작품의 크기입니다.
5. 본 도록에 수록된 물품 번호는 경매가 이루어지는 순서입니다.
6. 코베이옥션 홈페이지(www.kobay.co.kr) 에서 물품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목차
CONTENTS

01. 양장고서 006

02. 근현대사 034

03. 전적 084

04. 고문서 116

05. 서화 134

06. 민속품·도자기 142

07. 부록

- 경매약관 153
- 회원가입신청서 160
- 서면예약신청서 161
- 물품대행서비스 가이드 162
- 온라인경매 가이드 163

제257회 삶의흔적

PART.01

양장고서



001 /

물새발자옥

이인성의 오리지널 판화 표지

1939년 초판 / 1책
30.5x23.5cm

시작가 ₩ 2,000,000

국내에서 소장처를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희귀자료에 속하는 가요곡집으로, 국내 아동 문학가의 여명기를 밝힌 월북 작가 尹福鎭 작사, 朴泰俊 작곡의 '물새발자옥'을 비롯한 13곡의 악보가 실려 있다.

수록된 곡으로는 '물새발자옥', '해지려는 저녁때', '갓모를 잊고', '그이 생각', '요-호-', '아- 가을인가', '마님과 머슴', '나는야 알고말고', '낙엽', '금박댕기', '우리애기빨래', '탁씨는 꾀보', '깜박깜박'의 13곡이다. 특히, 본 가요곡집에 수록된 노래들은 尹福鎭의 월북으로 인해 1988년 해금될 때까지 불려지지 못했다.

卷頭에 尹福鎭, 朴泰俊의 사진이 담겨 있다. 판화에 표지를 인쇄하는 방식 대신 단색 목판화를 별도로 찍어 표지에 붙여 만든 것이 특징으로, 아주 얇은 한지에 목판화로 찍었다. 표지 오른쪽에 붉은 색을 덧대고, 판화 아래로 갈색의 비단 문양 종이띠를 덧대 단조로움을 줄이고 주목성을 높였다. 표지 그림은 어깨에 망태를 걸쳐 멘 소녀가 멀리 강을 뒤돌아보는 모습으로, 이 판화는 李仁星의 전형적인 향토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수채, 유채화에 의해서만 보여졌던 그의 또 다른 작품세계를 만날 수 있어 의미를 더한다.

002 /

물네방아

이하윤

1939년 초판 / 1책
19.3x13cm

시작가 ₩ 1,200,000



1939년 청색지사에서 발행한, 강원도 시도민속문화재 異河潤의 시집 [물레방아(물네방아)] 초판본이다.

원명은 [물네방아]로, 裝幀은 具本雄이 맡았다. 총 109편의 작품을 본문격인 '물레방아'와 부록으로 붙인 '가요시초(歌謠詩抄)' 두 부분으로 나누어 싣고 있으며, 작자 자신의 발문이 붙어 있다.



003 /

황혼

한설야

1940년 초판 / 1책
18.8x13.8cm

시작가 ₩ 2,000,000

월북 작가 韓雪野가 카프 신건설사 사건으로 구속되었다가 출옥하여 쓴 첫 장편소설이다.

[黃昏]은 1936년 2월 5일부터 10월 28일까지 총 206회에 걸쳐 《조선일보》에 연재한 것을 묶은 장편 소설집으로서 작가의 자구 수정과 첨삭을 거쳐 영창서관에서 단행본으로 1940년 1월 10일에 발행되었다.

강경애의 '인간문제'와 함께 한국 근대 노동 소설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작품이다.



004 /

신태양
新太陽

1952년 / 7책 / 26x18.5cm

시작가 ₩ 900,000

① 1권 1호(4285년 8.1. 발행) ② 1권 2호(4285년 9월 발행) ③ 1권 3호(4285년 10월 발행) ④ 1권 5호(4285년 12월 발행) ⑤ 2권 2호(4286년 2월 발행) ⑥ 2권 3호(4286년 4월 발행) ⑦ 2권 11호(4286년 11월 발행)



005 /

신문계
新文界

1913년 / 1책 / 22.2x15cm

시작가 ₩ 800,000

창간호에는 柳一宣의 흑백사진이 수록되었고, 해동산인 최찬식의 "금강은 천연적 공원"은 3호까지 연재되어 있다. 많은 부분에서 산수, 영어, 국어, 실용 시문 등 학습 내용을 주로 수록하여 이 잡지의 성격을 알 수 있다.



006 /

청춘
青春

1918~19년 / 4책 합본 / 21.7x14.7cm

시작가 ₩ 600,000

崔南善이 창간한 청년 대상 잡지 [青春] 京城 新文館 1918~19년[(제12~15호(종간호)] 4책 합본이다.



007 /

청구학총
青丘學叢

1932~37년 / 17책 / 22.2x15cm

시작가 ₩ 500,000

위원 명단으로 조선사편수회 편찬 위원, 촉탁위원 등의 최남선, 이병도, 이능화 등이며, 수록된 글 중 이병도, 양주동, 김두헌, 유홍렬, 이홍직, 이능화, 이인영 등의 이름이 보인다.



008 /

석류

임학수

1937년 초판 / 1책 / 19x13cm

시작가 ₩ 900,000

1937년 저자가 自家本으로 발행하였다.
〈고요한 밤〉, 〈석류〉 등 36편의 서정시와 함께 '서사시'라고 표기된
〈견우〉 가 수록되어 있다.



009 /

서화

이기영

1946년 초판 / 1책 / 18x12.5cm

시작가 ₩ 300,000

1933년 5월 30일부터 7월 1일까지 『조선일보』에 연재되었던 이기영의 중편
소설이다. 당대 농촌 현실의 황폐성과 함께 그 속에 내재해 있는
농민계층의 생명력을 담아내려고 노력했다.



010 /

선풍시대

한인택

1949년 / 1책 / 18x12.5cm

시작가 ₩ 300,000

《조선일보》 현상문예 1등을 차지한 韓仁澤의 장편소설이다.
신문 연재 후 1934년 단행본으로 초판이 출간되었으며,
본 출품물은 1949년 (株)漢城圖書에서 발행한 판본이다.



011 /

금은탑

박태원

1949년 / 1책 / 18.5x12.7cm

시작가 ₩ 300,000

월북 작가 朴泰遠의 장편소설이다.
1938년 4월 7일부터 1939년 2월 24일까지 219회에 걸쳐 《조선일보》에
'우맹'이라는 제목으로 연재되었던 소설이다.



012 /

가실

이광수

1940년 초판 / 1책 / 18x12.5cm

시작가 ₩ 300,000

조선문예상 제1회 수상작가 春園 李光洙의 설씨녀와 가실 설화를 다룬 단편집이다. 조선문예상 제1회 수상 작가인 春園 李光洙가 1940년 3월 도쿄에서 상을 받은 후 수상 기념으로 일본어로 출판하였다.



013 /

애욕의 피안(하)

이광수

1936년 초판 / 1책 / 18.5x12.8cm

시작가 ₩ 200,000

조선일보에 연재된 춘원 李光洙의 장편소설이다.
문란한 애정 관계를 둘러싼 세태를 비판적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하권의 본문은 322p부터 시작하여 634p까지로 구성되어 있다.



014 /

군상

이광수

1954년 / 1책 / 18x12.5cm

시작가 ₩ 300,000

이 작품은 1930년 '군상(群像)'이라는 표제 아래, 동아일보에 연이어 연재된 장편소설 3부작 〈혁명가의 아내〉, 〈사랑의 다각형〉, 〈삼봉이네 집〉 중 2부에 해당한다.



015 /

구원의 여상

이태준

1948년 해방 후 초판 / 1책 / 18.5x13cm

시작가 ₩ 300,000

영창서관 발행, 이태준의 장편소설이다. 연재분에는 죽은 친구를 위한 묘비명이 직접 서술되는 데 비해 단행본에서는 생략되었다.



016 /

초등본국약사

初等本國略史

1909년 / 1책 / 22x15cm

시작가 ₩ 600,000

초등교육학도용 국사 교과서 국한문 혼용 [初等本國略史] 권2 1책이다. 본서는 권1과 권2 총 2책으로 구성되었으며, 권1은 고려, 권2는 조선과 대한제국 순종까지를 다루고 있다. 본 출품물은 권2에 해당한다.



017 /

고본 일본지리교과서부록

稿本 日本地理教科書附錄

1914년 / 1책 / 22x15cm

시작가 ₩ 300,000

조선총독부에서 발행, 조선을 전도, 북부, 중부, 남부로 분류한 지도를 첨부하고 있으며, 조선 중부지도에 독도를 竹島로 표기한 [稿本 日本地理教科書附錄] 1책이다.



018 /

조선 여학교 교과서 일괄

1925~35년 / 3책 / 22x15cm 이내

시작가 ₩ 100,000

일제강점기 일본 발행, 조선의 고등여학교, 여고보에서 실제로 사용된 교과서 [三訂 新撰女子西洋歷史 朝鮮版], [女子鑛物界新教科書], [新制 女子東洋歷史] 3책 일괄이다.



019 /

신편 고등국어독본 권1

1924년 / 1책 / 22x15cm

시작가 ₩ 100,000

고등보통학교 국어과 교재로 사용한 [新編 高等國語讀本 卷一] 1책이다. 京城, 人蔘, 鴨綠江 등을 소재로 기술하고 있다.



020 /

향원
鄕園

1책 / 27.5x20cm

시작가 ₩ 400,000

유인본으로 발행한 동인지 [鄕園] 창간호이다. 수록 동인들은 瑞君 李永來, 溪梵, 愚農 시, 祥雲, 조준호, 리영래 등이다.



021 /

교우회지
공주공립고등보통학교 창립10주년 기념

1932년 / 1책 / 22x15cm

시작가 ₩ 200,000

표지에 학교의 상징물인 봉황과 꽃을 이용하여 제작하였다. 권두에 역대 학교장, 5학년생 및 직원 단체사진 등이 실려 있으며, 학교 졸업생 및 재학생의 문장과, 학교 근황, 수학여행기, 졸업생 명부 등이 수록되어 있다.



022 /

조선교육
朝鮮教育

1946년 / 1책 / 18x13cm

시작가 ₩ 150,000

1946년 조직된 조선교육연구회에서 발행한 기관지이다. 본 출품물은 1946년 12월 25일 발행한 창간호로 1949년 10월까지 통권 18호가 발행되었다. 국어교육의 당면문제에 대한 다수의 글이 실려 있다.



023 /

계우
桂友

1932년 / 1책 / 22.3x15.3cm

시작가 ₩ 100,000

중앙고보동창회 학예부에서 발행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다양한 주제의 글이 수록되어 있고, 당시 육상운동회 성적을 포함한 여러 스포츠부의 대진표 등이 수록된 회지이다.



024 /

신구노래가락

1952년 초판 / 1책 / 12.6x9.4cm

시작가 ₩ 300,000

당시의 우리 민요조 노래와 유행가 가사를 수록한 수진본이다. '도라지타령', '천안삼거리', '배뱅이굿' 등의 유명 민요들과 '마음의 부산항', '인도의 향불' 등 당시 유행가들 140여 곡이 수록되어 있다.



025 /

다독해지환정복

1책 / 19.2x13.5cm

시작가 ₩ 200,000

국한문을 사용하여 가사 형식으로 된, 姜大成이 창시한 一心教의 포교 가사집 [多讀解知還定福] 石印本 단행본 1책이다.



026 /

천안삼거리

1952년 초판 / 1책 / 18.5x12.4cm

시작가 ₩ 150,000

천안 삼거리에 전해 오는 능수버들과 민요 '천안 흥타령'의 유래담을 담은 작자 미상의 작품이다. 천안삼거리에 얽혀 전해오는 전설을 당파싸움 줄거리 위주로 풀어내었다.



027 /

가루지기타령

1949년 / 1책 / 18.2x12.7cm

시작가 ₩ 150,000

이병기 교주의 申在孝 改作 판소리 여섯 마당 중에 가장 이색적인 작품으로, 적나라한 성의 묘사와 노골적인 음담이 전편에 깔려 있는 외설적인 작품이다.



028 /

배비장전 옹고집전

1950년 초판 / 1책 / 18.2x12.7cm

시작가 ₩ 150,000

판소리 '배비장타령'과 판소리계열 고전소설 '옹고집전'을 김삼불의 교주와 엮어 발행하였다. 선정적인 내용이 등장하여 검열 삭제를 한 것으로 추측되는 가려진 구절들이 다수 있다.



029 /

봄피리
김송월

1954년 초판 / 1책 / 19.3x15.6cm

시작가 ₩ 100,000

동요집 〈은방울〉, 〈님의 노래〉, 〈풀벼개〉 등의 시집을 발표한 시인 김송월의 어린이 동요집이다. 김송월은 21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는데, 본 출품물 [봄피리]는 사망 해인 1954년 발표되었다.



030 /

조선요리제법
방신영

1949년 / 1책 / 18x12.5cm

시작가 ₩ 500,000

方信榮이 우리 음식 조리법을 집대성한 자료이다. 구전으로 이어지던 우리나라 전통 음식의 제조법을 체계적으로 완성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보급된 요리서이다.



031 /

조선 야담·수필·전설

1944년 초판 / 1책 / 18x12.7cm

시작가 ₩ 100,000

森川清人 編著 [朝鮮 野談·隨筆·傳說] 1책이다. 당시 朝鮮의 野談과 傳說을 수록하였다. 눈에 띄는 내용으로는 우리나라에 인삼이 어떻게 유래되었는지에 대한 대목이다.

032

사도학원
정운수

1933년 초판 / 1책 / 20x13.5cm

시작가 ₩ 150,000

광복군의 군사 교육을 담당했던 독립운동가 정운수가 역술한 [사도학원]이다. 예수가 복음을 널리 전하기 위하여 특별히 뽑은 열두 제자, '사도'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033

신자생활의 첩경
솔타우(蘇悅道)

1936년 초판 / 1책 / 18.7x12.5cm

시작가 ₩ 100,000

순한글 내려쓰기로 기재되어 있으며, 일곱 장으로 나누어 성신, 성서, 주일, 오락, 청지기, 경건한 생활 등 신자에 관련된 사항들을 성경을 인용하여 풀이하고 있다.

034

성지의 풍속과 습관
정인과 編

1932년 초판 / 1책 / 18.7x13cm

시작가 ₩ 100,000

조선적 주일학교의 선구자로 알려진 裵德榮과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장, 기독교신문협회 회장 등을 역임한 목사 鄭仁果과 함께 발행한 자료이다.

035

여러어진 그리스도인의 사적
윤가태 譯

1922년 초판 / 1책 / 22.2x15cm

시작가 ₩ 150,000

재령지방 최초의 여선교사로 알려진 尹嘉泰가 역술한 [여러어진 그리스도인의 사적] 1책이다.

036

조선예수교장로회사기

1928년 초판 / 1책 / 24x15.3cm

시작가 ₩ 200,000

1928년 발행된 상권에 해당된다. 초기부터 1911년까지의 사료를 총망라하여 수록한 것으로, 서두의 총론에 이어 장로교회의 발전사를 공의회시대(公議會時代), 독로회시대(獨老會時代) 각 2부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037

성경연구 삼백문제
김종상 編

1918년 삼판 / 1책 / 19x13cm

시작가 ₩ 150,000

김종상은 황성기독교청년회 초대 체육 간사이자 한국 현대식 운동경기의 개척자로 불리는 인물이다. 1915년 초판이 발행되었으며, 본 출품물은 1918년에 발행한 3판본이다.

038

텬쥬셩교공과 권4

1914년 / 1책 / 20.5x12.5cm

시작가 ₩ 300,000

한국천주교회가 공식으로 사용한 기도서로, 한문본을 해석하여 한글로 간행한 중간본 [천주성교공과(텬쥬셩교공과)] 권4 1책이다.

039

조선기우명감

1925년 초판, 비매품 / 1책 / 22.2x15.5cm

시작가 ₩ 200,000

당시 조선과 만주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인들과 조선인을 대상으로 바둑 동호인 명단을 정리하였다. 棋友 명단을 級, 주소, 직업, 이름 등의 순으로 기록하고 있고, 부록으로 棋譜를 싣고 있다.



040 /

개벽(제11호)

1921년 / 1책 / 21.7x15cm

시작가 ₩ 600,000

1921년 5월에 발행된 [開闢] 제11호이다.
金惟邦, 金石松 등 비교적 남아 있는 작품수가 많지 않은 작가들의 글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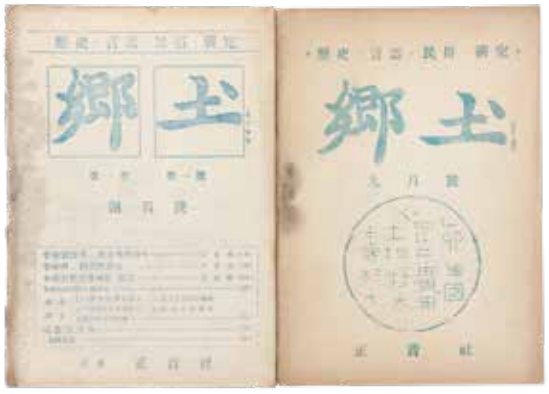
041 /

청년

1929년 / 2책 / 12.5x15cm

시작가 ₩ 100,000

YMCA에서 발행한 개신교 잡지 [青年] 9권1호와 9권11호 등 2책 일괄이다. 9권 1호 신년호에는 김활란, 정인보의 글과 張貞心의 시 '崇高한 月光'이 보인다. 11호에는 金昶濟의 '크리스마쓰를 際하야'가 대표 기사이다.



042 /

향토

1946~48년 / 4책 / 20x14cm

시작가 ₩ 100,000

洪以燮을 중심으로 한 역사·언어·민족연구지인 월간 〈鄕土〉는 1946년에 창간되어 통권 12권이 발행되었다. 본 출품물은 창간호, 2호, 4호/5호 합본, 6호/7호 합본 6권 총 4책이다.



043 /

월간야담·야담

1937년, 1957년 / 2책 / 12.2x15.1cm

시작가 ₩ 200,000

① 일파 장정, 경근 비화, 흥미로운 읽을거리가 담긴 대중잡지
[月刊野談] 30호(제4권 제5호) 경성 발유사 1937년
② 당대 유명 만화가 실려 있는 월간 잡지 [野談] 3월호 희망사 1957년



044 /

주간희망

1955~56년 / 2책 / 26x19cm

시작가 ₩ 1,300,000

[주간희망] 창간호 포함 1956년 1개년 발행분 합본철 2책 일괄이다. [주간희망]은 일요부록 형태의 주간지 형태에서 벗어났고, 2년 이상 발행되었다는 점 등으로 “해방 후 우리나라의 본격적인 주간지”로 평가받는다.



045 /

새벗

1959년 / 1책 / 20x14.5cm

시작가 ₩ 200,000

본 출품물인 1959년 [새벗] 5월호(통권 89호)는 어린이날과 어머니날을 기념하여 발행인인 김춘배(金春培)의 글이 처음에 수록되어 있고, 그 외에 박경리의 연재소설, 김성환, 신동헌의 만화 등을 확인할 수 있다.



046 /

경우

1952년 / 9책 / 18x13cm

시작가 ₩ 100,000

6.25전쟁 중 부산에서 발행한 경찰 수험준비 및 실무 교본집 [경우] 창간호가 포함된 총 9책 일괄이다. 1952년 1월에 발행한 創刊號를 포함해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9호, 10호의 총 9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047 /

활천

1933년 / 1책(17책 합본) / 21.5x15cm

시작가 ₩ 800,000

동양선교회 성결교회출판부 발행, 기독교 월간 잡지 [활천] 1책(17책 합본)이다. [活泉]은 기독교대한성결교회에서 1922년에 창간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기독교 월간 잡지이다.



048 /

기인기사록 上·下

송순기 編

1922~23년 초판 / 2책 완질 / 18.2x12.5cm

시작가 ₩ 500,000

勿齋 宋淳夔가 편찬한 활자본 야담집으로, 본래 《매일신보》에 연재한 이야기를 모아서 발행한 것이다. 일제가 치안을 이유로 금서로 지정하였기 때문에 남아 있는 수량이 매우 적은 희귀본이다.



049 /

현대시인전집

이용악집·노천명집

1949년 초판 / 2책 / 20.7x15cm

시작가 ₩ 500,000

이용악이 남한에서 마지막 남긴 시집 [현대시인전집①-이용악집]과 [현대시인전집②-노천명집] 2책 일괄이다. 1권은 저자가 남한에서 남긴 마지막 시집으로 잘 알려져 있다. 2권에는 「사슴」 등 그의 대표작이 수록되어 있다.



050 /

현대조선문학전집-수필기행집

1938년 초판 / 1책 / 19.5x13cm

시작가 ₩ 200,000

정현웅 장정, 김동인, 노자영 등의 당대 작가들의 정보와 함께 작품이 실린 [현대조선문학전집-수필기행집]이다. 유명작가 총 12명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으며, 각 작품마다 작가들의 흑백사진과 약력이 실려 있다.



051 /

파도

정비석

1946년 초판 / 1책 / 17.7x12.6cm

시작가 ₩ 200,000

애증 사이에서 갈등하는 두 인물을 통해 사랑에 대한 사람의 복잡한 심리를 표현한 단편소설로 파도, 잡어, 한월 등 총 5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비석은 꾸준한 창작활동을 통해 많은 독자를 확보했던 작가이다.

052 /

포도

설정식

1948년 초판 / 1책
18.3x12.7cm

시작가 ₩ 200,000



053 /

빙하

박양균

1957년 초판 / 1책
18.2x12.5cm

시작가 ₩ 100,000



054 /

이상선집

1949년 초판 / 1책
18.3x12.7cm

시작가 ₩ 200,000



055 /

홍길동전

1925년, 1961년 / 2책
19.7x13.5cm 이내

시작가 ₩ 200,000



056 /

팔늬앤아

엘리노 포터

1921년 초판 / 1책
19x12.7cm

시작가 ₩ 300,000



057 /

1984년

조지 오웰

1951년 초판 / 1책
18x13cm

시작가 ₩ 200,000



058 /

체중

김요섭(저자 서명본)

1954년 초판 / 1책
21x15cm

시작가 ₩ 100,000



059 /

성북동 비둘기

김광섭(저자 서명본)

1969년 초판 / 1책
19.5x15.3cm

시작가 ₩ 100,000





060 /

만국약사

1895년 / 1책
28.5x18.5cm

시작가 ₩ 500,000



061 /

소학 만국지지

1895년 / 1책
28.5x19cm

시작가 ₩ 500,000



062 /

동국사략

1906년 / 1책
25.5x18cm

시 작가 ₩ 150,000



063 /

만국지리

1907년 / 1책
23x16.5cm

시작가 ₩ 300,000



064 /

일본사기 권2

1907년 / 1책
23.5x16.5cm

시작가 ₩ 200,000



065 /

최근 상업부기

임경재

1913년 초판 / 1책
22x14cm

시작가 ₩ 200,000



066 /

농가보감

1947년 초판 / 1책
21.7x15cm

시작가 ₩ 100,000



067 /

조선농회보

1916년 / 1책
22.5x15.5cm

시작가 ₩ 150,000

068 /

농촌지광

1935년 / 1점
26.5x19cm

시작가 ₩ 100,000

경기도 발행한 '종교와 미신', '농촌진흥좌담회'가 수록된 국한문 혼용 월간 농촌지 [농촌지광] 1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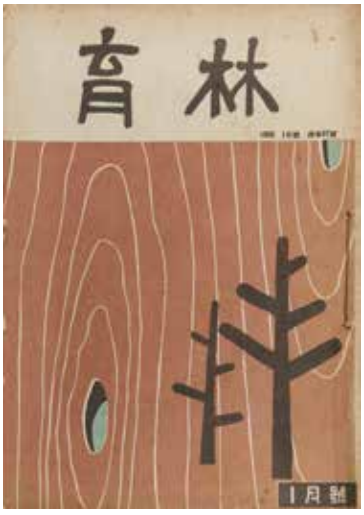
069 /

육림

1958~59년 / 5책
26x18.5cm

시작가 ₩ 300,000

산림 조성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잡지 [육림]이다.
1958년 10월호, 11·12合併號, 1959년 1월호, 2월호, 3월호이다. 林業時報社에서 主唱한 標語는 "掠奪林業에서 育成林業으로, 또다시 早期育成林業으로! 後代子孫을 爲한 長期林業에서 現代的 經濟林業으로 發展한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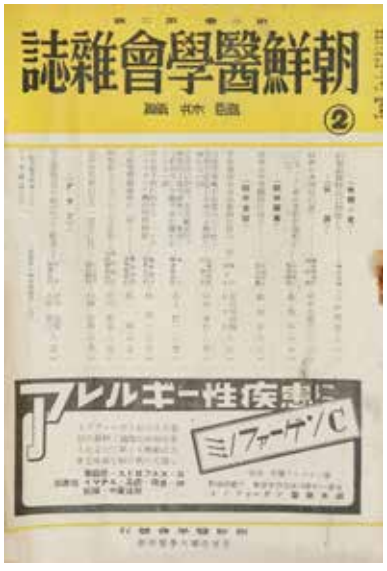
070 /

조선의학회잡지

1943년 / 1책
21x14.5cm

시작가 ₩ 200,000

발행소는 '조선의학회 편집부'로 표지 하단에 '경성제국대학의학부'로 병기되어 있다. 본 잡지에는 崔相彩 등 朝鮮人 醫師의 논문이 수록되어 있다. 崔相彩는 후에 전남대학교 초대 총장을 역임하였다.





071 /

이두집성

1937년 초판 / 1책
19x13cm

시작가 ₩ 200,000

조선에서의 공사문서, 금석문에 사용된 이두를 수집, 편찬한 사전이다. 이두를 자획(字劃)에 의하여 배열하고 독법(讀法)을 한글과 로마자로 기록하였으며, 일본어로 뜻을 달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解)'라 하여 부연 설명하여 그 뜻을 분명히 하였다.



072 /

공진회실록

1916년 / 1책
22.1x15cm

시작가 ₩ 500,000

1915년 9월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경복궁에서 개최한 朝鮮總督府 施政五年記念 朝鮮物産共進會의 行事 顚末을 수록하여 발행한 책이다. 徐丙協.鮮于日이 편찬을 하고 博文社가 1916년 발행하였다.

073 /

자유한인보



1책(18매 묶음)
27x22cm

시작가 ₩ 200,000

한인 포로수용소 동포들이 발행한 주보 [자유한인보] 마지막 제7호 중 18매 묶음철 1책이다. “루즈벨트 大統領·트루먼 大統領·맥아더 장군·리챠드슨 장군·홋지 중장·李承晩 博士”의 黑白 印刷 尊影이 順序대로 실려 있다. 그 뒤에는 “故國同胞 여러 兄弟에게 告別하는 말·停刊의 말”이 수록되어 있다.

074 /

심조만유론

백용성

1921년 초판 / 1책
22.5x15cm

시작가 ₩ 100,000



대각교를 창시한 승려이자 한말의 독립운동가 백용성의 저술이다. 유심의 도리를 깨달으면 유심의 대광명 밖에 다른 것이 없으며, 우주의 모든 것이 유심(唯心)과 유식(唯識)으로 인하여 나타난 것임을 강조하였다. 한문으로 된 본문에 조사나 부사는 한글을 사용하였다.

075 /

동학사

오지영

1940년 초판 / 1책
19x13.5cm

시작가 ₩ 200,000



오지영이 저술한 동학 및 천도교 운동사 자료이다. 그는 직접 동학농민군을 지도하여 봉기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생생한 체험과 견문이 이 책에 역력히 드러나 있다.

076 /

역사민족조선만담

이마무라 도모(今村 鞆)

1928년 초판 / 1책
23x16cm

시작가 ₩ 300,000



'대마도는 본래 조선의 속지' 라는 짧은 글이 수록되어 있다. 저자는 조선민속학회의 회원으로 본서를 통해 조선의 역사, 풍속, 민족성뿐만 아니라 京城의 市街, 金剛山 소개 등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다.



077 /

평안북도사

1938년 / 1책 / 17x22.7cm

시작가 ₩ 300,000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후기까지의 평안북도 역사를 정리하고 각종 자료를 수록하여 발행한 [平安北道史]이다. 말미에 24개의 평안북도 고지도 사진도판도 수록돼있다. 권두에 남차랑이 題辭한 글씨가 수록되어 있다.



078 /

충남산업지

1921년 / 1책 / 19.5x14cm

시작가 ₩ 300,000

대전실업협회 초판 발행, 일·한문 혼용 신식활자본 [충남산업지]이다. 本文에서는 忠淸南道의 行政·交通·運輸·通信·農業·營農一斑·特殊農産業·畜産·林業 等 産業 全般에 關하여 敍述하였다.



079 /

해주읍지

1937년 / 1책 / 25.2x17.5cm

시작가 ₩ 300,000

연활자본 [해주읍지] 상중하 합편 1책이다. 1863년 海州郡(朝鮮)에서 編한 필사본 〈海州誌〉에 발문을 쓴 安聖時가 본 출품물에도 1923년에 〈補編序〉를 쓰고 있다.



080 /

군산부사

1935년 초판 / 1책 / 22.5x15cm

시작가 ₩ 300,000

현재 우리나라 각 지역에서 발간되는 도지(道誌)·군지(郡誌) 등과 같은 성격으로, 1899년 개항 이후부터 개항 35주년이 되는 1934년까지의 군산의 정치·사회·경제 등 군산에 대한 거의 대부분의 정보가 기술되었다.



081 /

올림픽 경기사

1948년 초판 / 1책 / 18.5x12.8cm

시작가 ₩ 200,000

고대와 근대 올림픽에 대한 역사와 기원 등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권두에 손기정 선수와 1896년 아테네 올림픽 최초 IOC의 모습, 피에르 드 쿠베르탱 남작 등의 흑백사진이 담겨있다.



082 /

체육문화

1948년 / 1책 / 21x15cm

시작가 ₩ 200,000

런던올림픽 및 각 국제대회에 참여한 선수의 화보가 수록된 문교부 체육과 기관지 [체육문화] 창간호이다. 마라톤 3선수(남승용, 손기정, 서윤복), 올림픽 조선참가 공로자들의 모습(전경무, 이원순) 등을 화보로 수록하였다.



083 /

삼국사기

1914년 / 2책 완질 / 22x15.5cm

시작가 ₩ 300,000

신연활자본 [삼국사기] 전50권 전2책 완질이다
第1冊에는 卷1~22의 內容이 실려 있고, 第2冊에는 卷23~50의 內容이 收錄되어 있다. 第2冊의 題籤은 결락되어 있다.



084 /

여유당전서

1934~38년 / 65책 영본 / 26.5x17cm

시작가 ₩ 2,000,000

신조선사에서 발행한 신연활자본 [여유당전서] 65책 영본이다.
新鉛活字本 [여유당전서]의 完本은 全154卷 全76冊으로 구성되어 있다.



085 /

고경당이병직서화골동매립목록 ·경매도록

1937~38년 / 2책
23x15cm 이내

시작가 ₩ 400,000

송은 이병직의 소장품 경매 도록과 1938년 경성미술구락부 경매도록이다. 특히, 송은 이병직은 조선의 마지막 내시로 서화가로서 뿐만 아니라 골동 안목 및 수집으로 크게 이름을 날렸다. 수록자료 중 익숙한 유물이 보이는데, 추사의 예서체 대련, 국보 청자 기린형 향로가 그것이다.



086 /

동양미술대전람회도록·도록해설 ·대전람회목록

1939년 / 3책
39x30cm 이내

시작가 ₩ 3,000,000

지나와 조선의 회화품들도 전시하였는데, 조선 회화는 이왕가에 빌린 미술품으로 안견, 이인문, 김득신, 변상벽, 김홍도, 문청, 심사정 등의 작품이 보인다. 지나 작가로는 석각, 목계, 구영 등 쟁쟁한 화가들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일본의 국보 회화 작품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087 /

법륭사대경

1917년 초판 / 1책
40x30.5cm

시작가 ₩ 200,000

본 자료는 일본 法隆寺 및 소장 유물에 대한 설명과 사진을 수록한 것으로, 전질 64집으로 발행되었으며 본 출품물은 그 중 제48집에 해당한다. 전체 사진의 해설(3~5장 내외)과 각 유물의 사진(20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大正 3년(1913)부터 大正 7년(1918)까지 한 달에 한 번 발행하였다.

088 /

공예



1931~35년 / 3책
23x16cm

시작가 ₩ 300,000

일본민예협회에서 발행한 공예 작품의 사진을 각각 오려서 붙여놓은 일어판 활자본 [공예] 3책 일괄이다.

089 /

종합고와연구



1938~39년 / 4책
23x14.5cm

시작가 ₩ 300,000

한중일 삼국의 기와에 대한 심층적 연구서 [종합고와연구] 제일분책, 제이분책 등 총 4책 일괄(부도 2책 포함)이다. 조선 기와에 대한 연구 논문과 함께 다양한 사진을 수록되어 있다.

090 /

茶わん



1938년 / 1책
23x14.5cm

시작가 ₩ 100,000

'조선삼도특집'을 다루고 있는 일본 고미술 잡지 [茶わん] 제91호이다. 고려청자, 분청사기 등의 사진 삽화를 확인할 수 있다.



091 /

조선도항안내

1904년 / 1책
18x10.5cm

시작가 ₩ 1,000,000

조선으로 이민 갈 일본인들을 위한 가이드 북이다. 조선 이민을 원하는 일본인들을 위해 조선의 각 현황과 풍속, 각 직업 분야별로 진출할 수 있는 진로의 조언 등을 자세히 담았다. 서두에 인천항, 부산항, 한국우편전신국 등의 사진화보와 울릉도와 독도를 표기한 한국 전도를 첨부했다.



092 /

일청전쟁도회 풍속화보

1894~95년 / 1책
26x19.5cm

시작가 ₩ 900,000

청·일전쟁의 풍속화보 제1회~제10회 [일청전쟁도회 풍속화보] 임시증간 합본 1책이다. 일본의 유명한 화가들이 清·日戰爭과 관련하여 그린 수준 높은 그림들이 상당수 收錄되어 있다. 朝鮮 歷史가 실려 있으며, 채색 판화 및 동판화가 다수 첨부되어 있다.



093 /

조선요람

1922~26년 / 3책
15x10cm

시작가 ₩ 400,000

경성시가지 등 조선의 사진이 다량 수록된 [조선요람] 3책 일괄이다.
① 1922년 12월 발행 [大正十二年 朝鮮要覽] 1책
② 1926년 1월 발행 [大正十五年 朝鮮要覽] 1책
③ 1926년 12월 발행 [大正十六年(昭和二年) 朝鮮要覽] 1책

094 /

조선종교사

1911년 초판 / 1책
22.5x15.5cm

시작가 ₩ 150,000



095 /

일·청전쟁 관련 자료

1894~95년 / 5점
22.5x15cm 이내

시작가 ₩ 500,000



096 /

청한무역시찰록

1907년 / 1책
22.5x15.5cm

시작가 ₩ 150,000



097 /

국제사진정보
화보집

1925~26년 / 10책 합본
38x27cm

시작가 ₩ 200,000



098 /

명엽지해

1932년 / 1책
19x13cm

시작가 ₩ 200,000



099 /

조선금융조합사

1929년 / 1책
26x20cm

시작가 ₩ 400,000



100 /

황색종연초경작연혁사

1936년 / 1책
23x15.5cm

시작가 ₩ 300,000



101 /

극비 특별요시찰인 상세일반

1910~20년대 / 2책
24x17.5cm

시작가 ₩ 200,000





102 /

Historia de Las Misiones de La Campania de Jesus

1891년 재판 / 1책
26.5x20cm

시작가 ₩ 3,000,000

《하멜표류기》보다 먼저 한국을 서양에 알린, 임진왜란과 조선 수군의 뛰어난 활약상 등을 기록한 선교사 자료 [Historia de Las Misiones de La Campania de Jesus]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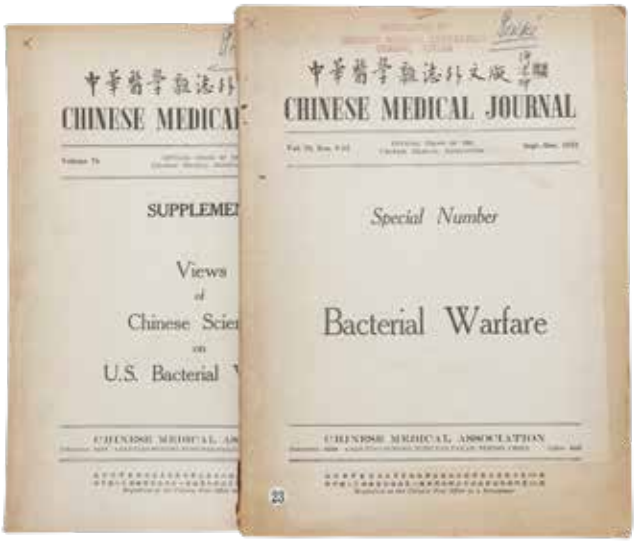
1540년에서 1600년까지의 동인도, 중국, 일본 등지에서의 예수교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 자료이다. 우리나라와 관련된 내용은 약 40페이지에 걸쳐 확인할 수 있으며, 'Coray'라고 정확하게 표기하고 있다. 1500년대 중, 후반에 일본에 도착한 서양인들은 우리나라를 'Coray, Corai' 등으로 표음했다.

103 /

Chinese Medical Journal

1952년 / 2책
25.4x18.7cm

시작가 ₩ 500,000



① 1952년 9~12월호 [Chinese Medical Journal(Specila Number) : Bacterial Warfare] 1책
② 1952년 12월 [Chinese Medical Journal Supplement : Views of Chinese Scientists on U.S.Bacterial Warfare] 1책

104 /

EGYPT & PALESTINE PHOTOGRAPHED

1858년 / 1책
45x33cm

시작가 ₩ 1,000,000



영국의 첫 사진의 대량생산이 가능하게 했던 F. Frith and Company를 1860년대에 설립한 Francis Frith(1822-1892)가 이집트와 팔레스타인을 세 번에 걸쳐 사진원정을 하면서 만든 [EGYPT & PALESTINE]으로, 원래 2개의 앨범 중 첫 번째 앨범이다.

105 /

WONDERLAND

1901년 / 1책
22.4x15.2cm

시작가 ₩ 600,000



미국의 북태평양 철도회사가 발간한 홍보잡지이다. 태극기에 관한 세계 최초의 논문이 실려있는데, 본출품물의 'THE HISTORY OF A TRADE-MARK'라는 제목의 글에 수록되어있다. 태극 문양이 동아시아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었으나, 국기에 활용한 것은 한국인이 유일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106 /

ORIENTAL SERIES - KOREA

1910년 초판 / 1책
24.7x16.8cm

시작가 ₩ 500,000



표지에 태극기가 있고 당시의 사진이 다수 수록된 Angus Hamilton 등의 저서 [ORIENTAL SERIES - KOREA]이다. 한국 여성들이 청계천에서 빨래하는 모습 등 당시 자연스러운 풍경과 1896년까지 존재했던 중국의 사신들을 맞이하기 위해 세워진 영은문의 사진이 수록되어있다.

107 /

사도성의 이야기
최승희 창작 무용극

1950년대 / 1책
21.5x14.5cm

시작가 ₩ 2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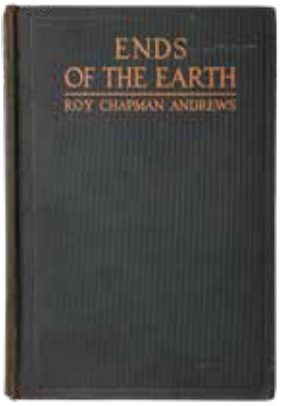


108 /

Ends of the Earth

1929년 초판 / 1책
24.2x16.7cm

시작가 ₩ 100,000



109 /

SPRING IN KOREA and Other Poems

1930년대 / 1책
22.4x15.2cm

시작가 ₩ 100,000



110 /

COREA

1888년 확대 개정판 / 1책
22.3x16cm

시작가 ₩ 500,000



111 /

Kim Su Bang

1909년 초판 / 1책
19.5x13cm

시작가 ₩ 300,000



112 /

KOREA

1904년 초판 / 1책
20.5x14cm

시작가 ₩ 2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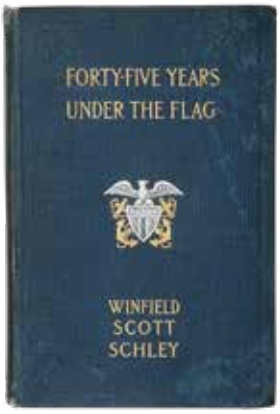


113 /

Forty-five years under the flag

1904년 초판 / 1책
22x14.7cm

시작가 ₩ 200,000



114 /

Те Ги Чен

1953년 / 1책
20.5x13cm

시작가 ₩ 200,000



제257회 삶의흔적

PART.02

근현대사



115 /

여의 회고록

안용호 친필 회고록

1960년대 초 / 3책(509장)
18x26.3cm

시작가 ₩ 8,000,000

1960년대 초에 저술한 '북간도'의 저자 안수길의 아버지 안용호의 친필 회고록이다. 70세를 기념한 안용호의 사진과 溫齋 韓圭復의 〈묵란도〉, 승려이자 불교학자인 權相老, 근세 최고의 정토학자 懷西 洪仁杓의 전서 글씨, 楓岳山人 崔其正 등의 축하하는 글과 글씨가 수록되었다. 회고록은 1963년 12월 31일을 마지막으로 기록하였고, 附錄雜記는 조선일보 기사 등 스크랩한 것으로 1964년 3월에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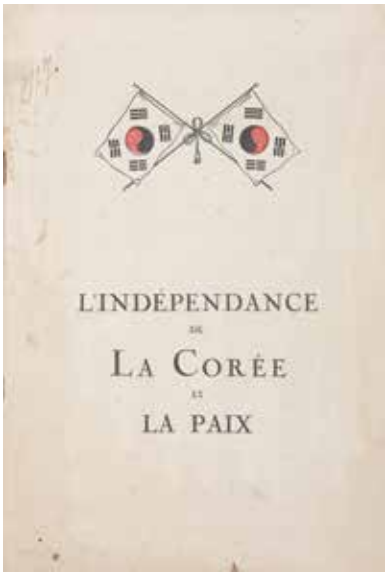
저자가 함흥을 떠날 때 서북학회지회장인 李冕振에게 부탁을 받고 경성에서 편지와 초청장을 가지고 안창호를 만났을 때 그가 통감부에 불려가서 통감부 2인자인 表孫一을 만나 나눈 이야기 등 재미있는 일화가 많이 수록되어 있다.

116 /

한국의 독립과 평화

1919년 / 1책
27.5x19cm

시작가 ₩ 10,000,000



1919년 파리위원부 정보국이 유럽 지역에 일제의 침략과 한국 독립운동 상황을 알리기 위해 간행한 책이다.

프랑스어로 제작되었으며, 국가와 민족, 한국과 일본의 관계, 일제 침략하의 한국 상황, 독립활동 등을 기록하였다.
부록으로 독립선언문, 대한제국과 일본 간 조약문 등을 수록하였다.

117 /

조선독립결의청원서 ·독립선언서

1919년 / 2점
31x25cm 이내

시작가 ₩ 500,000



1911~12년까지 발표된 청원서(1종)과 기미독립선언서 포함 선언서 17종이다.
당시 조선총독 하세가와 요시미치(長谷川好道)에게 보낸 유인본[朝鮮獨立決議請願書, 1919년3월]도 민족대표가 33인으로 기미독립선언서와 일치한다.

[朝鮮獨立決議請願書]는 기미독립선언서와는 내용과 작성 언어(일어)가 다르며, 말미에 이름 순서를 바꾼 민족대표 33인을 명기하고 있다.



11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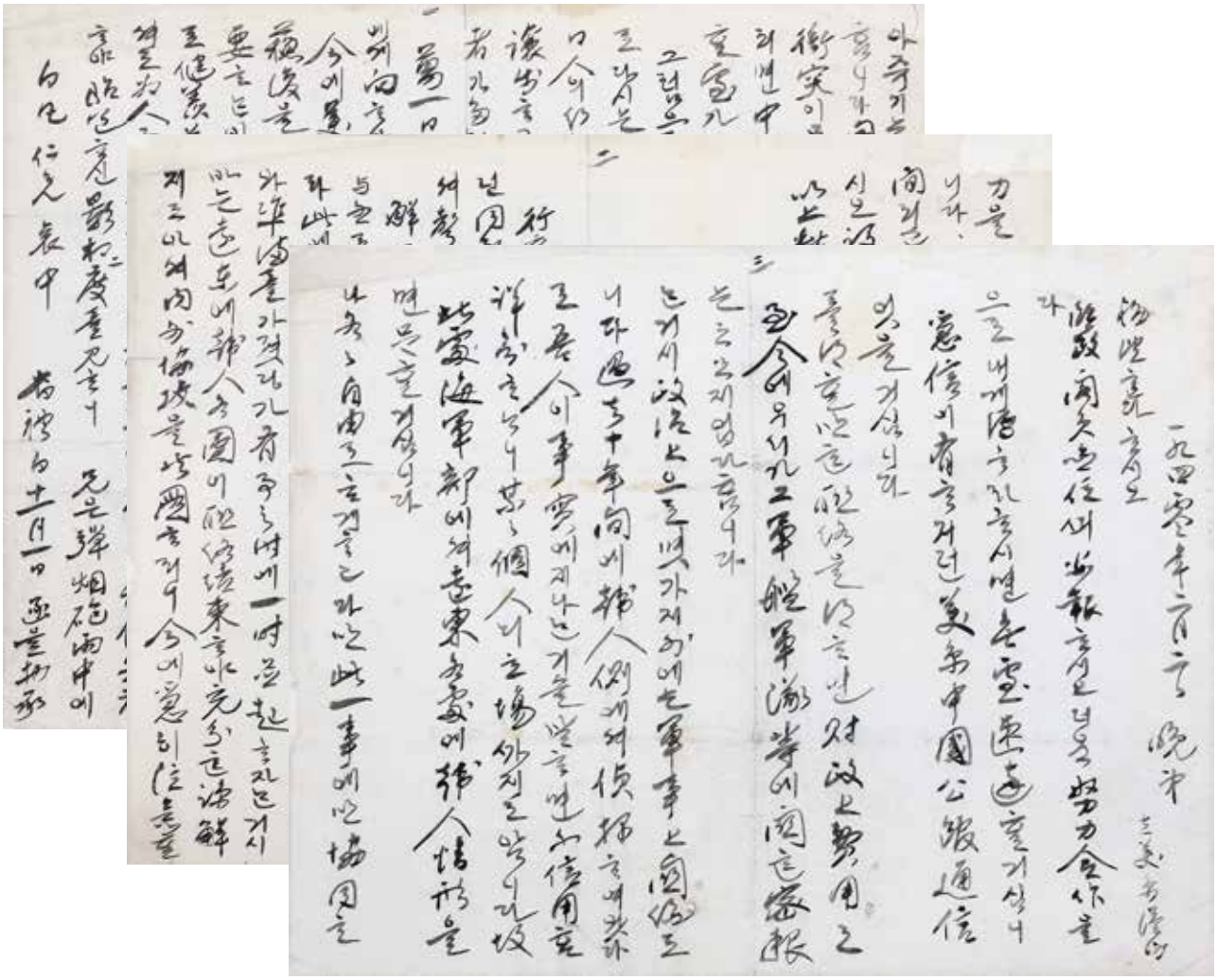
백범 김구 글씨
성재 신익교에게 증정

1948년 / 1점
17x11.5cm

시작가 ₩ 300,000

백범 김구가 1948년 9월 성재 신익교에게 친필 서명하여 증정한 책에서 김구의 글씨만 분리해 액자로 만든 것으로 보인다.
오른쪽 상단 寬和라고 새겨진 圖章이 날인되어 있고, 省齋 辛益教先生 惠覽 이라고 적혀있다.

글씨 末尾에는 "大韓民國三十年 九月日 白凡 金九"라고 되어 있으며, 그 아래에는 "金九之印"이라고 새겨진 圖章이 날인되어 있다.



119 /

우남 이승만이 백범 김구에게 보낸 편지

1940년 / 1점(3매 구성)
22x28cm

시작가 ₩ 35,000,000

當時 美國 워싱턴에 머물고 있던 雩南 李承晩(1875~1965)이 내간상(內艱喪)을 당한 白凡 金九(1876~1949)에게 보낸 便紙이다.

便紙의 主要 骨子는 "미국에서 (日本에 對한) 전운이 감돌고 있는데, 한미 군사 공조를 통해 일제에 대항해야 하므로 臨時政府 閣員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모아 달라. 名戰上 '合同'이나 '統一'이니 하는 허황한 담론으로써 心力을 虛費하지 마시라."라는 내용이다.

太平洋 戰爭 勃發 直前 雩南 李承晩과 白凡 金九가 祖國의 獨立을 爲해 緊密하게 意見을 주고받았던 筆談의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便紙라는 점에서, 政治史的·獨立運動史的으로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120 /

김구·이승만
정치인 사진

1940~60년대 / 4점
14x11cm 이내

시작가 ₩ 5,000,000



태극기를 뒤에 걸어놓고 연설하는 모습과 만년필 2자루를 가슴에 꽂고 정장차림으로 앉아있는 김구의 원본 사진이다.

다른 한 점은 이승만과 맥아더로 추정되는 장군과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이고, 정치인 2명이 같이 찍은 사진도 확인할 수 있다.



121 /

청일전쟁 및 구한말 사진
원본사진 다수 포함

1890~1900년대 초 / 18점
20x22cm 이내

시작가 ₩ 4,000,000

① 청일전쟁 이후 1895~1896년 사진 및 관련 자료

: 1895년 개선문을 세우고 일본군이 만리창으로 개선하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 조선 관아 앞에서 일본군과 조선인들이 포즈를 취한 사진, 청나라 사람들과 외국 외교관이 '海表陽春 英欽命駐箚朝鮮'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 앞에서 찍은 기념사진, 1896년 외국인들이 청나라의 석상 앞에서 찍은 기념사진이 첨부된 영문 메뉴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② 구한말 사진

: 외국인, 조선의 양반, 대한제국 순검들이 함께 찍은 대형 기념사진, 구한말 북한산 산영루 등의 모습을 담고 있다.



122 /

선만연합의학회
사진첩

일제강점기 / 1점
28x36cm

시작가 ₩ 2,500,000

鮮滿連合醫學會 소속의 일본 의사의 사진첩으로 추정된다.

서두에 조선총독 사이토 마코토와 하세가와 총독을 가운데로 앉혀 찍은 대형 기념사진으로 시작한다. 이후 제1회 선만연합의학회 현수막이 보이는 대형 기념사진(이후 14회 기념사진에는 한복 입은 조선인 등장), 만주에서 찍은 기념사진, 각각 일본기생과 조선기생이 보이는 다른 장소에서 찍은 기념사진 등 대형 사진이 35점이며, 이 가운데 의학관련 사진으로 보이는 대형사진이 15점 이상이다. 중간에 조선인과 조선기생들이 함께 찍은 사진 중에 박영효 모습이 확인된다.

123 /

조선주차나남위수병원
기념사진첩

일제강점기/ 1점(30장)
14x19.5cm

시작가 ₩ 3,000,000



함경북도 나남의 위수병원 신청사 개관을 기념하며 편찬한 사진첩이다.

병원장을 포함한 위수병원 관계자들의 단독 사진 6점과 병원의 전경 사진 1점을 포함하여 풍경 사진, 조선군 단체 사진, 병원 내 의료진의 사진과 진료실, 병리 실험실 등의 원본 사진이 수록되어 있다.

124 /

평양비행제6연대
사진첩

일제강점기 / 1점(112장)
28x36.5cm

시작가 ₩ 1,000,000



平壤 관련 사진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평양 시내에서 비행하는 모습이나 평양 시가지 전경 등이다. 妓生들이 부대 및 평양 주요 명소에서 찍은 사진들도 확인할 수 있으며, 전쟁을 준비하는 부대의 모습, 白頭山 주변을 비행하는 장면도 장관이다.

125 /

소래교회
원본 단체사진

1910년대 / 1점
11x15cm

시작가 ₩ 400,000



소래교회를 세운 최초의 한국인 목사 중 한 명인 서경조 목사가 등장하는 사진이다. '禮拜堂' 현판에 '主降世一千九百十年'을 확인할 수 있다.

126 /

외국인과 함께 찍은
조선인 단체사진

1900년 전후 / 1점
11.8x16.7cm

시작가 ₩ 300,000



우장을 쓰고 카메라가 신기한 듯 보고 있는 조선인들과 중절모에 흰색 정장을 입은 외국인의 모습을 볼 수 있다. 1890년 원산을 중심으로 일어난 대각성 운동 시기로 추정된다.



127 /

일본군 송환사진

U.S. Army Signal Corps 촬영

1945년 / 1점 / 20.5x25.3cm

시작가 ₩ 600,000

광복 이후 한반도에 거주했던 일본인들이 일본으로 송환되는데, 당시 상황을 미국 U.S. Army Signal Corps에서 찍은 원본 사진이다. 1945년 말까지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돌아간 민간인은 47만여 명이었다.



128 /

최순주 전임 총재 및

조선은행 단체사진

1946년 / 1점 / 20.2x27cm

시작가 ₩ 400,000

1946년 조선은행을 배경으로 찍은 재무부 장관을 역임한 당시 조선은행 최순주 전임 총재가 포함된 조선은행 단체사진이다. 사진 하단에 'hold on June 21~22.1946.'가 인쇄되어 있어 당시 미팅 개최연도를 알 수 있다.



12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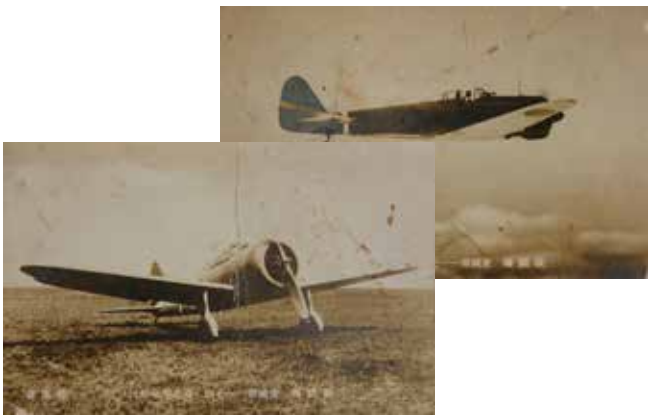
전통복장을 갖춘 한국인

원본 기념사진

일제강점기 / 4점 / 25x17cm 이내

시작가 ₩ 300,000

일제강점기 安城竹山市 世祐寫眞館에서 촬영한 전통복장을 갖춘 한국인 사진이다. 4점 중 1점 내부에 촬영 사진관의 스탬프가 찍혀 있다.



130 /

전투기

사진

일제강점기 / 2점 / 8.5x13.5cm

시작가 ₩ 100,000

일제강점기 陸軍省에서 발행한 사진이다. 사진 하단에 적힌 문구로 볼 때, 경북 봉화군민들의 성금으로 제작된 전투기를 찍은 것으로 보인다.

131 /

한국파견기병대 공주수비대
물건비 장부

1908년 / 2책
22x15cm

시작가 ₩ 2,000,000



'明治四十一年度四月分 韓國派遣騎兵隊第四中隊 公州守備隊' 등의 명문이 보인다. 그해 4월과 11월에 해당 되는 부대의 물건비 장부로 주로 식료품에 관한 내용이다.

132 /

화성성역의궤

1898년 / 1책
24.5x16.5cm

시작가 ₩ 1,000,000



브릴 출판사(E.J.Brill)는 네덜란드의 국제학술출판사이다. 9p의 본문과 13도의 도판을 수록하였다. 불어판이다.

133 /

식산은행·조선신산신탁 관련
금융수탈 자료

일제강점기 / 7점
20x15cm 이내

시작가 ₩ 200,000



일제강점기 금융지배 수탈기관인 〈식산은행〉과 〈조선식산신탁(주)〉, 조선총독부가 창안해 낸 가장 효율적인 금융지배 수탈기관인 〈조선금융조합연합회〉 관련 자료 일괄이다.



134 /

정관(초안)

기동보린사

1927년경 / 1점
24.5x16.5cm

시작가 ₩ 200,000

여주군 일원의 독실한 소농(어려운 농가)들이 모여서, 농자금 융통, 창고업, 농산물 공동 판매 등의 사업을 추진함으로서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자 조직하고자 한 〈기동보린사〉 자료이다.



135 /

금융수탈 자료

1920~34년 / 6점
18x12cm 이내

시작가 ₩ 200,000

① 조선총독부 체신국 발행 : 〈보험료 領收帳〉, 팸플릿 〈國債이야기〉
② 조선저축은행 발행 : 저축장려 팜플릿 〈事變下의貯蓄に就て〉
③ 일본 근업은행 발행 : 소화19년 발행한 〈전시저축채권〉



136 /

농업수탈 자료

일제강점기 / 7점
20x15cm 이내

시작가 ₩ 500,000

① 自作農地 設定事業 관련 자료 : 〈자작농지설정요강〉, 〈農林局長挨拶〉
② 地主會 관련 자료 : 〈地主會 設立趣旨〉, 〈利川郡地主報國會趣旨〉,
〈利川郡地主報國會〉에서 보내는 안내문, 〈道知事告辭要旨〉

137 /

염전 관련 자료

주안염전, 대한염업조합연합회의 등

일제강점기~1950년대 / 17점
28x36cm 이내

시작가 ₩ 22,000,000

① 1938년 조선총독부전매국주안출장소 발행 [朱安鹽田槪要]
: 주안염전 사진, 월미도 인천항과 주안염전, 남동염전, 소래염전, 군자염전 등이 보이는 '朱安管轄鹽田略圖', '鹽田構造圖' 개요 등을 잘 정리해놓았다.

② 1938년 조선총독부전매국 발행, 1938년도 연보 [朝鮮總督府專賣局第拾八年報] 1책
: 서두에 컬러도판으로 자세히 표기한 전매관서위치와 관할구역 겸 연초인삼염아편산지일람표 지도가 있으며, 중간에 컬러 통계표를 수록하였다.

③ 일제강점기 말엽 발행, 조선총독부전매국에서 소금의 긴급생산 확대안을 논의한 [塩緊急增産打合會議, 塩緊急增産實施要綱] 유인본 1책
: 말미에 道知事에서 제출하는 자급염제조허가신청서 예식과 조선염전전매령시행규칙의 개정과 마지막에 1945년 5월의 '大東亞戰爭際塩專賣事務中道知事'이 보인다.

④ 1946년 [專賣局長會議書類] 유인본 1책
: 인사계, 기획계, 영선계, 조도계, 사계계, 인삼계, 아편계, 판매계, 취납계, 경작계, 제조, 염무계(塩務係) 등 다양한 부서의 회의기록을 담았다.

⑤ [祕] 1947년 專賣本局鹽蔘課 발행 [塩田管理槪要] 1책
: 서두에 1947년 4월 24일에 열린 '仁川鹽田祈願祭' 모습, 1946년 주안염전의 생산우량자 표창식 모습, 1946년의 염전제(祭) 모습 등 흑백사진 5매가 수록되어 있다.

⑥ 1947년 全州地方專賣局 발행, 연초의 경작과 제조 현황, 소금의 배급기구, 전오염(煎熬鹽) 생산현황 등을 담은 [管內狀況] 1책

⑦ 1947년 재무부專賣局鹽蔘課 발행, 10개년 계획서로 작성된 [國內塩自産自足에 對한 一案]
: 재무부전매국염삼과 製鹽계장과 塩務계장의 서문에는 전통의 전오염이 일제의 천일염과 수입염으로 쇠락하였고 해방 후에도 여러 사정으로 염의 부족이니 서해안 일대를 중심으로 소금의 자급자족을 이루자는 취지로 적고 있다.

⑧ [祕] 1948년 재무부專賣局鹽蔘課 발행, [瑞山塩田築造計劃書] 유인본 1책

⑨ [저자 서명 증정본] 1950년 행림서원 발행 재판본, 재무부전매국 李鳳熙 저 [天日製鹽工業]

⑩ 1956년 사단법인 大韓鹽業組合聯合會 발행, The Salt News [소금] 1호 1책 유인본

⑪ 1957년 대한염업조합연합회 발행 비매품, 10주년 기념으로 발행한 [塩田誌] 1책

⑫ 1958년 禮山鹽業組合 [定期總會議案] 유인본 1책

⑬ 1967년 [定款] 유인본 1책

⑭ 일제강점기 [광양만 염전 사진엽서] 1점

⑮ 주안염전을 홍보하는 '沿線案內 14' [전단지] 1점

⑯ 주안염전 모습 사진 인쇄본

⑰ 주안염전으로 추정되는 과거 염전 사진을 後 인화한 사진


朝鮮總督府專賣局第拾八年報
朱安鹽田概要
檀紀4291年度
定期總會議案
檀紀一九四七年六月
秘
塩田管理概要
專賣本局鹽參課
內鹽自産自足에 對한一案
書劃計造築田鹽山
財務部專賣局塩業課
天日製鹽工業
李鳳振著
杏林書
The Salt News
소금
1
全東燁 社長 貴下
謹呈
定款
鹽田誌
▲鹽田で名高い朱安



138 /

미국 원조 악수표

밀가루 포대

해방이후 / 1점 / 82x50cm

시작가 ₩ 200,000

뒷면에 '밀가루 미국 국민이 기증한 것'이라는 한글 명문과 악수표가 인쇄되어 있다. 앞면에는 'TA 4617 WHEAT FLOUR DONATED BY THE PEOPLE OF THR UNITED STATES OF AMERICA' 명문을 볼 수 있다.



139 /

가등정미소

백미 포대

일재강점기 / 1점 / 71x86cm

시작가 ₩ 100,000

인천 소재의 合資會社 加藤精米所에서 사용한 것이다. 당시 朝鮮總督府檢查를 받고 일본으로 수출했던 것으로, 조선 쌀을 수탈하여 일본에 헐값에 팔았던 것이 그 실체이다.



140 /

근업소 기념

은제 잔·잔받침

1900년대 초 / 2점 / 지름 5cm, 9cm

시작가 ₩ 1,000,000

1906년 설립, 인천지역 미곡 무역을 주도한 농상공부 허가 쌀 중개업체 '勤業所' 기념자료이다. 잔 받침에 '祝'이라는 글자와 함께 벼 문양으로 꾸민 것이 인상적이다. 잔 내부에는 '勤'자를 새겼다.



141 /

한일식 탈곡기

법랑간판

1960년대 / 1점 / 33x85cm

시작가 ₩ 500,000

1960년대 경상북도 김천시 용두동에 있던 탈곡기 회사의 법랑간판이다. 간판의 중앙에는 '韓一式 脫穀機'라고 상표를 내세우고 있으며, 상단에 범표 특제품이라고 적혀 있다.



142 /

조선호텔
객실 열쇠

1920~30년대 / 1점 / 11x5.5cm

시작가 ₩ 300,000

100년 전 국민에게 신문물을 보여준 유일한 장소였던 조선호텔의 황동제 열쇠이다. 열쇠 택에 'M.DASKALOFF'라고 각인되어 있는데, 당시 호텔에 묵었던 손님의 이름을 각인 한 것이다.



143 /

미쓰코시(三越) 백화점
어감정서·사진엽서 등

1900년대 초 / 7점 / 17x16cm 이내

시작가 ₩ 100,000

① 미쓰코시 백화점 경성지점에서 계산서로 사용한 [御勘定書] 4점과 [봉피] 등 총 5점 일괄
② 미쓰코시 백화점의 모습을 담은 [사진엽서]와 [봉피] 등 총 2점 일괄



144 /

중국 담배 카드
광고 포스터 수록

1930~40년대 / 132점 / 각 5.5x3cm

시작가 ₩ 100,000

上海中法大藥房, 姐小樂快, 美麗牌, 廣生行有限公司, 上海影壇, 太陽煙草公司贈品 등의 광고 포스터가 수록되어 1930~40년대 중국 광고의 발전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



145 /

올림픽 후원권
우리나라 최초 복권

1947년 / 1점 / 7x12cm

시작가 ₩ 100,000

해방 후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처음 참가한 런던올림픽에 파견할 대표단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각 시도 단위로 발행한 것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복권이라 할 수 있다.



146 /

파리의 위해성·면화 공동판매 안내문

일제강점기 / 2점 / 24x32cm 이내

시작가 ₩ 100,000

① 일제강점기 南原警察署 발행, 파리(蠅)의 위해성을 강조한 국한문 혼용 [전단지] 1점
② 南原郡農會 발행, 棉花의 성공적인 販賣를 위한 [棉花共同販賣宣傳] 1점



147 /

영수증서 사마방목 인출 분담금

일제강점기 / 1점 / 27x24cm

시작가 ₩ 300,000

司馬榜目 인출 시 內閣에 납부한 분담금 영수증서이다. 大邱 거주 進士 入格 徐鎭穆에게 발급한 것으로, 목판 인출한 양식지에 묵서로 기입하고 관인을 날인하였다.



148 /

소비절약 리플릿

일제강점기 / 1점 / 38.3x52.3cm

시작가 ₩ 200,000

消費節約과 勤儉貯蓄을 강조하고 있다. 衣, 食, 住, 家事, 商店, 社交儀禮, 相互共勵, 貯蓄의 항목으로 나누어 서술하고 있으며, 각 항목별로 절약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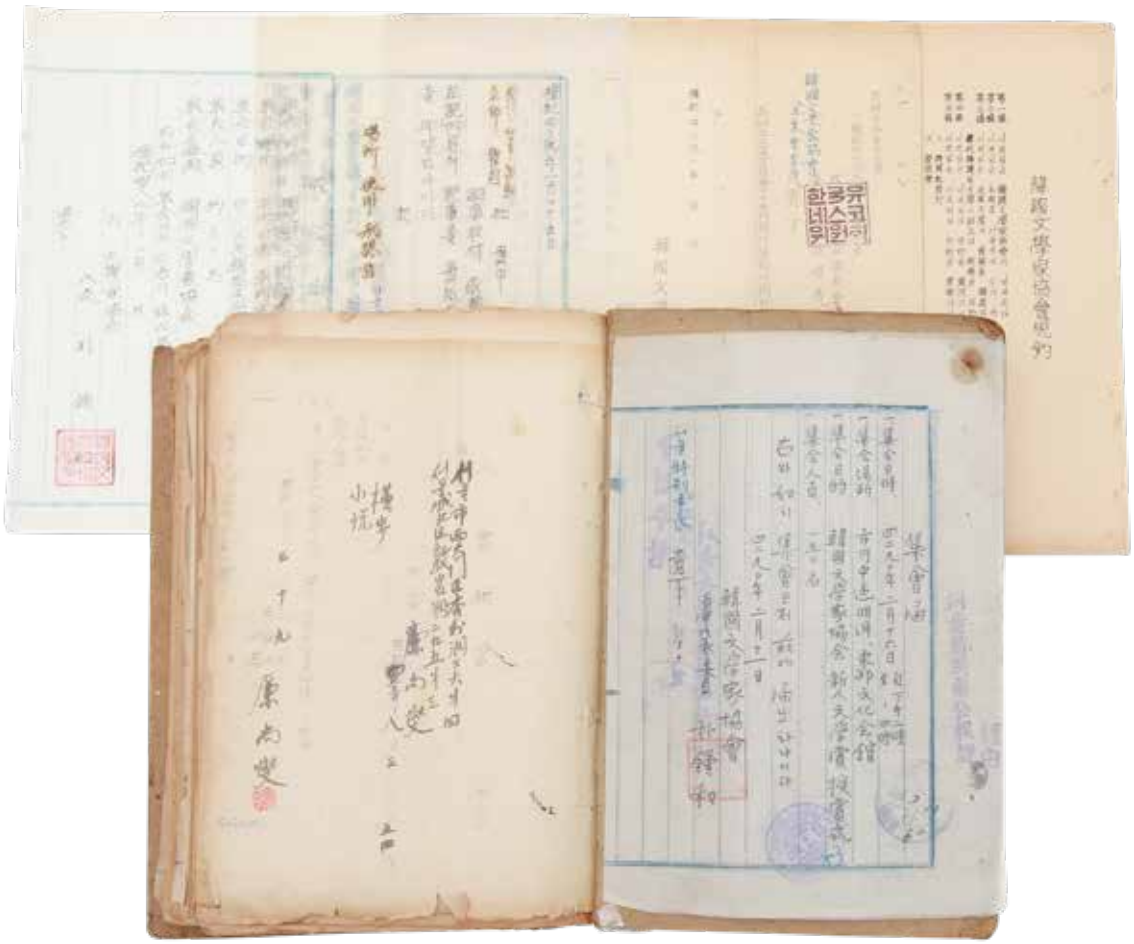
149 /

삼천포항 주조장 안동옥 홍보 전단지

1938년 / 1점 / 9.5x17.5cm

시작가 ₩ 1,000,000

1938년 삼천포항 주조장 '안동옥(安東屋)'의 홍보 전단지이다. 앞면에는 '안동옥'의 광고와 공초의 술 예찬시(일어)와 달력, 뒷면에는 달성권번 기생 명단 140명 이상의 이름을 볼 수 있다.



150 /

한국문학가협회 관련 자료

120명 이상의 문학가 친필

1950년대
28x22cm 이내

시작가 ₩ 10,000,000

① 1950년, 1953년, 1958년 등에 한국문학가협회의 약 120명 이상의 작가들이 자필로 작성하여 낸 입회원서철

: 한국문학가협회는 1949년에 결성되었던 문학 단체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에 문인들이 가장 폭넓게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공식적이고 대표적인 문학 단체가 되었다. 입회원서철은 본적, 주소, 호, 전공, 직장명, 약력, 중요저서 등을 자필로 작성해서 제출하는 형태이다. 또한 본인의 서명 옆에는 추천인의 자필 서명이 보인다. 참여한 작가들을 살펴보면 염상섭, 박용덕, 이상로, 조병화, 윤금숙, 이원섭, 홍웅선, 전봉건, 김말봉, 홍영의, 박두진, 임인수, 장덕조, 정운삼, 이형기, 손소희, 조풍연, 피천득, 허윤석, 오영수, 이영도, 김수돈, 김상옥, 조흔파, 이동주, 김춘수, 조영암, 임긍재, 이경순, 황순원, 홍두표, 박기원, 방인근, 강소천, 김용팔, 박남수 등이다. 추천인 들의 서명은 김동리, 최인욱, 조연현, 박용구, 조병화, 최정희, 강소천, 곽종원, 박목월, 조지훈, 박용덕, 구상 등이다.

② 1950년 한국문학가협회 관련 자료

: 1950년대에 한국문학가협회 공문, 1959년 한국문학가협회 정기총회, 3회, 4회 문학상 등 관련 엽서 4점, 1959년 서울 교육위원회 교육감이 한국문학가협회에 보내는 광복절 포상인 추천 건, 집회계, 영수증, 탈퇴서(방기환, 마해송, 최정희 등), 계약서, 협회 임원명단, 4회 정기총회 회의록, 협회 회원 명부, 규약 및 회원 명부, 협회 규약 등이다.

151 /

이상화 미발표 유고시
눈 오시는 밤 친필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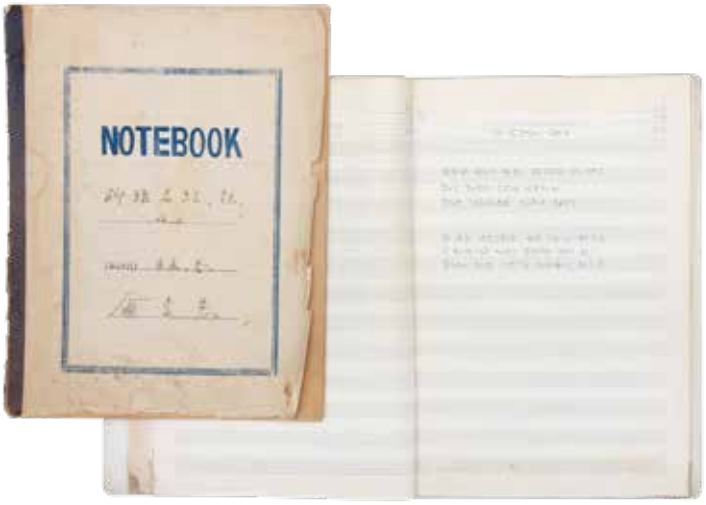
1928년 / 1점
19x13cm

시작가 ₩ 5,000,000



1928년 시인 李相和가 기생출신 애인 小玉과 함께 쓴 친필 시이다. 小玉(玉卿)은 대구 서대문집 한 채 건너에 살았던 기생이며, 이상화가 가산을 탕진할때까지 5년간 열렬히 사랑했던 애인이였다.

하단 설명을 보면 '1928년 12월 어느날 쓰다 버린 원고지에 小玉과 함께 溫突방에 엎드려서 쓴 詩'라는 설명지가 붙어 있다. 이 같은 내용과 이 시의 원본 일부 사진이 1963년 5월 12일자 신문에 수록되어 있다.



152 /

이호우 친필 노트
미발표 시 수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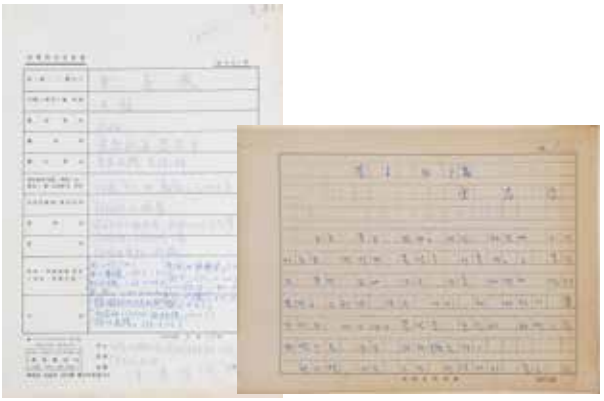
1950년대 / 2점(28편)
26x20.5cm

시작가 ₩ 3,000,000

경북 청도 출신의 시인 爾豪愚가 친필로 쓴 노트 2점으로 각 9편, 19편이 적혀 있다. 본 출품물에 담긴 작품은 爾豪愚의 친필로 확인되며 그의 시집이나 문학잡지 등에 수록되지 않은 미발표 작품이다. 한 노트에는 작성연대가 1952년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필체나 노트의 형식 등으로 보아 작성연대는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

① 「窓」, 「倦怠」, 「잃어버린 핏줄」, 「나는 이제 슬픈 部落을 떠날가 봅니다」, 「밤이 이어진 언덕 길」, 「자취」, 「無題」, 「流星」, 「봄비」 총 9편

② 「倦怠」(①과 중복), 「開花」, 「단 하나를 찾아」, 「가는 봄」, 「살구꽃 핀 마을」, 「곰」, 「삼불야」, 「추석」, 「달밤」, 「나의 별」, 「단층에서」 등 총 19편



15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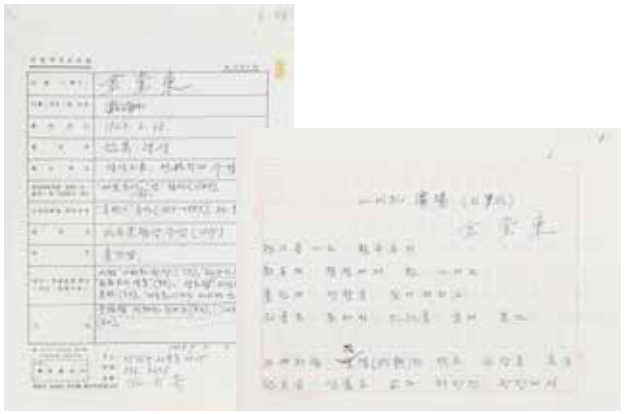
김춘수

친필 프로필·원고

1984년 / 18장 / 19.5x27.5cm

시작가 ₩ 1,200,000

1984년 혜원출판사에서 책 발행을 위해 김춘수 시인에게 원고를 청탁한 것으로 보이며, 김춘수 시인은 자신의 프로필과 「꽃1」을 비롯한 총 10편의 작품을 원고지에 자필로 작성하였다.



154 /

김규동

친필 프로필·원고

1984년 / 37장 / 17.5x25cm

시작가 ₩ 2,000,000

1984년 혜원출판사에서 책 발행을 위해 김규동 시인에게 원고를 청탁한 것으로 보이며, 김규동 시인은 자신의 프로필과 대표작 「나비와 廣場」을 비롯한 총 10편의 작품을 원고지에 자필로 작성하였다.



155 /

신동집

친필 프로필·원고

1984년 / 33장 / 25.5x17.5cm

시작가 ₩ 1,500,000

1984년 혜원출판사에서 책 발행을 위해 신동집 시인에게 원고를 청탁한 것으로 보이며, 시인은 자신의 프로필과 「목숨」을 비롯한 총 11편의 작품을 원고지에 자필로 작성하였다.



156 /

정재각 논문 원고본

명대초기의 병제연구

1937년 / 1책 / 22x15cm

시작가 ₩ 300,000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원장을 역임한 藍史 鄭在覺이 1937년 경성제대 법문학부 사학과에서 친필로 작성한 학사 논문 원고본이다.

157 /

박수동
삽화 원화

1980년대 / 80점
27x19cm 이내

시작가 ₩ 2,500,000



만화 〈고인돌〉로 대중에게 잘 알려진 만화가 박수동 화백의 삽화 원화이다.

소장자가 서두에 잡지 '샘이 깊은 물'과 '말'誌에 수록된 삽화라고 적혀 있고, 확인되지 않지만 원화에 페이지 및 인쇄 용어들이 적혀 있다.



158 /

송영방
삽화 원화

1980년대 / 77점
28x19.5cm 이내

시작가 ₩ 3,000,000

잡지 '샘이 깊은 물'에 연재한 글에 수록된 우현 송영방의 삽화 원화이다.

원화에 붙어 있는 '샘이 깊은 물' 라벨이 있으며, 故 한창기가 송영방에게 삽화를 부탁했다고 한다. 삽화에 기재된 연도 '1988'을 보면 당시 연재되었던 홍정선의 '한 여자 작가의 자기 사랑'으로 보이나 확인하지 못하였다. 한 장은 채도를 낮춘 복사본이며 나머지 76점은 원화이다.



159 /

이원수 스크랩북

신문기사·안내문

1970년대 / 1점(60장)
31.5x28.5cm 이내

시작가 ₩ 300,000

이원수 기고 글이 담긴 [한국아동문학가협회 리플릿]. 1974년 제6회 대한민국문화예술상 [안내문], 1979년 제4회 아동문학세미나 [안내문], 연속 동극 [강물은 흐른다] 이원수 作 [교정본] 등이 수록되어 있다.



160 /

이원수

만화 원화·전시도록

1998년 / 6점
19x26.7cm

시작가 ₩ 300,000

우리나라가 IMF로 힘들었던 시기 이를 벗어나기 위해 고군분투하던 故 김대중 대통령의 모습을 소재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04년 11월 1일부터 5일까지 영국에서 열린 [전시도록]도 포함되어 있다.



161 /

불국사 창건비화

만화 원화

광복 이후 / 1책
30x22cm

시작가 ₩ 2,000,000

內題紙 上段에는 "千古奇談. 三生異蹟. 佛國寺祕話."라고 쓰여 있다. 本文은 '第1部「前世業因篇」·第2部「現生果報篇」·第3部「佛國建設篇」' 等 全3部로 구성되어 있다.

162 /

이만수 〈천재시인 김삿갓〉

만화 원화

1994년 / 110장
28x40cm

시작가 ₩ 300,000



1994년 글동산에서 발행한 만화《천재시인 김삿갓》의 원화이다.
총 110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원고마다 수정 내용을 기입한 종이가 붙어 있다.

163 /

이만수 〈배꼽 잡는 정수동〉

만화 원화

1995년 / 110장
27x39cm

시작가 ₩ 300,000



1995년 글동산에서 발행한 만화《배꼽 잡는 정수동》의 원화이다.
총 110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인공 정수동이 탐관오리를 벌하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이야기이다.

164 /

이만수 〈날아라 일지매〉

만화 원화

1994년 / 110장
28x39cm

시작가 ₩ 300,000



1994년 글동산에서 발행한 만화《날아라 일지매》의 원화이다.
총 110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표지에만 수정 내용을 기입한 종이가 붙어 있다.



165 /

이재진 〈천하제일 고집불통〉

만화 원화·표지 원화

1970년 / 6점
33x47cm

시작가 ₩ 1,000,000

1970년 신진문화사에서 발행된 이재진 화백의 만화 및 표지 원화이다. 학교를 배경으로 주인공 철이의 야구 성장기가 주된 내용이다.



166 /

이재진 〈반장 대 반장〉

만화 원화·표지 원화

1973년 / 3책
33x47cm

시작가 ₩ 800,000

1973년 상록문화사에서 발행된 이재진 화백의 만화 및 표지 원화이다. 글씨와 그림을 마커와 수정펜으로 수정한 흔적과 각 권마다 판권지 원본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67 /

김성환 〈고바우 영감〉

만화 원화

1970년대 이후 / 1점
32.5x24cm

시작가 ₩ 100,000

金星煥 화백이 역사학자 柳洪烈에게 증정한 것으로, '柳洪烈 博士 案下'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그의 대표작인 고바우 영감을 소재로 했다.

168 /

우키요에

1894년 / 2점
36x72cm

시작가 ₩ 200,000



169 /

조선국왕성지도

동판화

1894년 / 1점
37x75cm

시작가 ₩ 300,000



170 /

경성 안내 자료

지도·안내책자

일제강점기 / 4점
20x10cm 이내

시작가 ₩ 500,000



171 /

조선안내

1912년 / 1점
78x52cm

시작가 ₩ 250,000



172 /

진해군항시가전경

회엽서

일제강점기 / 4점
18.7x9.7cm

시작가 ₩ 400,000



173 /

조선 경주

사진앨범

일제강점기 / 1점
13x19.5cm

시작가 ₩ 150,000



174 /

평양

사진앨범

1929년 / 1점
13x19.5cm

시작가 ₩ 200,000



175 /

조선풍경인속사진첩

1911년 / 1책
27x39cm

시작가 ₩ 800,000





176 /

만주사변출동기념
사진첩

1932년 / 1점
31.5x24cm

시작가 ₩ 300,000



177 /

경기도세일반
소책자

1929년 / 1점
11x20.5cm

시작가 ₩ 200,000



178 /

농가월령가
농민운동지침

1940년대 / 2책
27x19cm

시작가 ₩ 200,000



179 /

포츠담 공동선언문
일어 전단지

1945년 / 1점
26x18cm

시작가 ₩ 300,000



180 /

편지
목포감옥

임술년(壬戌年) / 1점
28.5x140cm

시작가 ₩ 500,000



181 /

도세일반
충청남도

1923년 / 1점
47x63cm

시작가 ₩ 200,000



182 /

외국어학교 부교관
임명장

1902년 / 1점
41x53cm

시작가 ₩ 500,000



183 /

직원록

1932년 / 1책
30x21.5cm

시작가 ₩ 300,000

184 /

관계명감

조선총독부 관리명단

1944년 / 1책
11x15cm

시작가 ₩ 100,000



當時 朝鮮總督府에 在職하고 있던 日本 官吏들의 姓名·出生地·卒業한 大學校의 學校名과 卒業年度·專攻·駐在하고 있는 朝鮮 官舍의 住所가 기록되어 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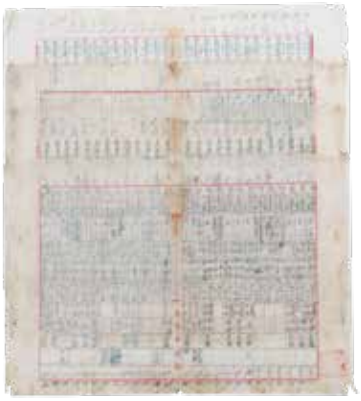
185 /

장정인명부

병역대상자 명단

1949년 / 1첩
27x38cm

시작가 ₩ 8,000,000



1949년 錦山郡 南一面에서 작성한 일종의 '병역대상자 명단' 공문서로, 만16세부터 25세까지의 壯丁 597명의 인적사항이 담겨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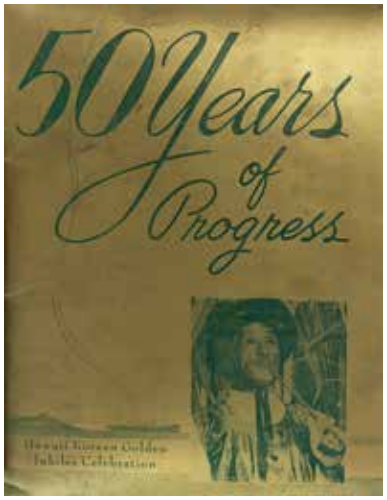
186 /

하와이 이민 50주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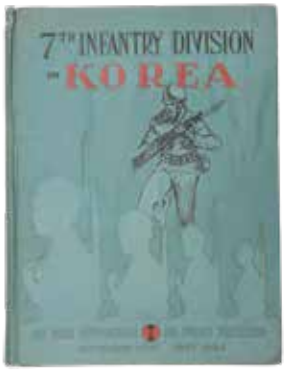
행사 팸플릿

1953년 / 1점
27.5x21.5cm

시작가 ₩ 200,000



1953년 한국전쟁 직후 발행된, 당시 1세대 하와이 한인 이민자들이 미국 시민으로 귀화할 수 있었던 것을 기념하여 열린 하와이 이민 50주년 행사 자료이다.



187 /

7th Infantry Division In Korea
한국전쟁 기록 앨범

1954년 / 1점 / 30.5x23.5cm

시작가 ₩ 150,000

1950년 7월부터 한반도에 병력을 보충하는 임무를 맡았던 미국의 7보병사단의 모습을 기록하였다. 한국전쟁 당시 사진들이 시간순으로 상세한 글과 함께 수록되어 있다.



188 /

반공투쟁사
한국전쟁 사진

1960년 / 1책 / 24x31.5cm

시작가 ₩ 300,000

이승만 대통령의 사진과 함께 한국전쟁의 참혹한 모습들을 흑백사진으로 옮겨 담았으며, 각 사진에 대한 설명이 英語와 함께 併記되어 있다. 후반부는 당시 한국의 산업 발전과정에 대한 사진이 담겨있다.



189 /

한국에 관한 트루만 대통령의 연설
한글 번역 책자

한국전쟁 직전 추정 / 1점 / 18.2x12.5cm

시작가 ₩ 150,000

트루먼 대통령의 한국전쟁 지원에 대한 연설을 한글 번역 책자로 만들어 배포한 자료이다. 당시 부산에 있던 미국공보원에서 미국이 한국전쟁에서 지원한 내용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 배포하였다.



190 /

순은 술통
일본 YAMATO JEWELRY 제작

1950년대 / 1점 / 15x10cm

시작가 ₩ 700,000

술통의 앞면은 광화문과 북한산을 배경으로 빨래하는 여인들의 모습이 새겨져 있다. 뒷면은 38선으로 나뉜 한국 지도가 새겨져 있다. 북한과 남한 지역의 재질을 다르게 표현하였고, 지명이 표시되어 있다.



191 /

조선농업이민모집
전단지

1913년 / 1점 / 40x55cm

시작가 ₩ 500,000

1913년 경성 동양척식(주) 발행, 일본인의 조선이주를 홍보하는 전단지이다. 이주절차, 이주할 조선의 장소 사진, 조선전도에 표기된 이주예정지와 모집 수를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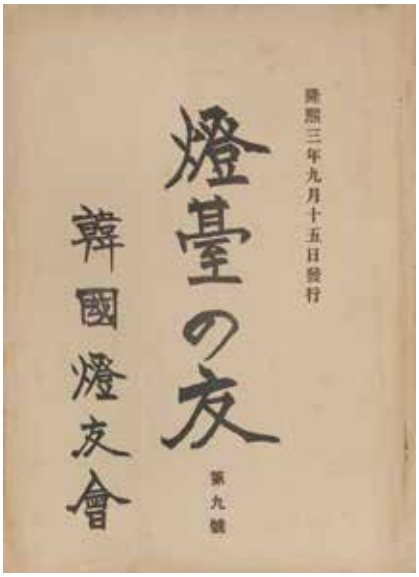
192 /

일대기
사진·스크랩 자료

1950년대 / 2책 / 26.5x19cm

시작가 ₩ 500,000

인천공립상업학교를 거쳐 1917년 조선상업은행에 입사하여 해방 후 한국상업은행 인사부장, 검사부장을 역임한 인물이 자필로 작성한 일대기이다.



193 /

등대의 우
燈臺の友

1909년 / 1책
26x19cm

시작가 ₩ 3,000,000

韓國燈臺局三年報에서는 완도의 당사도 등대를 설치한 사유와 설계개요를 상세히 수록했다. 인천관측소의 조사로 이뤄진 '本年六月韓國氣候概況'의 기사에서는 설명과 韓國 각 도시의 6월 기후표를 수록하였다. 水道의 浮標기사와 한국 각 유관기관과 등대의 서임 사령 등도 확인할 수 있다.

부록으로 위의 당사도 등대 조난 의연금 기증에는 대한제국의 근대적 군함인 光濟號의 승무원들이 14원 42전을 기부했는데 그 인원들 중에는 양무호의 초대함장이였다가 광제호로 옮긴 신순무(愼順晟)의 이름도 보인다. 말미 〈한국등우회〉의 규칙과 목적을 밝혔는데, 본 출품물[燈臺の友]는 등대 근무자를 위한 회지라고 밝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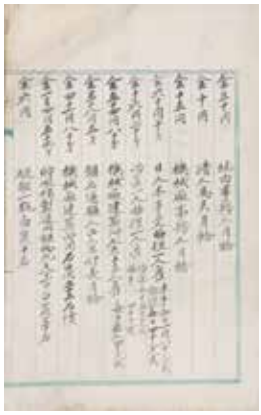
194 /

태평내해 해전의 인천
太平乃海 海戰の仁川

1925년 / 1책 / 18.5x13cm

시작가 ₩ 500,000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과 러시아를 꺾은 일본이 1925년 제1함대(사령관 :岡田啓介)를 이끌고 인천에 입항한 것을 자랑하기 위해 제작한 기념 소책자이다. 구체적인 일본 1함대의 전모를 볼 수 있다.



195 /

금광운영지출액 장부
雲山鑛山

1910년경 / 1책 / 28x20cm

시작가 ₩ 1,000,000

굉내사무인, 淸人, 機械廠事務人 등의 급여, 기계창 건축소용 석탄, 우표와 전신료 서류비, 지주목 운반비, 정주 출장비, 석유, 금괴의 수송 혹은 폭약의 운반 등의 경비를 맡는 日人巡檢의 여비 등 다양한 항목이 적혀 있다.



196 /

중천고양광산갱내도
단면도

1938년 / 1점 / 40x46cm

시작가 ₩ 100,000

충남 청양군 소재 광산의 단면도를 그린 자료이다. 중석 광산이 충남 청양군 소재라는 사실은 1936년 동아일보 7월 2일자에만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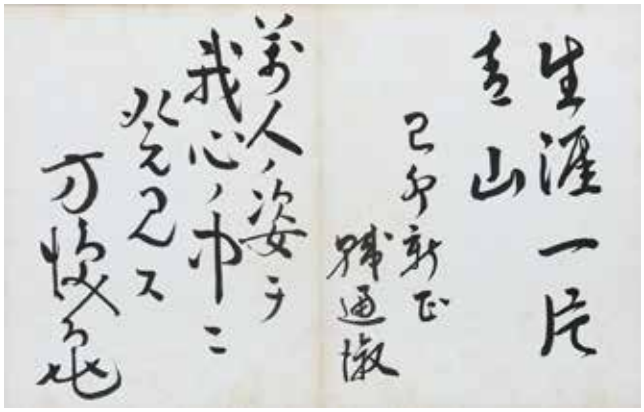
197 /

조선작가동맹중앙위원회
관련 자료 및 스크랩북

1945년 / 2점 / 31x22cm

시작가 ₩ 3,000,000

1945년 12월부터 평양의 朝鮮作家同盟中央委員會에서 日本著作家組合으로 발송한 朝鮮作家同盟中央委員會 관련 자료이다. 필사 기록 등은 일어로 되어 있고, 일본 연합통신 단신보 등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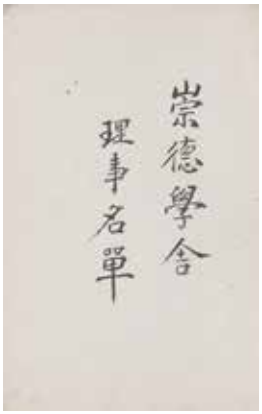
198 /

명심록
한통숙 친필 수록

1939년 / 1점 / 21x17cm

시작가 ₩ 300,000

韓通淑·金麟漢 등이 1939年 新春을 맞이하여 친필로 쓴 글씨가 수록되어 있다. 韓通淑(1906~1971)은 解放 以後 상공부차관·체신부장관 등을 역임한 관료이자 정치인이다.



199 /

숭덕학사 이사명단

해방이후~1950년 / 1책 / 32x22cm

시작가 ₩ 500,000

해방 후 변영태, 이기붕, 최순주, 김태선, 정문흠, 윤치영, 박만원, 신중목, 조병옥, 김지태, 김호식, 한대선, 김종해 등 15명 이상의 숭덕학사 이사진이 직접 자필로 이름을 적은 자료이다.



200 /

이왕가 어경사
기념 은장

1920년 / 1점 / 5.2x3.5cm

시작가 ₩ 700,000

1920년 이왕가 어경사 기념회에서 발행한 기념 은장으로, 조선 특파 유학생중에 우수 졸업자에게 수여하였다. 도안은 이화와 국화 문양, 학 문양으로 장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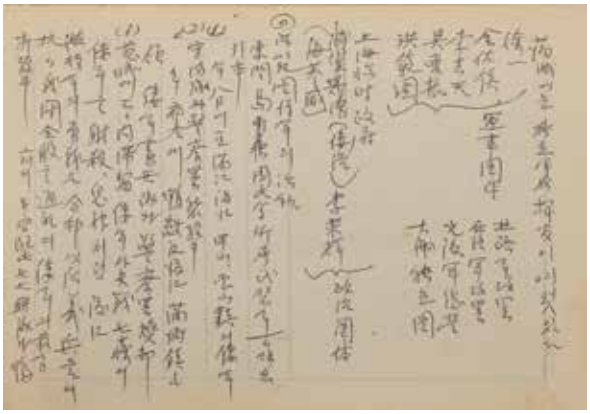
201 /

보국채권·저축 관리보관증

1934년 / 21점 / 24.5x20cm

시작가 ₩ 200,000

[振威砂防事務所日荊事業區 事業進行豫定表 水原郡日荊面第六號區域 振威郡松炭面 工事進行 豫定表] 합철 1책, 1942년 報國, 貯蓄 管理保管證 6점, 1943년 특별 報國債券 1점, 조선총독부체신국 保險料領收帳 12점이다.



202 /

독립군 활약상 및 독립운동가 언설 기록
필사본

1970년대 추정 / 1점(15매) / 21x15cm

시작가 ₩ 100,000

해방 이후 만주와 상해의 독립군 활동 내용과 독립운동가의 언설(言說)을 간략하게 적은 자료이다. 첫 문장은 "滿洲에는 獨立軍 指揮官이 여럿 있다. 徐一·金佐鎭·李靑天·吳東振·洪範圖."로 시작하고 있다.



203 /

순국선열혈투사
순국선열기록

1959년 / 1책 / 20.7x15cm

시작가 ₩ 100,000

1959년 晉州 三一 同志會에서 발행한 것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22인의 순국선열들의 血鬪史를 기록하고 있다. 민영환, 이준, 안중근, 이봉창, 윤봉길, 안창호, 유관순, 김좌진, 강우규, 김상옥, 손병희 등이다.



204 /

고하 송진우 선생 동상 건립 기념
조각품

1983년 / 1점 / 높이 35cm

시작가 ₩ 1,500,000

'古下 宋鎭禹 先生 銅像'은 1983년 9월 23일 서울 어린이대공원 내 세워졌다. 우뚝 솟은 대형 동상과 주변으로는 독립운동 부조상이 자리하고 있다. 당시 동상 건립을 기념하며 유족들이 증정한 것이다.



205 /

배 운전대(ship wheel) 형태의
황동제 태엽식 시계

19세기 / 1점 / 높이 15cm

시작가 ₩ 1,000,000

미국 Ansonia Clock社에서 제작한 황동제 태엽식 시계로, 시계본체가 상하좌우로 움직일 수 있게 제작하였다. 태엽을 감으면 작동한다.

206 /

조선문연습도

朝鮮文練習圖

1927년 / 22매
48.5x48.5cm

시작가 ₩ 2,000,000



207 /

우리나라와 국제연합

1951년 추정 / 1점
23.5x19cm

시작가 ₩ 200,000



208 /

유행가집 및 국어 노트

1930~40년대 / 2점
21x15cm

시작가 ₩ 100,000



209 /

풍천공립심상소학교 설립기금자료

1939년 / 2점
29x20cm 이내

시작가 ₩ 200,000



210 /

진료일기

1950~52년 / 15점
18x26cm 이내

시작가 ₩ 1,000,000



211 /

화양소제고적보존회

定款 및 發起文

1921~31년 / 1점
27x20cm 이내

시작가 ₩ 3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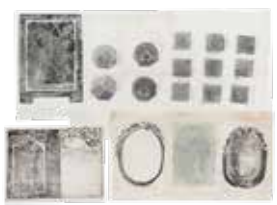
212 /

구봉 이창호

벼루 탁본

101점
41.5x66cm 이내

시작가 ₩ 200,000



213 /

1950년대 달력

1956~57년 / 2점
54.2x39.5cm 이내

시작가 ₩ 300,000





214 /

숭인상업학교
졸업앨범

1936년 / 1점
30x23.5cm

시작가 ₩ 500,000

3.1 독립 만세운동을 지도하였던 고당 조만식(曺晩植)이 교장이며 수많은 애국지사 및 인재를 배출하였던 숭인상업학교 제2회 졸업앨범이다.
고당 조만식 선생을 포함하여 김동순 선생, 김재순 목사, 북한의 지리학자 박태훈 등의 사진이 수록되어 있다.



215 /

서울 안산공립국민학교
졸업앨범

1948년 / 1점
14x21.5cm

시작가 ₩ 100,000

서울 안산공립국민학교 제7회 졸업기념 앨범으로 첫장에 애국가가 3절까지 수록되어있으며, 상단에 태극기 그림을 같이 그려놓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소형 앨범형식으로 제작되었고, 교정 모습과 교사, 졸업생, 체육제전 등의 모습이 실려있다.



216 /

김계곤 사진 스크랩북

일제강점기~1950년대 / 1점(사진 54매)
35x26.5cm

시작가 ₩ 500,000

한글학회 회장을 역임한 한글학자 김계곤의 사진 스크랩북이다. 54매의 사진과 원판 1매 등 총 55점의 사진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판은 전국 고등학교 교원 검정고시 합격 기념사진이다.



217 /

홍익대학교 앨범

앨범

1959년 / 1점 / 15x10cm

시작가 ₩ 500,000

당시 홍익대학교 교수였던 천경자를 비롯하여 시인 박목월, 양주동, 소설가 김광섭, 설초 이종우, 청전 이상범, 수화 김환기, 김경승, 김원, 한묵, 이종무, 운보 김기창, 손응성 등 유명 작가들의 사진이 수록되어 있다.





218 /

운보 김기창 관련 자료

2점 / 123x60cm 이내

시작가 ₩ 5,000,000

다양한 화풍과 그만의 독자적 바보 화풍을 만들어낸 화가 운보 김기창이 수여받은 국민훈장 중 1등급에 해당하는 무궁화장 부장 1점과 '김기창' 자수가 놓인 크리스찬 디올사의 바바리 코트 1점 총 2점이다.

219 /

중광스님 자료

1980년대
46x33cm 이내

시작가 ₩ 4,000,000



① [중광스님 涅槃車票' 친필노트]
② [중광스님 1984년 친필노트]
③ [중광스님 전화번호부 '허튼소리(原始의 三千里)' 친필노트]
④ [중광스님 허튼소리 친필노트]
⑤ [중광스님 1986년 다이어리에 쓴 일기 친필노트]
⑥ 중광스님 [朱月達磨 그림]
⑦ 중광스님 사진 4점 ⑧ 기타 원고지 친필 한 장





220 /

아르렁 SP음반 및 축음기

일제강점기 / 2점
29x37x15cm 이내

시작가 ₩ 5,000,000

1928~29년 제작으로 추정되며, 일본 VICTOR 사 발행, 나운규의 영화 '아리랑'의 주제가로 제작된 金蓮實의 映畫小唄로, 최초로 공개되는 초판본 [아르렁 SP음반] 1점과 [콜럼비아社 축음기] 1점 등 총 2점이다.

① [아르렁 SP음반] 1점 : 명세 49071. 아르렁, 의둔길(暗路)
: 현재 여러 곳에 공개된 '아르렁' SP의 한글철자와 라벨 모양은 모두 같으나, 본 출품물의 라벨의 한글 철자는 위의 것과 차이가 있다. '빅타樂團'을 '비끄(ㅅ+ㄱ)다樂團'으로, '어둔길'을 '의둔길'로 표기했다.

② 콜롬비아 비바-토날 그래포놀라(Viva-Tonal Grafonola) [축음기] 1점





221





222



223



224

221

SP음반

1930년대 / 2점
지름 25cm 이내

시작가 ₩ 300,000

① 1935년 Okeh 레코드 발매, 李蘭影의 '木浦의 눈물'과 '봄 아가씨'가 수록된 [SP음반] 1점
: Okeh 1795-A 당선 지방 신민요 〈木浦의 눈물〉, Okeh 1795-B 유행가 〈봄 아가씨〉

② 1930년대 Okeh 레코드 발매, 국악인 林芳蔚의 '天地萬物歌'와 '陰陽轉倒歌' [SP음반] 1점
: Okeh K519 〈天地萬物歌〉 林芳蔚, Okeh K520 〈陰陽轉倒歌〉 林芳蔚

222

SP음반

1960년대 / 2점
지름 24.7cm

시작가 ₩ 300,000

① 1960년 Century 레코드 발매, 南仁樹의 '芳草는 푸르것만'과 沈蓮玉의 '그래도 좋와요' [SP음반] 1점
: Century 레코드 10042-A 〈芳草는 푸르것만〉, Century 레코드 10042-B 〈그래도 좋와요〉

② 1960년대 Century 레코드 발매, 玄仁의 '望鄕의 노래'와 沈蓮玉의 '누구를 爲하야 鐘은 울리나' [SP음반] 1점
: Century 레코드 10026-A 〈望鄕의 노래〉, Century 레코드 10026-B 〈누구를 爲하야 鐘은 울리나〉

223

SP음반

1950년 / 1점
지름 24.5cm

시작가 ₩ 100,000

1950년 ORIENT RECORD 발매, 우리나라 대표 대중음악가 신세영과 장세정의 '부산야곡'과 '불란서인형'이 수록된 [SP음반] 1점
: ORIENT RECORD 〈釜山夜曲〉, 作詞 孫夕友, 作編曲 朴是春, 노래 申世影
ORIENT RECORD 〈佛蘭西人形〉, 作詞 孫鷺顯, 作曲 李炳主, 編曲 朴是春, 노래 張世貞

224

SP음반

1950년대 / 1점
지름 25cm

시작가 ₩ 150,000

1950년대 Victory 발매, 미도파 오케스트라 演奏의 '꼬집힌 풋사랑'과 '海上交響詩' [SP음반] 1점
: Victory M-1581 輕音樂 〈꼬집힌 풋사랑〉, 演奏 미도파 오-케스트라
Victory M-1582 輕音樂 〈海上交響詩〉, 演奏 미도파 오-케스트라



225



226







227







228

225

SP음반

1959년 / 1점
지름 24.7cm

시작가 ₩ 150,000

1959년 신세기레코드 발매,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崔致守 作詞·金富海 作編曲·安貞愛 노래 '大田부루-스'와 尹一路 노래 '港口의 사랑'을 수록한 [SP음반] 1점
: Shinseki B1243 〈大田부루-스〉, 作詞 崔致守, 作編曲 金富海, 노래 安貞愛
Shinseki B1244 〈港口의 사랑〉, 作詞 崔致守, 作編曲 金富海, 노래 尹一路

226

SP음반

1954년 / 1점
지름 25cm

시작가 ₩ 100,000

1954년 유니버셜 레코드사 발매, 한국전쟁의 아픔이 담긴 남인수의 명곡 '이별의 부산정거장'이 수록된 [SP 음반] 1점

227

SP음반

1950년대 / 3점
지름 24.7cm

시작가 ₩ 500,000

① 1958년 MIDOPA RECORD 발매, 方雲兒와 白雪姬의 '두 男妹' 주제가 '두 男妹'와 '오빠가 그리워요' [SP음반] 1점
② 1958년 MIDOPA RECORD 발매, 인천 출신의 가수 朴慶遠과 白雪姬의 '딸 七兄弟' 주제가 '男性 No.1'과 '보-이후렌드' [SP음반] 1점
③ 1950년대 MIDOPA RECORD 발매, 許敬九 編曲의 '乾杯의 노래'와 '에스파니아카니' [SP음반] 1점

228

SP음반

1950년대 / 3점
지름 24.7cm

시작가 ₩ 500,000

① 1956년 Oasis 레코드 발매, 孫仁鎬 노래 '비나리는 湖南線'과 白一姬 노래의 '아메리카부루-스' [SP음반] 1점
: Oasis 88557 도롯도 〈비나리는 湖南線〉, Oasis 66640 부루-스 〈아메리카부루-스〉
② 1957년 Oasis 레코드 발매, 李在鎬 작·편곡의 '山莊의 女人'와 '울어라 키타-줄아' [SP음반] 1점
: Oasis 88557 輕音樂 〈山莊의 女人〉, Oasis 88558 輕音樂 〈울어라 키타-줄아〉
③ 1950년대 Oasis 레코드 발매, 朴椿石 작·편곡의 '月光의 룸바'와 '女人慕情' [SP음반] 1점
: Oasis 88569 輕音樂 〈月光의 룸바〉, Oasis 88571 輕音樂 〈女人慕情〉





229



230



231



232



233

229 /

SP음반

1950~60년대 / 2점
지름 25cm

시작가 ₩ 300,000

① 1956년 Kingstar 레코드에서 발매한 都美 음반으로, 金文應·林東泉 작사, 羅花郎 작곡의 '思悼世子'와 '비의 탱고'가 수록된 [SP음반] 1점
② 1960년대 Kingstar 레코드 발매, '카추샤의 노래'로 유명한 宋旻道가 부른 '홀로 핀 코스모스'와 南一海의 '落葉의 탱고' [SP음반] 1점

---

230 /

SP음반

일제강점기 / 1점
지름 25cm

시작가 ₩ 300,000

일제강점기 THIHEI 발매, 崔南鏞 노래 '黃金狂 朝鮮, 울니러왓던가' [SP음반] 1점
: THIHEI C8153 崔南鏞. 강석연 노래 〈黃金狂 朝鮮〉, THIHEI C8153 崔南鏞 〈울니러왓던가〉

---

231 /

SP음반

일제강점기 / 1점
지름 25cm

시작가 ₩ 300,000

일제강점기 THIHEI 발매, 具龍布 외 3인이 연주한 유행가 '빗나는조선, 흘으는帆船' [SP음반] 1점
: THIHEI C8107 具龍布 외 3인 합창 〈빗나는조선〉, THIHEI C8107 具龍布 〈흘으는帆船〉

---

232 /

SP음반

1958년 / 1점
지름 25cm

시작가 ₩ 100,000

1958년 RARA레코드 발매, 孫仁鎬 노래의 '갈매기 사랑'과 金貞愛 노래의 '黃昏의 부르스' [SP음반] 1점
: RARA레코드 〈갈매기 사랑〉, 作詞 月見草, 作曲 韓福男, 노래 孫仁鎬
RARA레코드 〈黃昏의 부르스〉, 作詞 月見草, 作曲 韓福男, 노래 金貞愛

---

233 /

SP음반

1953~54년 / 1점
30x30cm

시작가 ₩ 100,000

1953~54년 大韓體操聯盟 제공, 국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제작한 文教部 公認 교육용 [라디오 體操의 노래 12인치 SP음반] 1점 (原케이스 포함)
: EL-1001-A 〈라디오 체조의 노래〉, 독창 이기영 / 합창 사범여성합창단
EL-1001-B 〈라디오 체조〉, 지도 김영일 / 피아노반주 김달성

234 /

진공관 라디오

천우사

1958~60년대 / 1점
30x20x14cm

시작가 ₩ 2,500,000



라디오 부품을 수입하고 이후 조립 생산·수출한 천우사에서 생산된 진공관 라디오다.
1957~58년에는 내부 부품만 수입하고, 나무 케이스와 유리면판은 제작·조립하고 생산하여"chunu"라는 자사 영문 명패를 붙인 수신기를 제작하여 판매하였다.
본 출품물 앞면에 CHUNU라고 쓰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삼양 라디오와 함께 1959년 생산된 금성사 라디오보다 먼저 국산 라디오 수신기를 만든 회사라고 할 수 있다.



235 /

김동진 친필 작곡 자료

203점 / 30.5x28.5cm 이내

시작가 ₩ 3,000,000

불후의 명곡 가고파의 작곡가 김동진의 친필 자료 [김동진 친필 작곡자료] 약 203매 일괄이다. 인쇄본도 있으나, 많은 분량이 가사의 옆에 악보를 그려 즉석에서 창작했음을 알 수 있다.



236 /

교사용 신동요가곡집

김순애

1958년 / 1책 / 30.5x22cm

시작가 ₩ 100,000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작곡가인 김순애의 교사용 신동요가곡집이다. 제창곡, 합창곡으로 나누어 총 30곡이 수록되었다.



237 /

춘향전 대본

국립중앙극장 제작

1책
26x19cm

시작가 ₩ 3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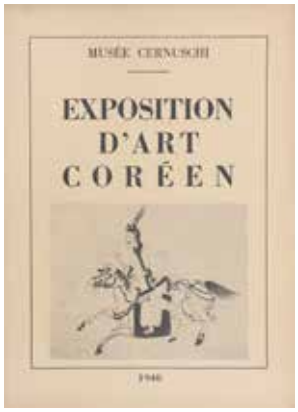
238 /

玄海の灘

안내 포스터

1950년대 / 1점
54x38cm

시작가 ₩ 2,000,000



239 /

한국미술전

홍보팜플릿

1946년 / 1책
19x14cm

시작가 ₩ 200,000



240 /

포스터

戰雄 맥아더

1977년 / 1점
107x71cm

시작가 ₩ 800,000



241 /

YMCA 관련 자료

창립 50주년기념 대음악회

1964년 / 6점
77.5x53cm 이내

시작가 ₩ 200,000



242 /

모자상 백환 지폐 2번

1962년 / 1점
6.6x15cm

시작가 ₩ 800,000



243 /

한글 놀이판

1점
지름 17cm

시작가 ₩ 5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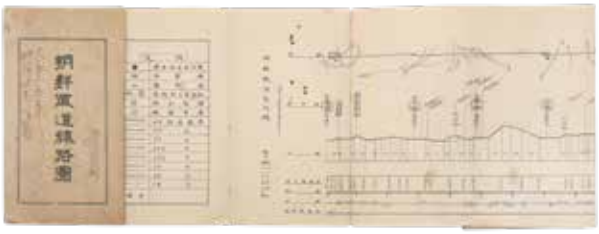


244 /

제국복제요람

1911년 / 1점
78x108cm

시작가 ₩ 200,000



245 /

조선철도노선도

1926년 / 1점 / 18.5x1400cm

시작가 ₩ 3,000,000

앞表紙 右側 中段에는 “淸州出張所”라고 새겨진 圖章이, 左側 上段에는 “大正15年 4月 29日 著.”라는 墨書 記錄이, 下段에는 “受付. 15·4·29. 朝鮮 鐵道株式會社 淸州出張所.”라고 새겨져 있다.



246 /

동학 및 보천교 관련 자료

동학경전·동학문서·부적판 등

일제강점기 / 31점 / 92x56cm 이내

시작가 ₩ 5,000,000

동학경전·동학문서·부적판·보관함·궁을기·궁을부채 등이 총망라된 [동학 및 보천교 관련 자료] 31점 일괄이다.



247 /

역상

주역 연구 자료

1958년 / 1책 / 27.5x20cm

시작가 ₩ 500,000

1958년경 ‘정준’이라는 분이 평생 연구한 〈주역〉의 오의를 밝혀놓은 채색 필사 원고본 [역상] 전1책이다.



248 /

매일신문

1898년 / 3점 / 27x39cm

시작가 ₩ 500,000

① 1898년(光武2) 9월 27일 발행 [매일신문] 1점(제128호)
② 1898년(光武2) 9월 30일 발행 [매일신문] 1점(제131호)
③ 1898년(光武2) 11월 11일 발행 [매일신문] 1점(제166호)



249 /

시사총보

폐간 직전호

1899년 / 2점(98호, 99호)
35x26cm

시작가 ₩ 400,000



250 /

L'ILLUSTRATION

프랑스 주간지

1867년 1월 26일 / 1점
39x26cm

시작가 ₩ 500,000



251 /

Le Monde Illustre

프랑스 주간지

1867년 3월 16일 / 1점
37x27cm

시작가 ₩ 100,000



252 /

Le Journal illustre

프랑스 주간지

1894년 9월 2일 / 1점
37x27.2cm

시작가 ₩ 100,000



253 /

대판매일신문

안중근 모습 수록

1909년 11월 10일 / 1점
55x40cm

시작가 ₩ 1,000,000



254 /

동아일보

제3공화국

1963년 / 116점 일괄 2철
54x37cm

시작가 ₩ 800,000



255 /

박정희 대통령 관련 자료

1960~70년대 / 10점
54.5x38.5cm 이내

시작가 ₩ 1,000,000



256 /

전두환 관련 자료

1980년대 / 26점
54x39cm 이내

시작가 ₩ 1,000,000

257 /

앨범
관광 관련 일괄

1950~60년대 / 179점
26.5x37cm

시작가 ₩ 5,000,000



한국 관광산업의 태동기라고 불리던 1950~60년대의 관광지도, 원본 사진, 우표, 화폐, 신문, 여행 가이드북, 엽서, 당시 벼 실체 등 한국의 당시 각종 자료 179점을 모아놓은 [관광 관련 앨범]이다.

1959년 한국 영문사에서 영문으로 발행한 [관광 지도] 2점, 영문 태극기 설명과 천으로 제작된 [태극기] 2점, 1959년에 지어져 현재 철폐된 남산의 '우남정' 사진 및 남산 관련 [원본 사진] 17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58 /

기념 모형
국내 최초의 영구임대주택

1990년 /1점
49.5x58.5cm

시작가 ₩ 6,000,000

1990년 11월 6일 준공된, 대한주택공사(현 LH)에서 서울 번동에 건설한 국내 최초의 영구임대주택(아파트) 기념 모형이다.

당시 노태우 정부는 영구임대주택 25만 가구 건설계획을 발표하면서 1980년대 후반부터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시작했다. 현재 서울 시내에 있는 영구임대단지는 약 2만 3,628만 가구이며, 이 가운데 가장 먼저 공급된 것이 바로 본 출품물 모형물의 주인공 '번동주공아파트'이다.



259 /

기념 조각품

제5회 전국기능경기대회

1970년 / 1점

24.5x26.5x41.5cm

시작가 ₩ 1,000,000

전국기능경기대회 제5회를 기념하며 제작한 것으로, 높이 약 41cm에 이르는 대형 목제 조각품이다.

대회의 취지에 맞게 나무 기둥에 기댄채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는 소녀의 모습을 조각해 놓았다. 하단에는 '제5회 전국기능경기대회 1970'이라는 문구가 보인다.



260 /

황동제 버클

이화문양

구한말 / 1점 / 4.5x7.5cm

시작가 ₩ 500,000

구한말 군인의 복식에서 칼을 패용할 때 편의를 위해 착용하였던 허리띠인 도대의 버클로 추정되는 梨花紋樣 黃銅製 버클이다. 버클의 정가운데 대한제국을 상징하는 梨花紋樣이 조각되어 있다.



261 /

사인볼

LA 올림픽 대표팀

1984년 / 1점 / 지름 7cm

시작가 ₩ 100,000

한국대표팀이 처음 올림픽에 출전하였던 LA 올림픽 대표팀 사인볼이다. 당시 투수였던 윤학길, 김용수와 외야수였던 이종두 등의 사인이 있다.

262 /

한국통신약도

1908년 / 1점
67x41cm

시작가 ₩ 500,000



통감부통신관리국, 우편국, 우편전신취급소, 전신취급소, 巡邏船내우편소, 우편계립소, 우편교환소, 우편受渡소, 육로/수로/철도 우편선로, 전신선, 시외전화선, 해저전신선 등 당대의 통신관련 정보를 한국전도에 모두 담았다.



263 /

조선교통전도

1910년 / 1점 / 108x78cm

시작가 ₩ 300,000

대판매일신문사 발행, 조선 항구의 시가지를 표기한 분도·철도·도로·해로 등 조선의 교통망을 상세히 수록한 조선교통전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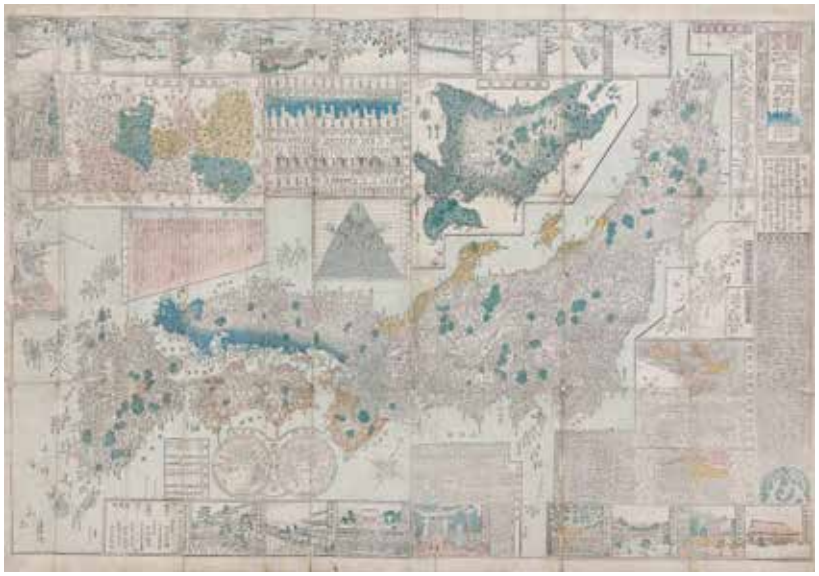
264 /

조선신지도

1910년 / 1점 / 61x44cm

시작가 ₩ 200,000

일제강점기에 발행된 지도로는 드물게 각 고을 간의 이동 경로 및 역참 및 여관 등이 상세하게 표시되어 있다. 조선시대 관리 및 백성들이 각 고을을 순방할 때 그 어떤 행로를 통해서 이동했는지 보여준다.



265 /

대일본명세전도

陵公島, 竹島, 鹿島 조선 영토 표기

1886년 / 1점
50x71.5cm

시작가 ₩ 5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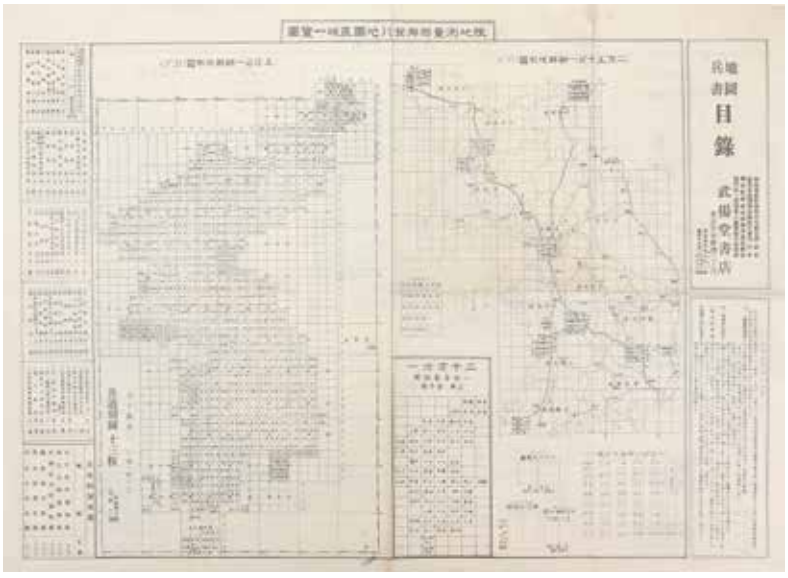
1886년 일본에서 제작된,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의 영토에 포함시키고 있는 대일본명세전도이다. 좌측 상단 〈朝鮮國之地圖〉에서 울릉도(陵公島)와 竹島(獨島), 鹿島가 조선 영토로 표기되어 있다.

266 /

육지측량부어발행지도 일람표

1930년대 / 1점
39x53.5cm

시작가 ₩ 400,000



1930년대 육지측량부에서 발행, 일제가 철저하게 식민지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용도로 제작한 [육지측량부어발행지도일람표](뒷면 만주국지부)이다. 일본에서 육도(陸圖)에 관한한 가장 높은 정확성과 공신력을 인정받던 참모본부 직속 陸地測量部에서 발행한 관찬(官撰) 지도이다. 관찬 지도라는 중요성도 있지만 일본의 지도 제작과 측량에 있어서 가장 공신력이 있던 陸地測量部가 제작한 지도라는 점에서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267 /

장중 조선전도

1939년 / 1책 / 14.5x8cm

시작가 ₩ 150,000

1939년 伊林書店에서 휴대용 수진본으로 발행된 [掌中 朝鮮全圖]로, 조선전도 1점과 조선 팔도를 각 1개의 지도로 8점 첨부해 총 9점의 지도로 구성되어있다.



268 /

최신만국형세지장전도
간도 우리나라 영토 표기

1906년 / 1책 / 38x27cm

시작가 ₩ 200,000

1903년 초판이 발행되었으며, 판을 거듭할 때마다 증보하여 본 출품물은 1906년 제5간 증보판이다. 두만강 너머의 間島가 우리나라 영토로 표시되어 있다.

269 /

세계신만화조감도

1924년 / 1점
110x78.5cm

시작가 ₩ 400,000



1924년 국제정보사에서 세계 여러나라의 특징을 그림으로 표현하여 발행한 [세계신만화조감도]이다.

주요 표현방식은 지도 위에 지리적 위치, 각지 특산품, 종교, 문화 등을 그림으로 묘사하여 전체적인 이해를 돕게 만든 지도이며, 조선에는 금강산과 경성의 삽화가 그려져 있다. 지도에는 철도와 항로, 산, 세계 시간 등이 표현되어 있다.



270 /

서양 고지도
'MER DE COREE (조선해)' 표기

1762년 / 1점
28x39cm

시작가 ₩ 450,000

만주지역에 대한 정보와 함께 동해가 'MER DE COREE (조선해)'로 표기된 프랑스 로베르 드 보공디의 서양 고지도이다.

제목 'Siberie ou Russie Asiatique, Tartarie Chinoise, pays des Eluts et isles du Japon' 의 서양 고지도는 특히 러시아와 조선 사이의 만주지역에 대한 정보와 함께 동해를 'MER DE COREE (조선해)'로 표기 했다. 지도의 조선 영토에는 'Pinyang (평양)', 'king kitao(경기도)'가 표시되어 있다.

271 /

서양지도
동해 표기

1700년대 / 1점
61.5x42cm

시작가 ₩ 8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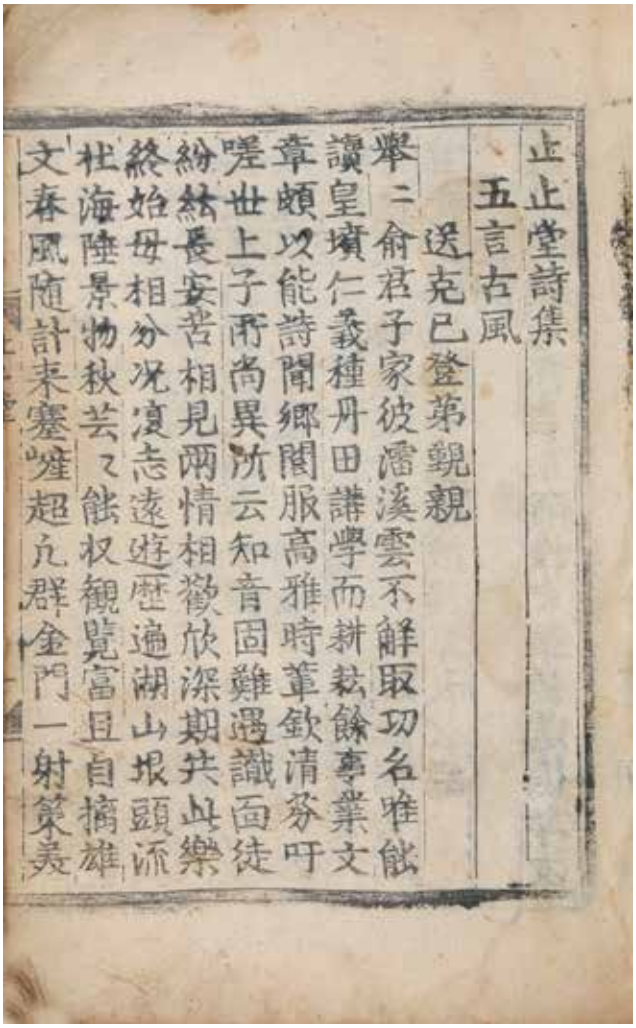


1700년대 제작한 인도·중국 지도에 동해를 'Eastern Sea'로 표기한 서양지도이다.
영국 황실의 지리학자이자 지도 제작자인 존 세넥스가 제작한 인도·중국 지도로서,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바다라는 의미로 보이는 'EASTERN SEA'라고 동해를 표기하고 있다.

제257회 삶의흔적

PART.03

전적


止止堂詩集
五言古風
送克己登第覲親
擧二俞君子家彼潘溪雲不解取功名唯能
讀皇墳仁義種丹田講學而耕耘餘事業文
章頗以能詩聞鄉閭服高雅時輩欽清芬吁
嗟世上子所尚異所云知音固難遇識面徒
紛紜長安苦相見兩情相徵欣深期共此樂
終始毋相分況復志遠遊歷過湖山堰頭添
杜海陸景物秋芸芸能收觀覽富且自摛雄
文春風隨計來蹇蹉超凡群金門一射策美

272 /

지지당시집

止止堂詩集

1501년 / 목판본 / 1책 단
27.5x18cm

시작가 ₩ 25,000,000

조선 전기 문신 김맹성(金孟性, 1437~1487)의 시문집이다. 저자는 성종 연간에 벼슬하여 이조 정랑 등을 지냈고, 金宗直, 兪好仁, 曺偉, 李昌臣 등과 교유하였으며, 詩名이 높았던 인물이다.

저자의 사후에 친구였던 克庵 李昌臣이 詩 300여 수를 수습 편차하여, 저자의 姪壻인 경상도 관찰사 金應箕에게 주어 간행을 맡겼다. 김응기는 이를 曺偉에게 校正을 받아 永川 郡守 李逵에게 주어 1501년에 木板으로 간행하였다. 온전한 초간본은 현재 고려대학교와 국립중앙박물관 본이 확인되며 국립중앙도서관의 판본은 훼손이 심하다.

권두에 조위가 지은 서문이 있다. 시 245제가 시체별(詩體別)로 실려 있고, 그 내용은 절기의 변화나 풍광을 읊은 것과 차운시, 송별시 등이며 만시(輓詩)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특히, 유호인(兪好仁), 표연말(表沿沫), 서거정(徐居正), 양희지(楊熙之) 등 당대의 문인들이 지은 시에 차운한 작품들이 많다. 권미에 1501년에 김응기(金應箕)가 지은 발문(跋文)이 있다.



273 /

태재선생음고시집

泰齋先生吟藁詩集

1450년 / 목판본 / 1책 영본
25x16cm

시작가 ₩ 13,000,000

[泰齋先生吟藁詩集]의 完本은 全5卷 全2冊으로 구성되어 있다.

권두에는 1450年 陰曆 1月에 承訓郎 徐居正(1420 ~ 1488)이 撰한 序文이 실려 있는데, 序文 始作 部分이 包含된 本文 1枚가 결락되어 있다. 그리고 本文 끝 부분에도 낙장이 있다.

本文에는 漢詩類의 文章이 수록되어 있다.



274 /

절작통편
節酌通編

1686년 / 목판본 / 6책 영본 / 32x21cm

시작가 ₩ 1,800,000

完本은 전36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경매에 출품된 [節酌通編]의 卷次 구성은 다음과 같다. 本集 卷23~26·卷27~29·卷30~31·卷34~36·補遺 卷1~5·補遺 卷6~7 等 6冊 零本이다.



275 /

시경언해
詩經諺解

조선시대 / 무신자 금속활자본 / 2책 영본 / 34.5x21cm

시작가 ₩ 1,000,000

完本은 全20卷 全10冊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경매에 출품된 [詩經諺解] 2冊 零本의 卷次는 卷1~2·卷4~7 等으로 구성되어 있다. 卷1~2 1冊의 卷頭 右側 下段에는 '茂松'·'尹志聖'·'希叔'이라고 새겨진 藏書印이 날인되어 있다.



276 /

맹자대문
孟子大文

조선시대 / 무신자 금속활자본 / 1책 영본 / 35x23cm

시작가 ₩ 700,000

完本은 상·하권 전2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卷頭에는 "雲石·楊山人·趙章熙王夫印"이라고 새겨진 藏書印이 순서대로 날인되어 있다. [孟子大文] 卷下 末卷 1冊에는 「萬章」·「告子」·「盡心」篇이 실려 있다.



277 /

오자근사록
五子近思錄

조선시대 / 운각인서체자 금속활자본 / 3책 영본 / 28x18cm

시작가 ₩ 900,000

完本은 全14卷 全4冊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경매에 출품된 [五子近思錄]의 卷次 구성은 다음과 같다. 卷1~2·卷6~9·卷10~14 等 3冊 零本이다. 6~9·卷10~14 2冊의 卷頭 下段에는 鄕校印이 날인되어 있다.



278 /

백사선생집
白沙先生集

1635년 / 목판본 / 10책 완질 / 31x20.5cm

시작가 ₩ 1,800,000

初刊本은 1629년에 간행하였다. 본 경매에 출품된 [白沙先生集] 重刊本은 本集 卷1·卷2·卷3~4·卷5·卷6·別集 卷1~2·卷3·卷4·附錄卷·補遺卷 等 全12卷 全10冊으로 구성되어 있다.



279 /

간이문집
簡易文集

1643년 / 목판본 / 6책 영본 / 34x22cm

시작가 ₩ 1,300,000

完本은 전9권 전9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경매에 출품된 [簡易文集]의 卷次 구성은 卷1·卷3·卷4·卷5·卷6·卷7 等 6冊 零本이다. 권두에는 張維(1587~1638)가 撰한 序文이 실려 있다.



280 /

문헌공실기
文獻公實紀

1635년 / 목판본 / 1책 단 / 29.7x20.9cm

시작가 ₩ 300,000

조선 중기의 문신이자 학자인 정여창(鄭汝昌, 1450~1504)의 문집이다. 책 말미에 1635년 옥산후인(玉山後人) 장현광(張顯光)의 跋文이 수록되어 있다.



281 /

몽와집
夢窩集

1758년 / 교서관인서체자 금속활자본 / 1책 영본 / 30x19cm

시작가 ₩ 200,000

完本은 全10卷으로 구성되어 있다. 卷9~10 末卷 1冊 零本에는 上疏文과 복제(服制)·과거(科擧) 등에 대해 건의한 내용을 수록한 21수의 의(議)가 실려 있다. 마지막 張에는 "養素堂印"이라고 새겨진 藏書印이 날인되어 있다.



282 /

추계선생실기

楸溪先生實記

1849년 / 목활자본 / 2책 완질 / 34x22.5cm

시작가 ₩ 200,000

권두에는 洪直弼(1776~1852)과 洪敬謨(1774~1851)가 1847年에 各各 撰한 序文이 順序대로 실려 있고, 그 뒤에는 李若愚·李景在·奇正鎭이 各各 撰한 跋文이 순서대로 수록되어 있다.



283 /

반암집

半巖集

1878년 / 목판본 / 2책 완질 / 30.5x20cm

시작가 ₩ 200,000

各 冊의 앞표지 내지에는 琴佑烈이 冊을 入手한 經緯를 親筆로 墨書한 文章이 있다. 辛巳年 가을에 龍洞刊所에 있는 金季極이 琴佑烈 自身에게 보내준 冊이라고 하였다.



284 /

석문집

石門集

조선시대 / 목판본 / 1책 영본 / 31x18.5cm

시작가 ₩ 200,000

完本은 전8권 전4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卷7의 目錄 첫 張 右側 下段에는 "韓山李氏 羲淵 士靖"이라고 새겨진 藏書印이 날인되어 있으며, 卷8의 目錄 첫 張 右側 下段에는 "文·之記"라고 새겨진 藏書印이 날인되어 있다.



285 /

순암집

醇庵集

조선시대 / 정유자 금속활자본 / 1책 영본 / 35x22cm

시작가 ₩ 700,000

完本은 全10卷 全5冊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808年에 初刊되었다. 卷5~6 1冊의 卷頭에는 目錄이 실려 있는데, 各 篇目 下段에는 文集 木版의 張次 番號가 墨書되어 있다.



286 /

불설장수멸죄호제동자다라니경

佛說長壽滅罪護諸童子陁羅尼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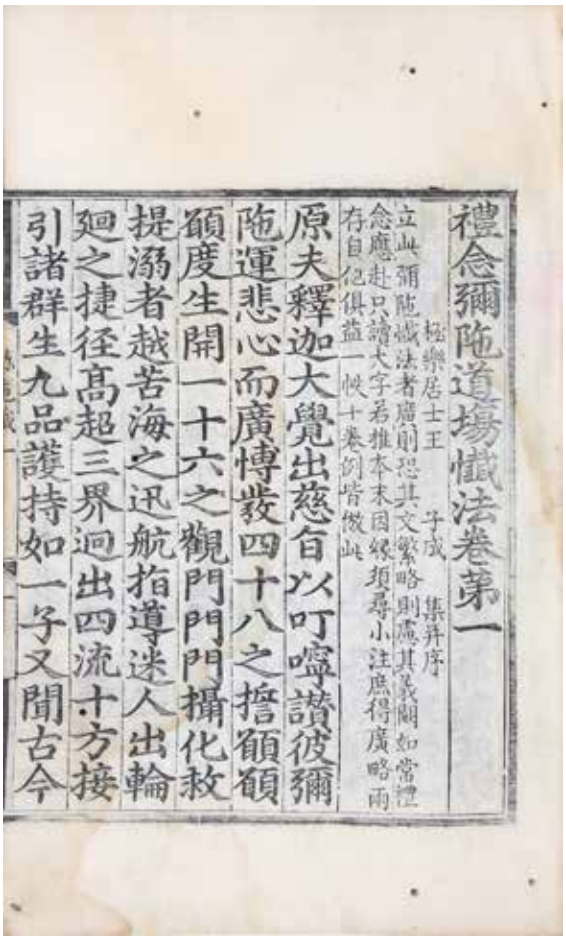
1610년 / 목판본 / 1책 단
29.5x19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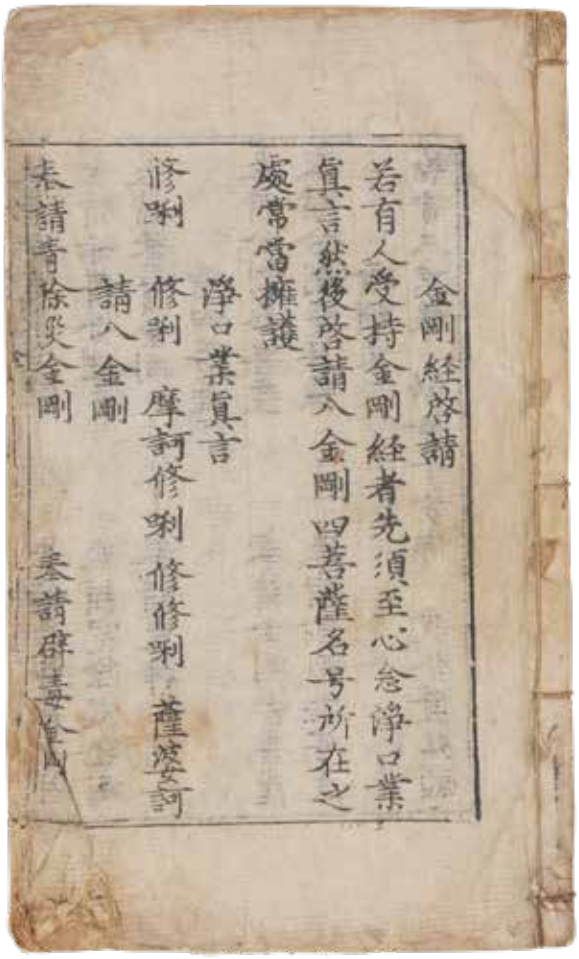
시작가 ₩ 12,000,000

[佛說長壽滅罪護諸童子陁羅尼經]은 불력(佛力)이나 수행을 통해 죄악을 없애고, 장수멸죄하는 방법과 악귀들로부터 어린아이들을 보호하는 법에 대한 가르침을 적은 경전이다.

經名과는 달리 다라니 부분은 일부이고, 대부분은 교훈적인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보통 『장수경(長壽經)』으로 약칭한다.

末尾에 施主秩과 刊記가 있으며, 1610年 三角山 重興寺 刊板이다.


禮念彌陁道場懺法卷第一


金剛經啓請
若有人受持金剛經者先須至心念淨口業
眞言然後啓請入金剛四菩薩名号所在之
處常當擁護
淨口業眞言
修唎 修唎 摩訶修唎 修修唎 薩婆訶
請八金剛
奉請辟毒金剛

287 / 예념미타도량참법
禮念彌陁道場懺法

조선시대 / 목판본 / 1책 영본
35x23.5cm

시작가 ₩ 2,000,000

본 경매에 출품된 [禮念彌陁道場懺法]은 1503年에 刊行된 版本의 後刷本으로 보인다. 그 理由는 卷頭에 奉正大夫 趙秉文의 彌陁懺讚·日本國 沙門 至道의 手書刻 序文이 실려 있기 때문이다.

이 彌陁懺讚과 手書刻 序文 文章이 收錄된 1503年 刊行 版本(跋: 弘治十六年癸亥(燕山君9, 1503)暮春上澣直指寺老衲燈谷學祖七十二歲書于東廂)이 현재 미국 버클리대학교 동아시아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288 / 삼경합부
三經合部

1490년경 / 목판본 / 1책 단
27.5x16.5cm

시작가 ₩ 4,000,000

[三經合部]는, 六經合部 中 三經의 殘本이다. 瑞興地 慈悲嶺寺에서 開板된 同一한 版本의 冊이 현재 미국 버클리대학교 동아시아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金剛經》·《大方廣佛華嚴經入不思議解脫境界普賢行願品》·《大佛頂首楞嚴神呪》가 수록되어 있다.
《金剛經》 本文 末尾에 "黃海道 瑞興地 慈悲嶺寺 開板"이라는 刊記와 施主秩이 있다. 施主秩 名單에 承議郎 崔孝岸의 姓名이 있다. 『世祖實錄』에 근거하면, 崔孝岸은 1464년(세조10) 7월 16일에 전의감의 종9품 관원인 '典醫助敎'라는 직책을 맡고 있었다. 그런데 이 책을 간행할 때는 품계가 정6품의 승의랑이었다. 그가 승급한 기간을 고려한다면 1464년 이후의 15세기 후기에 本書가 刊行되었음을 알 수 있다.



289 /

평택임씨 자료

平澤林氏

조선시대 / 18점 / 26x22cm 이내

시작가 ₩ 1,500,000

1897年 刊行, 木活字本『平澤林氏族譜』全5卷 全6冊 完帙, 1728年 刊行, 戊申字 金屬活字本『丙午式年司馬榜目』全1冊 單, 1859年 刊行, 木活字本『平澤林氏家乘』全1冊 單, 筆寫本『平澤林氏世譜』1冊, 通文 4枚 등이다.



290 /

안동향손사적통록

安東鄉孫事蹟通錄

1824년 / 목판본 / 1책 단 / 32x22cm

시작가 ₩ 300,000

모두 66명의 전기를 수록하면서 행적을 강조하였다. 조선 후기 안동 향리의 신분 상승을 위한 의도와 사회적 진출이라는 포석을 목적으로 간행되었다. 卷頭와 卷末에는 "金聲運藏"이라고 새겨진 藏書印이 날인되어 있다.



291 /

밀양박씨세보

密陽朴氏世譜

1899년경 / 목활자본 / 8책 완질 / 34x22cm 이내

시작가 ₩ 350,000

1899年頃 刊行『密陽朴氏世譜』上中下卷 全3冊에는 訥齋公派의 世系가 실려 있다. 1925年 慶北 善山郡 明鏡堂 發行 木活字本『密陽朴氏世譜』全5卷 全5冊의 卷頭에는 中祖 朴元 先生을 一世로 하는 家系가 실려 있다.



292 /

선원계보기략

璿源系譜紀略

1795년 / 목판본 / 7책 영본 / 35x24cm

시작가 ₩ 2,500,000

본 경매에 출품된 [璿源系譜紀略]은 1795년에 중간한 판본의 계통이다. 이 계통은 그 뒤부터 1931년 이왕직 增修 판본까지 유지되었다.



293 /

족보 관련 수진본

族譜 關聯 袖珍本

조선시대 / 15점 / 23x9.5cm 이내

시작가 ₩ 200,000

筆寫本『漢陽趙氏家系』,『漢陽趙氏家乘』,『晉州柳氏家乘』,『全州柳氏世譜』,『晉州柳氏世系』,『晉州柳氏』,『密陽朴氏世譜』,『全州崔氏 按廉使派世系家牒』 두루마리 1점,『仁同張氏家牒』, 木版本『喪禮抄』 全1冊 單 등이다.



294 /

우율종유록

牛栗從遊錄

조선시대 / 필사본 / 1책 단 / 34x23cm

시작가 ₩ 300,000

韓山李氏를 빛낸 역대 인물의 碑銘을 正書해 놓은 稿本 성격의 필사본이다. 卷頭 右側 下段에는 "韓山 李景在 季行 私印"이라고 새겨진 藏書印이 날인되어 있다.



295 /

등룡

登龍

조선시대 / 필사본 / 1책 단 / 30x22.5cm

시작가 ₩ 200,000

李明漢·趙希逸·尹善道 等이 올린 對策文을 正書한 필사본이다. 科擧 試驗을 對備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이다.



296 /

염회

濂會

1600년대 / 필사본 / 1책 단 / 32x22cm

시작가 ₩ 200,000

朴世堂·李廷夔·朴紳·權瑎 等의 合格 試券을 正書하였다. 製述科目은 賦였고, 本文은 行·草書體로 正書되었다.

297 /

오륜행실도

五倫行實圖

조선시대 / 목판본 / 1책 영본
31.5x21cm

시작가 ₩ 800,000



完本은 全5卷 全4冊으로 구성되어 있다.
「五倫行實圖序」·「三綱行實圖原序」·「奉教校閱 奉教監印」·「目錄」等의 順序이다.

298 /

소학언해

小學諺解

조선시대 / 무신자 금속활자본
3책 영본 / 32.5x22cm

시작가 ₩ 500,000



完本은 全6卷으로 구성되어 있다.
卷1은 立教篇이고, 卷2는 明倫篇이며, 卷6은 善行篇이다.

299 /

홍길동전

조선시대 / 필사본 / 1책 단
32.5x21cm

시작가 ₩ 1,000,000



조선 중기에 허균이 지었다고 전하는 고전소설로서,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소설이다. 한글 宮體로써 精誠스럽게 筆寫를 하였다.



300 /

내칙편
內則篇

조선 말기 / 필사본 / 1책 단
27.5x26cm

시작가 ₩ 300,000

『禮記』의 「內則篇」을 達筆의 한글 宮體로써 精誠스럽게 筆寫하여 놓았다. 朝鮮 末期에 쓰인 것으로 보인다.



301 /

당해가
唐解歌

조선시대 / 필사본 / 1책 단
31.5x20.5cm

시작가 ₩ 300,000

앞表紙 右側 上段에는 "丁卯年 陰曆 2月에 改裝하였다."라는 墨書가 있다. 본문은 당·명 황제를 위로한다는 내용부터 시작하고 있다.



302 /

한글 필사본

조선시대 / 필사본 / 1책 단
29.5x24cm

시작가 ₩ 200,000

허씨 집안에서 주고받은 편지를 후손이 필사한 자료이다. '허승지댁' 등 편지 말미에 허씨가 언급되는 것으로 보아 허씨 집안에서 정리한 것이다. 연대는 조선 후기에서 일제강점기 사이로 보인다.

303 /

점술서

조선시대 / 필사본 / 1책
18x10.5cm

시작가 ₩ 100,000



'奇道 天地大空旨 天尊曰' 문구로 시작하여 八卦法 등을 한문으로 적고, 뒷면의 한글 병용 필사된 부분은 점의 설명, 괘 제목, 본문의 음역 등을 적어 놓았다.

304 /

의서 관련 필사본
醫書 關聯 筆寫本

조선시대 / 필사본 / 10책
31x21cm 이내

시작가 ₩ 1,000,000





한글 醫書『寶藏』, 한글 歌辭『時行雜歌』, 한글 醫書『廣濟』, 醫書『正射踏印』, 『藥性歌』,『傷寒部』, 大形 크기의 醫書 筆寫本『藥性歌』, 袖珍本『寶鑑』 등이다.

305 /

의서 관련 필사본
醫書 關聯 筆寫本

조선시대 / 필사본 / 5책
20.5x28cm

시작가 ₩ 300,000



① 『醫門』 卷1~5 全3冊 完帙
② 『醫學心悟』 卷5 末卷 1冊
③ 『略選』 1冊



306 /

만오록
晩晤錄

조선시대 / 필사본 / 1책 단
27x19.5cm

시작가 ₩ 500,000

知守齋 兪拓基(1691~1767)의 後孫 兪景煥(1807~1851)이 親筆로 正書한 日記로 보인다. 방대한 인적 교류를 확인할 수 있는 당시 시대상을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307 /

유람목록
類覽目錄

조선시대 / 필사본 / 2책 완질
24x20.5cm

시작가 ₩ 200,000

글쓰기 套式이 正書된 朝鮮時代 寫本이다. 邦慶·月令·入閣·陞擢 等 39가지의 隨時問答套式이 正書되어 있다.



308 /

구운몽
九雲夢

조선후기 / 필사본 / 1책 단
30x20cm

시작가 ₩ 300,000

앞表紙 左側 下段에는 "承奎"라고 墨書되어 있다. 達筆의 楷書體로써 精誠스럽게 正書하여 놓았다.



309 /

예의유집
禮疑類輯

조선시대 / 후기교서관인서체자 금속활자본 / 15책 영본 / 33x20cm

시작가 ₩ 5,000,000

본 경매에 출품된 [禮疑類輯]의 卷次 구성은 다음과 같다. 卷1~2·卷3~4·卷5~6·卷7~8·卷9~10·卷11~12·卷13~14·卷15~16·卷17~18·卷19~20·卷21~22·卷23~24·附錄 上下卷 等 15冊이다.



310 /

성학집요
聖學輯要

조선시대 / 목판본 / 4책 완질 / 33.5x22cm

시작가 ₩ 2,000,000

본 경매에 출품된 [聖學輯要]는 上下內向黑魚尾의 書誌的 特徵을 갖춘 古版本으로서, 卷次는 卷1~2上·卷2下~3·卷4~5·卷6~7 等으로 구성되어 있다. 各 冊에는 "李萬誠"·"樂夫"라고 새겨진 藏書印이 순서대로 날인되어 있다.



311 /

송명신언행록
宋名臣言行錄

조선시대 / 교서관인서체자본 / 4책 영본 / 30.5x19cm

시작가 ₩ 500,000

[宋名臣言行錄]은 남송(南宋)의 주자(朱子)와 그의 외손자(外孫子)인 이유무(李幼武)에 의해 편찬된 책이다. 본 경매에 출품된 [宋名臣言行錄] 4冊 零本은 明나라 後學 張采가 評閱하고 宋學顯·馬嘉植이 參正한 冊이다.



312 /

송명신언행록별집
宋名臣言行錄別集

조선시대 / 무신자 금속활자본 / 1책 영본 / 32.5x21cm

시작가 ₩ 500,000

[宋名臣言行錄別集]은 李幼武이 이종 연간(1225~1264)에 저술한 책으로서, 완본은 上·下 각 전13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本文은 忠定公 張燾의 言行錄부터 시작을 하고 있다.



313 /

학봉선생문집
鶴峯先生文集

1649~1782년 / 목판본 / 5책 영본 / 33x21cm

시작가 ₩ 1,000,000

完本은 本集 全7卷·續集 全5卷·附錄 全4卷 等 全16卷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경매에 출품된 [鶴峯先生文集] 5冊 零本의 卷次 구성은 다음과 같다. 本集 卷1~2·本集 卷2~3·本集 卷3~5·續集 卷2~3·續集 卷4~5이다.



314 /

점필재집
佔畢齋集

1649년 / 목판본 / 5책 영본 / 33.5x22.5cm

시작가 ₩ 1,300,000

본 경매에 출품된 [佔畢齋集]은 1649년(인조 27) 밀양 예림서원(禮林書院)에서 경상감사로 있던 이만(李曼)이 임진왜란 때 선산본의 판각이 불타서 없어져 새로 판각하여 간행한 것이다.



315 /

육률분운
陸律分韻

조선시대 / 생생자 목활자본 / 1책 영본 / 27x18.5cm

시작가 ₩ 200,000

完本은 全39卷 全13冊으로 구성되어 있다. [陸律分韻] 卷首題面 右側 下段에는, '考文官 奉教 彙編'이라는 文句가 印刷되어 있다. 本文에는 五言律詩類의 漢詩가 수록되어 있다.



316 /

율리세고
栗里世稿

1867년경 / 목판본 / 2책 완질 / 30x20cm

시작가 ₩ 150,000

朝鮮 中期의 學者 申經濟, 申灝, 申履謙, 申履常, 申履慶, 申望奎, 申以簡 等 寧海申氏 五世七稿의 詩文과 遺跡을 모아놓은 冊이다.



317 /

충장공동정실기
忠壯公東征實紀

1948년 / 석인본 / 2책 완질 / 27.5x20cm

시작가 ₩ 200,000

朝鮮 中期의 武臣 思庵 千萬里(1543~?)의 實記가 실려 있다. 乾卷 1冊 뒤表紙 內紙에 "忠壯公東征實記編輯部"에서 發行하였다는 版權張이 붙어 있다.



318 /

문집 고본
文集 稿本

조선시대 / 필사본 / 2책 / 24.5x17cm 이내

시작가 ₩ 200,000

崔益鉉의 門人으로 丙午義兵에 從軍한 全北 淳昌 居住 平山人 龍隱 申世淳의 문집 고본이다. 龍隱 申世淳의 文集 稿本《龍隱雜著》,《龍隱謾草》等 2冊 一括으로 印行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319 /

무량수경
無量壽經

1861년 / 목판본 / 1책 단 / 30x21cm

시작가 ₩ 500,000

앞表紙 內紙에는 "穗峯"이라는 墨書가 筆寫되어 있고, 그 위에 藏書印이 날인되어 있다. 卷頭에는 1861年 陰曆 5月에 懶隱 保郁이 撰한 重刊序가 실려 있다. 冊 末尾에는 發願文과 刊記가 收錄되어 있다.



320 /

고봉화상선요
高峰和尙禪要

1701년 / 목판본 / 1책 단 / 34x22cm

시작가 ₩ 500,000

[高峰和尙禪要]는 송나라 승려 高峰의 법문을 모아 엮은 불교서이다. 禪수행의 요령을 간추려서 설명해 놓았다. 張次 1~7까지 모서리가 찢겨 있는데, 이를 筆寫補正해 놓았다.

321 /

기년편고
紀年便故

조선시대 / 필사본 / 38책 완질
28.5x18cm

시작가 ₩ 20,000,000



錦樵 朴義成이 編纂한 冊으로서, 조선 태조가 탄생한 해부터 고종 연간까지 각 연도별 중요 역사 및 그해에 탄생한 인물에 대한 약력을 기록하였다.

各 冊의 卷頭에는 "錦樵"·"朴義成印"이라고 새겨진 藏書印이 순서대로 날인되어 있다. 나무 보관함 앞面에는 "紀年便攷 共 36冊. 東國歷史 1冊"이라고 새겨져 있다.

---

322 /

난설헌집
蘭雪軒集

조선시대 / 필사본 / 1책 단
27x18cm

시작가 ₩ 15,000,000



版本으로서의 [蘭雪軒集]은 허난설헌(1563~1589)이 별세한 후 18년 뒤에 최초로 중국에서 간행되었다.

우리나라에서 간행된 [蘭雪軒集]은 같은 해 선조 경진활자(庚辰活字)로 인쇄한 개주갑인자본(改鑄甲寅字本)이나 희귀본이다. 그 뒤 1692년(숙종 18) 동래부(東萊府)에서 중간한 중간본이 있다.

본 경매에 출품된 筆寫本 [蘭雪軒集]은 紙質을 考慮하려 보았을 때, 개주갑인자본(改鑄甲寅字本)으로 刊行된 版本을 中心으로 筆寫한 것으로 보인다.



323 /

양금신보
梁琴新譜

조선시대 / 필사본 / 1책 단 / 31x20.5cm

시작가 ₩ 200,000

양덕수가 1610年에 編纂하여 開刊한 版本을 後人이 達筆의 楷書體로써 正書해 놓은 冊이다. 卷頭에는 "乙巳年에 逸史 琴以南이 抄略하였다."라는 筆寫記가 쓰여 있다.



324 /

연분·편람
年分·便覽

1811년경 / 필사본 / 2점 / 18x7cm 이내

시작가 ₩ 1,700,000

전라도 지역의 結摠·軍摠·保有·戰船數 等이 正書된 筆寫文書帖『年分』, 別營庫 等의 在庫量을 記述한『便覽』으로 구성되어 있다.



325 /

지봉유설
芝峯類說

조선시대 / 목판본 / 9책 영본
29x20cm

시작가 ₩ 3,000,000

[芝峯類說]은 1614年에 李睟光(1563~1628)이 編纂한 일종의 백과사전이다. 주로 고서와 고문에서 뽑은 기사일문집(奇事逸聞集)이다. 선생이 죽은 뒤에 그의 아들 성구(聖求)와 민구(敏求)에 의하여 1634년(인조 12)에 출간되었다.

完本은 全20卷 全10冊으로 構成되어 있다. 본 경매에 출품된 [芝峯類說]의 卷次 구성은 卷1~2·卷3~4·卷5~6·卷7~8·卷11~12·卷13~14·卷15~16·卷17~18·卷19~20 等 9冊 零本이다.

326 /

증수무원록대전
增修無寃錄大全

1796년 / 후기교서관인서체자
금속활자본 / 1책 단 / 31x20.5cm

시작가 ₩ 1,000,000



327 /

호남절의록
湖南節義錄

조선시대 / 목판본 / 3책 영본
32x21cm

시작가 ₩ 300,000



328 /

초사
楚辭

조선시대 / 목판본 / 3책 영본
35x22cm

시작가 ₩ 200,000



329 /

풍산가승
豊山家乘

조선시대 / 필사본 / 5책 영본
27.5x16cm

시작가 ₩ 2,500,000



330 /

학정유고
鶴亭遺稿

조선시대 / 필사본 / 7책
28.3x19.6cm

시작가 ₩ 1,000,000



331 /

농고선조일고
聾瞽先祖逸稿

조선시대 / 필사본 / 1책 단
30x21cm

시작가 ₩ 100,000



332 /

국조상신록
國朝相臣錄

조선시대 / 필사본 / 1책 단
34.5x23cm

시작가 ₩ 300,000



333 /

연암집초
燕巖集抄

조선시대 / 필사본 / 1책 단
31.5x19cm

시작가 ₩ 1,500,000



334 /

금강반야바라밀경오가해

金剛般若波羅蜜經五家解



1600년대 초 / 목판본 / 2책 완질
36.5x24.5cm

시작가 ₩ 3,000,000

조선 초 득통(得通)이 중국 양나라 부대사(傅大士), 당나라 종밀(宗密)과 혜능(慧能), 송나라 종경(宗鏡)과 천로(川老) 등 다섯 명의 금강경 해설을 모아서 편찬한 책이다.

---

335 /

금강반야바라밀경

金剛般若波羅蜜經



1611년 / 목판본 / 1책 영본
36.5x24.5cm

시작가 ₩ 2,000,000

대형 크기의 『金剛經五家解』 판본이다.
本文에는 圭峯 宗密·六祖慧能·傅大士·冶父道川·宗鏡의 注釋이 함께 실려 있다.
欄外 上段에는 私記가 筆寫되어 있다.

---

336 /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



조선시대 / 목판본 / 1책 영본
36x24cm

시작가 ₩ 600,000

完本은 全6卷으로 구성되어 있다. 앞表紙 右側 下段에는 "祕庵·勁峰"이라는 所藏者의 法名이 墨書되어 있다. 뒤表紙 內紙에는 "印經 施主 明三·引化·曇贊."이라고 墨書되어 있다.



337 /

문곡연보

文谷年譜

1802년 / 희현당철활자 금속활자본 / 2책 완질
32.5x20cm

시작가 ₩ 1,500,000

조선 후기의 문신 문곡 김수항(1629~1689)의 연보로서, 아들 창협·창집 등이 편집하고 그 후손들이 1802년(순조 2) 보찬하여 간행한 책이다. 권상에는 출생 때부터 51세 때인 1679년까지를, 권하에는 이듬해부터 연보가 완성된 1802년까지를 수록하였다.



338 /

묵오유고

默吾遺稿

1917년 / 목활자본 / 1책 단
31x20cm

시작가 ₩ 1,500,000

조선후기 문신·학자이자 추사를 수학한 이명우의 시가와 산문을 엮어 1917년에 간행한 시문집이다. 본서에는 울릉도를 조사하라는 고종의 밀지로 이명우가 울릉도를 조사한 기록인 '鬱陵島記'가 수록되어 있다.



339 /

유중외대소민인등척사윤음

諭中外大小民人等斥邪綸音

1840년 / 목판본 / 1책 단
35x22cm

시작가 ₩ 600,000

천주교 배척을 위한 헌종의 척사윤음을 1840년 전주감영에서 간행한 한문 언해본이다.



340 /

약장합편
約章合編

1898년 / 전사자 금속활자본 / 1책 영본 / 29x19cm

시작가 ₩ 1,000,000

完本은 上·下卷 全2冊으로 구성되어 있다. 겉表紙 內紙에 "光武 2年 10月 日 約章合編 外部印本"이라고 印刷되어 있다. 관리들에게 조약의 대체적인 내용을 알리기 위하여 펴낸 것으로 보인다.



341 /

안중근선생전
安重根先生傳

1949년 / 석인본 / 1책 단 / 28x19.5cm

시작가 ₩ 500,000

卷頭에는 淸나라 學者 韓炎의 序文이 있다. 本文은 全28章으로 구성되어 있고, 祭文·東韓烈士歌 等이 包含되어 있다.



342 /

약장합편
約章合編

1898년 / 전사자본 / 2책 완질 / 29x18.5cm

시작가 ₩ 3,000,000

1898년 外部 발행하였으며, 1876년 이래로 맺은 각국과의 조약을 정리한 자료이다.



343 /

각국약장합편
各國約章合編

1890년 / 전사자본 / 1책 단 / 28.5x19cm

시작가 ₩ 1,000,000

1890년 統理交涉通商衙門에서 발행하였으며, 영국, 독일, 러시아, 이탈리아, 프랑스 등과 맺은 各國條約同異合編과 통상장정, 세칙, 조계 장정 등을 담고 있다.



344 /

주자이동조변
朱子異同條卞

1705년경 / 목활자본 / 2책 완질 / 25x16.5cm

시작가 ₩ 300,000

청나라 학자 이패림(李沛霖)이 편찬한 후 그의 동생 이정(李禎)이 교정하여 만든 문헌이다. 본 경매에 출품된 [朱子異同條卞]은 1705年頃에 刊行된 것으로 보인다.



345 /

황각록
黃閣錄

조선시대 / 필사본 / 1책 단 / 30x18.5cm

시작가 ₩ 300,000

조선시대 주요 관직 역임자·왕실관계 주요 인사·詩書畵에 두각을 나타낸 인물의 명단을 정리한 책이다. 本文은 "正堂故事·國朝檢校政丞·國朝黃閣錄{太祖~正祖}·文衡錄·耆社故事·耆社錄·湖堂錄·端宗朝靖難功臣" 순이다.



346 /

진신내안
縉紳內案

조선시대 / 필사본 / 1책 단 / 31x21cm

시작가 ₩ 3,000,000

本文에는 成均館 知事·宣惠廳 都提調·宗正卿·學錄·學諭·尙正·瑞直長·僉知·經歷·都事 等의 벼슬 名 아래에, 當時 該當 官職을 맡고 있었던 官吏의 姓名이 墨書된 別紙가 순서대로 붙어 있다.



347 /

간재 전우 자료
親筆 手寫本

조선시대 / 필사본 / 3책 / 22x15cm 이내

시작가 ₩ 300,000

① 寫本『朱宋事略』1冊
② 寫本『立後禮說』1冊
③ 寫本『朱宋事略』1冊

348 /

태을부인곤서호록
太乙夫人鵾書狐錄

조선시대 / 필사본 / 1책 단
16x15cm

시작가 ₩ 100,000

袖珍本 크기로 筆寫된 冊이다. '文殊良日法·太乙經 註釋' 等이 達筆의 楷書體로써 筆寫되어 있다.



349 /

예서 관련 필사본
禮書 關聯 筆寫本

조선시대 / 필사본 / 22책
18.5x13cm

시작가 ₩ 1,500,000

『纂圖互註周禮』는 《周禮》에 그림과 설명을 덧붙인 책이다. 본 경매에 출품된 筆寫本 『纂圖互註周禮』에는 篇目卷 1冊이 包含되어 있다. 達筆의 楷書體로써 정성스럽게 正書하여 놓았다.



350 /

술수서
術數書

조선시대 / 필사본 / 1책
24.5x17cm

시작가 ₩ 300,000

「遁甲八陣圖」·「超神接氣」 等의 篇目도 正書되어 있다. 各 文段의 첫 文章이 시작되는 곳에는 朱墨으로써 表示를 해놓았다. 末尾에 "石 十二諸國 官道數."라는 文章이 墨書되어 있다.





351 /

금강반야바라밀경

金剛般若波羅蜜經

1525년 / 목판본/ 1책 영본
32x21cm

시작가 ₩ 3,000,000

本文에는 圭峯 宗密·六祖慧能·傅大士·冶父道川·宗鏡의 注釋이 함께 실려 있다. 冊 末尾에는 坡原府院君 尹汝弼을 筆頭로 하는 施主秩과 刊記가 있다.



352 /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

조선시대 / 목판본 / 1책 영본
32x20cm

시작가 ₩ 500,000

8세기 초 인도 출신의 학승 반랄밀제가 번역하였다. 大文에는 口訣 懸吐가 墨書되어 있다.



353 /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

大方廣圓覺脩多羅了義經

1600년대 / 목판본 / 1책 영본
35.5x24.5cm

시작가 ₩ 500,000

完本은 全10卷으로 구성되어 있다. 大文에는 口訣 懸吐가 墨書되어 있으며, 欄外에는 後人이 熾烈하게 工夫한 痕迹이 歷歷하게 남아 있다.



354 /

염라왕수기사중역수시왕생칠왕생정토경

閻羅王授記四衆逆修十王生七往生淨土經

1937년 / 신연활자본 / 1책 단 / 26x19cm

시작가 ₩ 100,000

1687年 陰曆 8月에 妙香山 普賢寺에서 開板한 版本을 新鉛活字本으로 제작한 것이다. 本文은 漢文本 「緣起及印布記文」부터 시작하고 있다. 한문 원문이 끝난 다음 부분에 한글 언해문이 실려 있다.



355 /

백련일칭금

百鍊一秤金

조선시대 / 필사본 / 14책 완질 / 21.5x15cm

시작가 ₩ 300,000

古博 郭御靑이 較訂한 中國 版本을 正書해놓은 冊이다. 各 冊 卷頭에는 "李氏"·"完山後學"이라고 새겨진 藏書印이 날인되어 있다.



356 /

삼성보전

三聖寶典

조선시대 / 목판본 / 1책 단 / 23x14.5cm

시작가 ₩ 200,000

卷頭에는 丙午年 夏至에 海東 無名氏가 撰한 手書刻 序文이 실려 있다. 그 뒤에는 목록·문창제군효경(文昌帝君孝經)·관성제군충의경(關聖帝君忠義經)·부우제군성심진경(孚佑帝君醒心眞經)·발문{無相子題}이 수록되어 있다.



357 /

관성제군보고

關聖帝君寶誥

1880년 / 목판본 / 1책 단 / 23x14.5cm

시작가 ₩ 200,000

한문 원문의 경전을 싣고 그 뒤에 그 언해를 붙이는 방식으로 각세진경(覺世眞經)·구겁문(救劫文)·부대련구(附對聯句)·영험기(靈驗記)·교유문(敎諭文)·배심성훈(拜心聖訓)의 여섯 가지 글이 실려 있다.



358 /

육전조례
六典條例

1876년 / 전사자활자본 / 6책 영본
30x19.5cm

시작가 ₩ 4,000,000

조선 말기 육조(六曹) 각 관아의 사무 처리에 필요한 행정 법규와 사례를 편집한 행정법전이다. 1866년(고종 3) 12월에 완성하고 1867년 5월에 인쇄하여 반포하였다. 完本은 전10권 전10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경매에 출품된 [六典條例]의 卷次는 卷1·卷2·卷5·卷6·卷9·卷10 等 6冊 零本이다.



359 /

요정초
堯庭草

1836~43년 / 목활자본 / 1책 단 / 31x18cm

시작가 ₩ 400,000

觀象監에서 1836·1837·1838·1839·1840·1841·1842·1843年 等 8年 동안 刊行한 觀象監字 木活字本 時憲書 8卷을 合本한 冊이다. 時憲書 各 卷의 卷頭에는 "觀象監印"이라고 새겨진 官印이 날인되어 있다.



360 /

신편산학계몽
新編算學啓蒙

1660년경 / 목판본 / 1책 영본 / 31x18cm

시작가 ₩ 500,000

完本은 上中下卷 全3冊으로 구성되어 있다. 卷頭에는 趙城元鎭이 1299年에 撰한 序文이 실려 있다. 그 뒤에는 1660年 陰曆 7月 下旬에 金始振이 撰한 「重刊算學啓蒙序」가 수록되어 있다.

361 /

도암선생집
陶菴先生集

1803년 / 방정리자 목활자본 / 24책 영본
34x22cm

시작가 ₩ 5,000,000



完本은 전50권 전25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경매에 출품된 [陶菴先生集]의 경우, 卷45~46 1冊이 缺落되어 있다. 卷頭에는 "老牧窩藏"·"李箕鎭君範章"이라고 새겨진 藏書印이 순서대로 날인되어 있다.

362 /

계고편
稽古篇

조선시대 / 필사본 / 1책 영본
28x19cm

시작가 ₩ 200,000



[稽古篇]은 『小學』의 네 번째 篇名이다. 寫本 [稽古篇] 地卷 1冊 零本의 卷首題目은 "稽古篇 卷之四"이고, 本文은 「帝堯陶唐氏」부터 시작하고 있다.

363 /

간송선생집
澗松先生集

조선시대 / 필사본 / 2책 영본
32x21cm

시작가 ₩ 200,000



[澗松先生集]의 版本은 1744年頃에 木版本(7권 4책)으로 刊行되었다. 朝鮮時代 筆寫 稿本 [澗松先生集] 卷1~2 1冊의 뒤表紙 內紙에는 '咸安趙氏家藏'이라고 墨書되어 있다.



364 /

유헌유고
褒軒遺稿

조선시대 / 필사본 / 1책 단
28x20cm

시작가 ₩ 200,000

卷末에는 筆寫者 從子 權黼의 親筆 跋文·權相夔의 孫子 幼學 權祿仁(正祖·純祖 年間에 活躍하였음.)이 撰書한 「祖考褒軒處士府君家狀」이 正書되어 있다.



365 /

석담집
石潭集

조선시대 / 필사본 / 1책 영본
30.5x21cm

시작가 ₩ 200,000

卷頭에는 「鄭參判令公子濟赴京之行」이라는 漢詩가 쓰여 있다. 筆寫 稿本 [石潭集] 卷4 1冊의 內容은 韓國文集叢刊에 실려 있지 않다.



366 /

조선지리지
朝鮮地理誌

조선시대 / 필사본 / 1책 단
30x19.5cm

시작가 ₩ 300,000

춘천의 地理誌 〈壽春形勝〉를 우선하여 별도 편제한 도별 人文地理誌이다. 19세기 필사된 것으로 印行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367 /

옥당이정자의운율해편심경
玉堂釐正字義韻律海篇心鏡

1618년 / 목판본 / 1책 영본
27x17.5cm

시작가 ₩ 200,000



범위가 광대하다는 뜻에서 '海篇'이고, 또한 마음을 보는 거울이기 때문에 '心鏡'이라 한 듯하다. 本文은 상·하의 2단으로 구분되어 있다.

368 /

전예천자문
篆隸千字文

1683년 / 일본 목판본 / 1책 단
27.5x19cm

시작가 ₩ 1,200,000



甲骨·大篆·小篆·隸書·行書·楷書 等 여러 書體로써 《千字文》 全文의 各 漢字를 모두 聚合한 漢文 및 千字文 學習書이다. "佐藤藏"이라고 새겨진 藏書印이 날인되어 있다.

369 /

진행초천자문
眞行草千字文

1891년 / 일본 목판본 / 1책 단
26x17cm

시작가 ₩ 200,000



書者는 日本 明治 時期의 書家이자 官僚였던 巖谷一六(1834~1905)이다. 本文에는 巖谷一六이 楷書·行書·草書로 各各 쓴 千字文의 全文이 실려 있다. 末尾에는 「千字文訓點」이 添附되어 있다.



370 /

예변

隸辨

1791년 / 일본 번각목판본 / 2책 완질 / 26x18.5cm

시작가 ₩ 500,000

清나라 顧藹吉이 著作한 隸書 學習書이다. 전8권 전2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內題紙에는 "顧南原撰集. 玉淵堂原本. 大日本寬政辛亥鐫. 不許飜刻千里必究."라는 文句가 印刷되어 있다.



371 /

역대초서선

歷代草書選

1891년 / 일본 목판본 / 5책 완질 / 19.5x13.5cm

시작가 ₩ 300,000

三都書林 大觀堂梓 日本 木版本 [歷代草書選]은 白芝山이 著述한 草書 學習字典이다. 諸葛亮·曹植·鍾繇·杜預·阮籍·唐太宗·鮮于樞·董其昌 等 歷代 中國 名筆家의 筆跡이 실려 있다.



372 /

태합승진록

太閤昇進錄

일본 목판본/ 1책 단/ 18.5x12.5cm

시작가 ₩ 100,000

本文 張次 15부터 "太閤(히데요시) 朝鮮 御征伐"이라는 題目 아래에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朝鮮 征伐記가 실려 있다.



373 /

본교첩경 화혼이교

本教捷徑 和魂邇教

1848년 / 일본 목판본 / 1책 단 / 25.5x17.5cm

시작가 ₩ 1,000,000

지리 설명서로서, 앞부분에 [황국지세약도(皇國地勢略圖)]·[자동방견천지도(自東方見天地圖)]·[지구서반면지도(地球西半面之圖)] 등의 채색 지도가 있다.

제257회 삶의흔적

PART.04

고문서



374 /

강화도 관련 관문서

江華島 關聯 官文書

1881년 / 5매
35x220cm 이내

시작가 ₩ 10,000,000

① 統理機務衙門에서 1881年 陰曆 1月 18日에 江華府留守에 보낸 關文 1枚
: 本 衙門 各司의 稱號와 條件의 合에 變通이 있다는 內容이 담긴 節目이 書入되었었는데, 임금께서 允許하셨다는 內容이 쓰여져 있다.
그리고 무릇 啓聞處를 두는 것은 謄報廟堂例에 依據하여 擧行할 일이라는 傳敎 內容이 적혀 있다.

② 兵曺에서 1881年 3月에 江華府留守에게 보낸 關文 1枚
: 江華府 前留守 金永壽의 所受發兵符에 李載元을 留守로 除授하는 일과 關聯하여 임금께서 允許하셨으니,
마땅히 施行할 일이라는 內容이 쓰여져 있다. 末尾에 官員의 處分 글씨와 官印이 쓰여져 있다.

③ 丙申年 7月 24日에 卽廳에서 올린 稟目 1枚
: 全羅道 右水營 運石舡 監董 盧稟을 尹士悅의 例에 따라 잡아서 收監시킬지의 與否를 물은 稟目 1枚: 官員의 處分글씨 및 官印이 있다.

④ 長令 尹師日이 小舡 1隻 및 添木受出代立舡과 關聯된 摘奸 內容을 記錄해 놓은 官文 1枚
: 文書 末尾에 兼使의 職名과 處分글씨 및 官印이 있다.

⑤ 丙寅年 9月에 作成한 江華洋賊 筆寫 記文 1枚
: 官印은 捺印되어 있지 않다. 韓紙에 褙接이 되어 있다.



375 /

보부상
차정첩

1899~1907년 / 4점
38x57cm 이내

시작가 ₩ 5,0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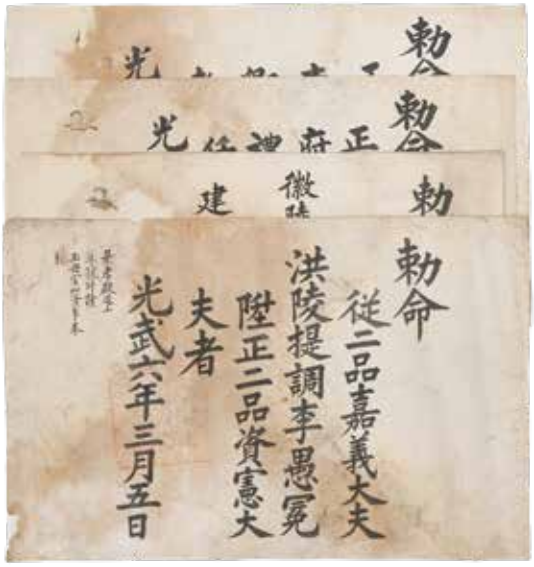
① 1889년 江華商務左支社에서 최윤묵을 公員으로 임명하는 차정첩 : 商務左支社 閔俊植 명의로 발행
② 1900년 江華商務左支社에서 하상의를 明査員으로 임명하는 차정첩 : 公事員 李寅守, 商務員 閔俊植 명의로 발행
③ 1899년 泰安右支社에서 員商 徐相晩을 海美 西面處所 都執事로 임명하는 차정첩
④ 1907년 文英穆을 慶尙南道金海郡左支社公事員으로 임명하는 차정첩 : 金海 領左公事員 金貞魯 명의로 발행

376 /

칙령
勅令

조선시대 / 25점
42x65cm 이내

시작가 ₩ 2,000,000



을사오적의 처형을 강력히 요청한 碧珍人 李愚冕이 建陽~光武年間 수령한 것으로
1895년(건양원년=개국504년) 이래의 대부분의 활동을 근거할 수 있는 勅令 25점이다.



377 /

김선재
훈령

1910년 / 1점 / 27.5x20cm

시작가 ₩ 500,000

昆陽郡 第203號로 成給된 훈령에는 단발령에 불응하는 학생들을 坐視하지 말 것이며, 단발 의무를 이행하여 학교의 儀模를 바르게 세우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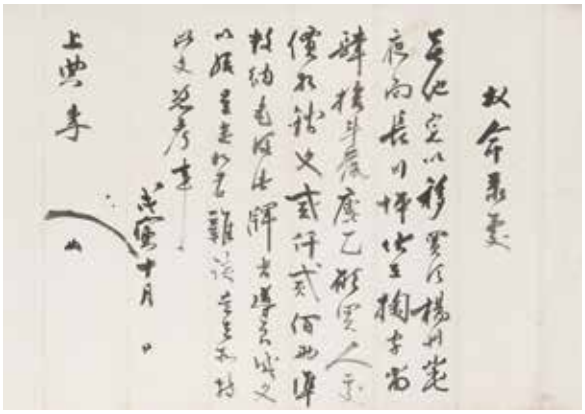
378 /

김귀현
관문서

1909년 / 2점 / 27x35.5cm 이내

시작가 ₩ 300,000

군수 김귀현(金龜鉉)이 1909年 5月 19日에 읍·면장에게 보낸 第36號 훈령에는 미납된 세금을 5日 내에 납부하라는 내용이 쓰여 있다.



379 /

패지
牌旨

무인년(戊寅年) / 1점 / 36x51cm

시작가 ₩ 100,000

上典 李氏가 양주 둔야면 장천평에 있는 掬字畓 47斗落의 매매와 관련하여 戊寅年 陰曆 10月에 奴 命泉 앞으로 써준 위임장이다.



380 /

관문서
指令·官文

1897년 / 5매 / 27x36cm

시작가 ₩ 100,000

1897年 7月에 의정부참정내부대신 남정철(南廷哲, 1840~1916)이 충청북도관찰사 박제억(朴齊億, 1825 ~?) 앞으로 성급한 지령 2매와 同年 同月에 내부에서 前泰仁郡守의 봉급 지불과 관련하여 성급한 官文 3매이다.



381 /

어윤중

교지

1880~1881년 / 2점 / 53x70cm

시작가 ₩ 100,000

구한말 개혁 정치가 어윤중(魚允中)에게 1880년(光緖6), 1881년(光緖7)에 각각 시강원(侍講院) 필선(弼善)과 통례원(通禮院) 좌통례(左通禮)에 임명하는 내용이다.



382 /

충남예산지역

고문서

1849~1938년 / 29매 / 55x75cm 이내

시작가 ₩ 500,000

고만응(高萬應)과 그의 가족에게 성급한 교지 9매, 덕산면 거주 고운성(高雲城)에게 성급한 위촉장 및 표창장 20매이다.

383 /

조보

朝報

1893년 / 15매
33x220cm

시작가 ₩ 2,000,000

1893年 7月 17日 記事를 살펴보면, "형조판서(刑曹判書) 조병직(趙秉稷)을 관리 전우사무(管理電郵事務)에, 외무협판(外務協辦) 이용직(李容稙)을 총판내체우신사무(總辦內遞郵信事務)에, 내무협판(內務協辦) 겸 외무장교당상(外務掌交堂上) 그레이트하우스[具禮 : Greathouse]를 회판외체우신사무(會辦外遞郵信事務)에 임명하라."라는 전교(傳敎)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893年 12月 28日에 기사에는 의정부에서 아뢴 글이 있다. 잠삼(潛蔘)은 국가의 금령에 관계된 일인데 범장(犯贓)한 물건을 몰수하는 것은 유수영(留守營)의 규례라며 핑계 대고는 3만 8,642냥의 돈을 어디에도 귀속시키지 않아 규탄을 받기까지 한 金世基를 해부(該府)에서 나문(拿問)하게 해달라고 아뢰었다.







384 /

홍진 등이 이상정에게 올린
독립운동가 편지

일제강점기 / 1매
27x35.5cm

시작가 ₩ 10,000,000

독립운동가 홍진(洪震, 1877~1946) 등 {유동열(柳東說,1879~; 군인, 독립운동가, 정치인, 號는 春郊), 김붕준(金朋濬, 1888~1950; 임시정부 국무위원, 독립운동가, 號는 起元, 棠軒.)의 성명이 連名되어 있음.}이 11月 12日에 중경(重慶, 충칭) 육군참모학교의 교관을 지냈던 산은 이상정(汕隱 李相定, 1897~1947; 독립운동가, 號는 晴南, 汕隱.) 에게 올린 행초체(行草體) 편지이다.

손창식(孫昌植)이 운영하는 공창(工廠)이 있게 된 후로 우리나라의 공업 건설에 실로 막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여러 해 동안 힘을 다하여 일체(一切)의 설비로써 사업을 진행하였다고 하였다. 우리는 반드시 전력으로써 보전하여 건설 공업의 전구(前驅; 騎馬할 때 先導하는 사람)가 되게 하고자 한다고 하였다. 이에 仰告하니, 모름지기 노력하여 활동을 護持하여 사업을 완수하려고 한다고 하였다.

皮封 앞면에는, "李 汕隱 先生 啓. 專致內詳."이라고 쓰여져 있다.

385 /

민병석 등
간첩정요

1901년 / 1점(18통)
29x23cm

시작가 ₩ 7,000,000



18통의 편지는 모두 당시 원주 鎭衛隊를 이끌던 박승환(朴昇煥, 1869~1907) 參領에게 부쳐진 것이다.

본문에는 閔丙奭(1858 ~ 1940)·金禎根(? ~ ?)·李鍾健(1843 ~ 1930, 3通)·李允用(1854 ~ 1939, 4通)·沈相薰(1854 ~ ?, 2通)·朱錫冕(1859 ~ ?)·金鎭澄(? ~ ?, 4通)·韓永福(1867 ~ ?)·梁性煥(? ~ ?, 朝鮮 末期의 武臣임.) 등이 친필로 찬한 편지 18통이 실려 있다. 편지는 1901年 2月부터 陰曆 12月까지 작성된 것이다.



386 /

김헌식
간찰

조선시대 / 41매
22x15cm

시작가 ₩ 3,000,000

김헌식(金憲植, 1868~1934)의 본적은 慶北 奉化郡 乃城 海底 591이다.

편지는 김헌식이 1903年경에 서울 전동(磚洞)에 머물면서 고향인 해제(海第)로 보낸 것이다. 春陽 宅·春汀·金 進士 宅 座下 앞으로 각각 보낸 편지가 있다.

김헌식이 김창숙(金昌淑, 1879~1962)을 도와서 군자금을 모집하는 데 관여하였던 때는 1925年 12月경이다.



387 /

북곡 홍치중
간찰첩

1714~27년 / 1점(22통)
36x24cm

시작가 ₩ 3,000,000

홍치중(洪致中, 1667~1732)이 1714年 陰曆 10月 19日부터 1727年 陰曆 11月 冬至日까지 당시 통천군수로 있던 숙부 홍득범(洪得範)에게 친필로 써서 보낸 서찰 22통이 수록되어 있다.

皮封에는 "江西 牙軒", "叔主前 上書. 通川 衙下執事.", "通川 衙軒 卽傳. 姪 參判 謝書.", "叔主前 謝上書. 通川 衙軒 執事.", "叔主前 上謝書. 通川 衙軒 執事.", "叔主前 上書. 通川 衙軒 執事.", "倉洞 參奉 宅 卽傳. 梨湖 答書.", "洪 參奉 宅 卽傳. 梨湖 書.", "汝百 奉謝.", "汝百 奉復狀.", "倉洞 洪 參奉 宅 卽傳. 梨湖 書.", "洪 參奉 宅 卽傳. 梨湖 書.", "汝百 奉謝狀."이라고 쓰여 있다.



388 /

한경·심진현 등
간찰첩

조선시대 / 1점(23통) / 36x23.5cm

시작가 ₩ 1,000,000

예산현감 한경(韓警), 참판 심진현(沈晉賢), 이동의(李東毅), 판관 홍이호(洪彝浩) 등 23인이 친필로 쓴 서찰이 실린 조선시대 간찰첩이다.



389 /

선현유묵
先賢遺墨

조선시대 / 1점(6통) / 34.5x21cm

시작가 ₩ 1,500,000

竹南 吳竣·損齋 南漢朝 등 6통의 간찰이 실려 있다. 簡札帖 뒷面에는 雙鉤加墨法으로 만든 退溪 李滉(1501~1570)과 謙庵 柳雲龍(1539~1601)의 글씨가 수록되어 있다.

390 /

박의

간찰

1641년 / 1점
20.5x37cm

시작가 ₩ 200,000



391 /

이건명

간찰

1716년 / 1점
25x33.5cm

시작가 ₩ 150,000



392 /

이간

간찰

1713년 / 1점
30x43cm

시작가 ₩ 2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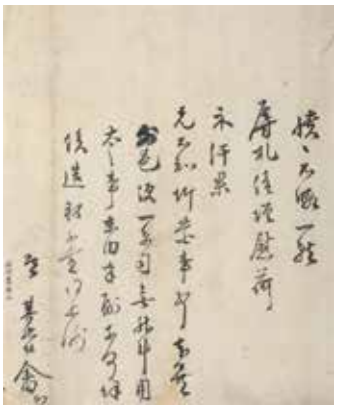
393 /

이여

간찰

조선시대 / 1점
30.5x22.5cm

시작가 ₩ 200,000



394 /

한글 간찰

조선시대 / 6매
35x144cm 이내

시작가 ₩ 200,000



395 /

한글 기도문

조선시대 / 1점
24x180cm

시작가 ₩ 1,000,000



396 /

강지주식

講紙註式

1837년 / 필사본 / 1점
14x8cm

시작가 ₩ 300,000



397 /

반야바라밀다심경

般若波羅蜜多心經

1점
33x23.5cm

시작가 ₩ 200,000



398 /

정의대부오천군묘비명
正義大夫烏川君墓碑銘

조선시대 / 1점 / 43.5x32cm

시작가 ₩ 1,500,000

오천군 이사종(李嗣宗)의 묘비명을 정서한 稿本 성격의 필사 문장으로 원문은 韓國文集叢刊에 수록되어 있지 않으며, 말미에는 사위 이희보(李希輔, 1473~1548)가 찬하고 생원 김희수(金希壽, 1475~1527)가 書하였다고 쓰여 있다.

399 /

성균생원주강조공묘갈명
成均生員柱江趙公墓碣銘

조선시대 / 1점 / 34x21.5cm

시작가 ₩ 400,000

류태좌(柳台佐, 1763~1837)의 친필로 추정되는 成均生員柱江趙公墓碣銘으로 전문은 류태좌의 문집『鶴棲先生文集』卷16에 실려 있다.

400 /

서학생표공행록후
書學生表公行錄後

1903년 / 1점 / 24x50cm

시작가 ₩ 100,000

송병선(1836~1905)이 1903年 垢月 上澣에 경남 거창군 읍석면 구례동에 거주하였던 문인 표동직(表東直, 1864~?)의 행록(行錄)을 서술한 글이다. 내용은 표동직은 학식이 넓고 생각이 깊었으며 작은 일에도 구체적이고 분명하였다고 하였다.

401 /

관문
關文

1886년 / 1점 / 35x100cm

시작가 ₩ 500,000

禮曺에서 1886年에 전라도관찰사 앞으로 보낸 것으로, 扶安 私奴 龍得이가 올린 原情과 關聯된 刑曺의 啓目에서, 그의 뜻에 依據하여 보니 上典의 孝行이 卓異하여 旌閭의 恩典을 베풀만한 일이라고 하였다. 材木과 匠人을 例에 따라 施行하라고 하였다.

402 /

신응도
명문

1657년 / 1점 / 38x53cm

시작가 ₩ 300,000

전주 신응도(田主 申應棹)가 1657年 陰曆 4月 11日에 전답 매매와 관련하여 동성(同姓) 사촌형 신정호(申挺濩) 앞으로 써준 명문이다. 文書 末尾에 申應棹의 手決이 있다.

403 /

호구장적
戶口帳籍

1612년 / 1매 / 59x70cm

시작가 ₩ 500,000

安東府 所藏 金洙敎의 장적을 등출한 문서로 金光繼(1580~ 1646)의 父親·祖父·曾祖父·外祖父를 비롯하여 祖母와 祖母의 父親·祖父·曾祖父·外祖父 그리고 妻와 妻의 父親·祖父·曾祖父·外祖父의 약력이 실려 있다. 관인이 날인되어 있으며, 문서 말미에는 행부사의 직함과 서명이 있다.

404 /

화순 지역 사문서
분재기·소지·토지매도계약서 등

조선시대 / 4매 / 75x78cm

시작가 ₩ 600,000

1608年에 작성된 분재기 1매에는 平澤人 長子 林時啓를 위시하여 林時泰·林時敏·林時震·林時奮·林時若·林何生·林茶生, 長女·次女·三女에게 전답과 노비를 각각 분깃해준 현황이 순서대로 쓰여 있고, 나머지 3매의 문서는 한말(韓末)에서 1918年 사이에 작성된 平澤林氏家의 문서이다.



405 /

이시원

간찰

1800년대 / 1매
23x43cm

시작가 ₩ 2,000,000



척종질(戚從姪) 이시원(李是遠, 1790~1866)이 2月 初7日에 寬堂下執事 앞으로 보낸 편지이다. 營門에서 近來에 紛擾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혹여 調理하시는데 妨害가 된 것이 아닌지 念慮스럽다고 하였다. 戚從姪 李是遠 自身의 눈병으로 難堪하다고 하였다.

---

406 /

어재연

간찰

1863년 / 1매
28.5x50cm

시작가 ₩ 2,000,000



병인양요 때 廣城鎭을 수비하였던 어재연(魚在淵, 1823~1871)이 1863年 陰曆 3月 15日에 지인에게 보낸 편지이다. 注書 李敦佑가 棠軒 同宗間과 卽來하여 營內에서 머물다가 지금 장차 돌아가려 한다고 하였다.

---

407 /

양헌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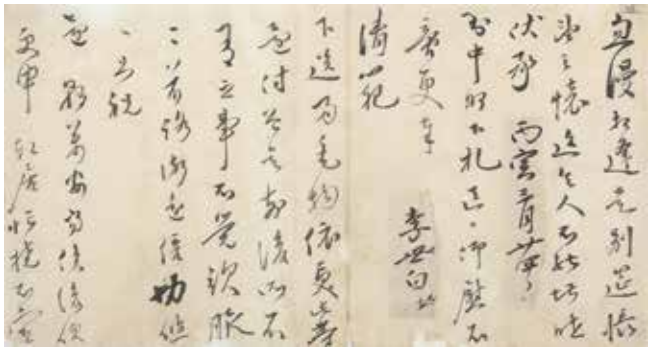
간찰

1874년 / 1매
26x37.5cm

시작가 ₩ 2,000,000



병인양요 때 鼎足山城의 守城將이었던 양헌수(梁憲洙)가 1874年 陰曆 2月 初7日에 지인에게 보낸 답서이다. 梁憲洙 自身은 許多한 公務를 堪當할 수 없어서 眞實로 煩悶스럽다고 하였다. 보내주신 惠物에 感謝를 드린다고 하였다.



40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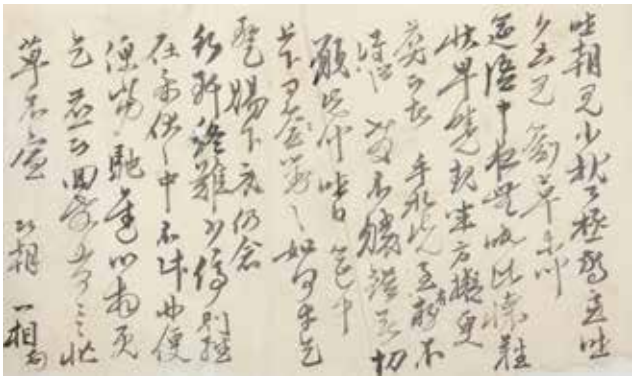
이세백

간찰

1686년 / 1매 / 22x40cm

시작가 ₩ 200,000

청음(淸陰) 김상헌(金尙憲)의 외증손 북계(北溪) 이세백(李世白, 1635~1703)이 1686年 陰曆 3月 24日에 지인에게 보낸 편지이다.



409 /

이일상

간찰

1600년대 / 1매 / 22.5x38cm

시작가 ₩ 200,000

청호(靑湖) 이일상(李一相, 1612~1666)이 지인에게 보낸 편지이다. 行軒은 끝내 잠시도 머물러 있음이 어려운 것이니, 비록 病伏 가운데라도 생각하지 않겠느냐고 하였다.



41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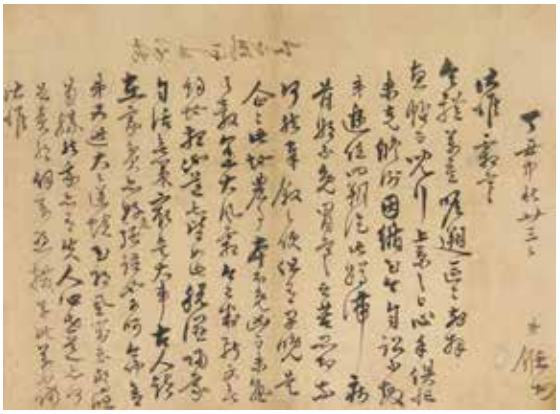
권업

간찰

1696년 / 1매 / 26.5x35cm

시작가 ₩ 200,000

英祖 年間에 謝恩使로 청나라에 다녀왔던 寄傲軒 권업(權㸁, 1669~1738)이 1696年 陰曆 4月 20日에 웃어른에게 보낸 편지이다.



411 /

신임

간찰

1697년 / 1매 / 30.5x41.5cm

시작가 ₩ 200,000

孝宗·景宗 年間에 활약하였던 한죽(寒竹) 신임(申銋, 1639~1725)이 1697年 陰曆 8月 23日에 지인에게 보낸 편지이다.

412 /

박정양

간찰

조선시대 / 3매
25.5x42cm 이내

시작가 ₩ 300,000



413 /

기우만

간찰

1911년 / 1매
18.5x44cm

시작가 ₩ 100,000



414 /

성만징

간찰

1707년 / 1매
36x36cm

시작가 ₩ 200,000



415 /

이희조

간찰

1718년 / 1매
32.5x38.5cm

시작가 ₩ 200,000



416 /

송환기

간찰

조선시대 / 1매
29.5x41cm

시작가 ₩ 200,000



417 /

김병시

간찰

1892년 / 1매
25x48.5cm

시작가 ₩ 100,000



418 /

신준

간찰

조선시대 / 1매
31x41cm

시작가 ₩ 100,000



419 /

이정기

간찰

1659년 / 1매
25x27cm

시작가 ₩ 200,000



420 /

이숙

간찰

1671년 / 1매
27.5x42.5cm

시작가 ₩ 200,000



421 /

여광주

간찰

1706년 / 2매
30.5x41cm 이내

시작가 ₩ 500,000



422 /

유후조

간찰

1833년 / 3매
33.5x46.5cm 이내

시작가 ₩ 100,000







423 /

윤봉조

간찰

1733년 / 1매
30x46cm

시작가 ₩ 100,000



424 /

이승칠

간찰

1874년 / 1매
28.5x100cm

시작가 ₩ 100,000



425 /

허계

간찰

1849년 / 1매
31x50cm

시작가 ₩ 100,000



426 /

민응식·민영달

간찰

1893년 / 2매
29x52cm 이내

시작가 ₩ 100,000



427 /

김영한

편지

1931년 / 1매
20.5x53cm

시작가 ₩ 200,000



428 /

초결변의
草訣辨疑

청나라 초기 추정 / 3첩
36x20cm

시작가 ₩ 10,000,000



각 첩의 제첨에는 "淳化閣帖"이라고 묵서되어 있는데, 이는 後人이 題目을 잘못 적은 것이다.

草書는 매우 유동적이어서 『草訣歌』의 규범을 벗어나는 예외적인 사항이 많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范文明(1573~1620)이 [草訣辨疑]를 저술한 것이다. 첩 말미에는 "萬曆 20(1592)年 范氏 連奎館 摹勒上石."이라는 글귀가 탑본(搨本)되어 있다.



429 /

중국금석문명탁백선집
中國金石文名拓百選集

1점 / 35.5x26cm

시작가 ₩ 300,000

제첨은 현암(玄庵) 정상옥(鄭祥玉)이 친필로 썼다. '漢永奉無疆瓦·漢長樂未央瓦·漢衛字瓦' 등 모두 118매의 탁본이며, 梵鐘, 한나라 때 제작된 瓦當 등의 겉면을 종이에 뜬 탁본 작품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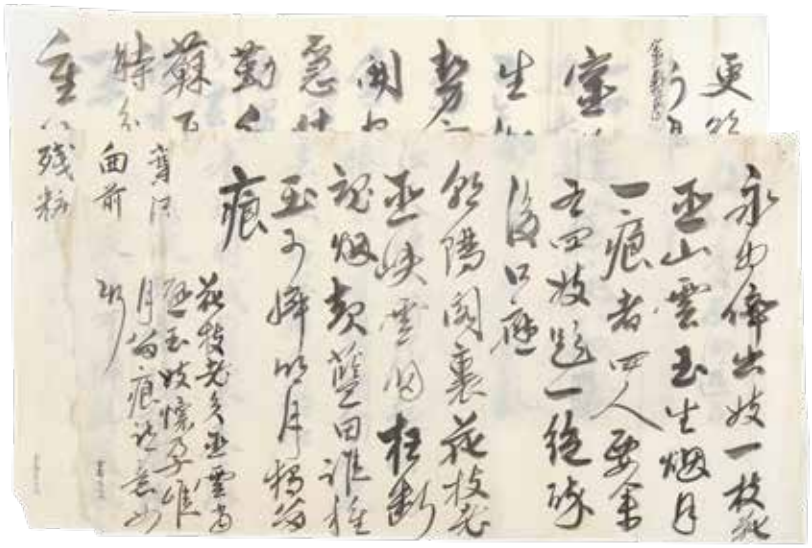
430 /

화엄종주백파대율사대기대용지비
華嚴宗主白坡大律師大機大用之碑

1점 / 127x48cm (1폭)

시작가 ₩ 300,000

추사(秋史) 김정희(金正喜)의 글씨 탁본을 병풍으로 꾸민 華嚴宗主白坡大律師大機大用之碑 1점으로 양기·등기 등 2폭으로 구성되어 있다.



431 /

김수창
친필 시고

1600년대 / 5매
31x54cm 이내

시작가 ₩ 2,000,000

우의정 김상용(金尙容, 1561~1637)의 손자로서 김장생(金長生, 1548~1631)의 문하에서 학업을 쌓았던 安東人 천휴(天休) 김수창(金壽昌, 1599~1680)의 친필시고 5매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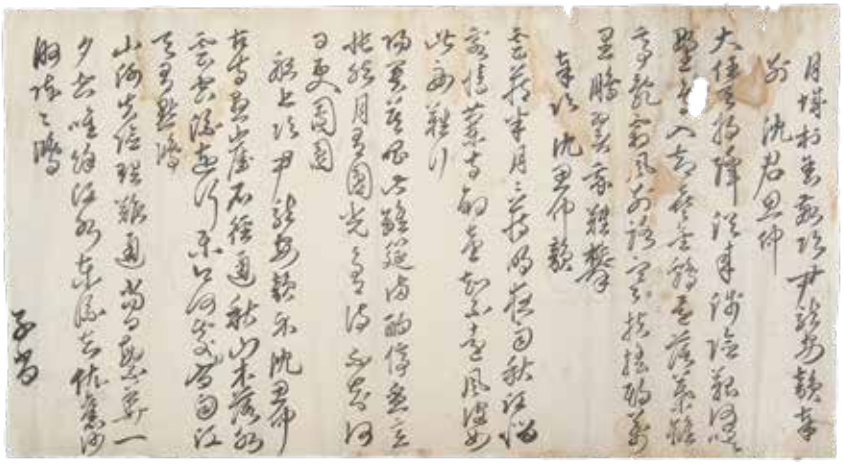
「贈別李錫泉」·「舟行漫詠」 등의 시제로 지은 한시가 있으며, 시고 말미에 後人이 "金壽昌 天休"라고 기명하여 놓았다.

432 /

한지원
친필 시고

조선시대 / 1점
30x54cm

시작가 ₩ 1,500,000



조선 후기의 문신 한지원(韓志遠)의 친필 시고 [月城村舍敬次尹龍安韻奉別沈君思仲] 1점으로 한지원이 情·行·然·圓·空·鴻을 운자(韻字)로 삼아 지은 한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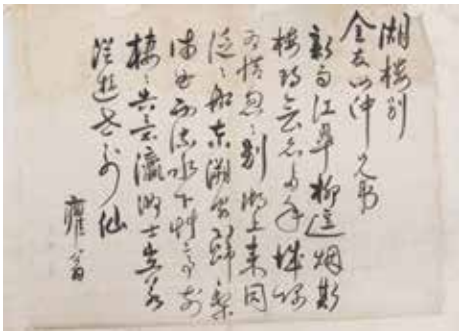
시고 말미에 한지원의 字인 "子尙"이 묵서되어 있다.

433 /

호루별김우여중형제
湖樓別金友汝仲兄弟

조선시대 / 1점
40x52.5cm

시작가 ₩ 100,000



구옹(癯翁) 이후(李逅)의 친필 시고 [湖樓別金友汝仲兄弟] 1점이다.

434 /

시첩
詩帖

조선시대 추정 / 1점
28.6x20.3cm

시작가 ₩ 200,000



"同熙"라는 분이 채색 시전지에다가 쓴 시고 수십 편이 실려 있는 [詩帖] 1점이다. 30매의 시전지가 시첩에 붙어 있으며 조선 말기에 완성된 것으로 보인다 「翻東石公一書」라는 글 말미에 "末庚日 同熙生 拜拜."라고 묵서되어 있다.

435 /

류상춘
시고

조선시대 / 1점
33.5x40cm

시작가 ₩ 300,000



류상춘(柳象春, 1734~?)은 1765年에 설행(設行)된 生員 式年試에서 2등으로 합격하였던 인물이다. 부친은 유학(幼學) 유즙(柳濈)이며, 거주지는 용궁(龍宮)이다. 류상춘이 종숙을 위하여 秋·頭·齊·栖·如·車를 운자(韻字)로 삼아 지은 한시이다.



436 /

차망선정운근정성주각하
次望仙亭韻謹呈城主閣下

1672년 / 1점
30x54cm

시작가 ₩ 400,000

조선 중기의 유학자 이안(怡顔) 한정오(韓正吾, 1619~1689)의 시고 [次望仙亭韻謹呈城主閣下]로, 1672年 陰曆 閏7月 初5日에 秋·流·由·愁를 韻字로 삼아 지은 한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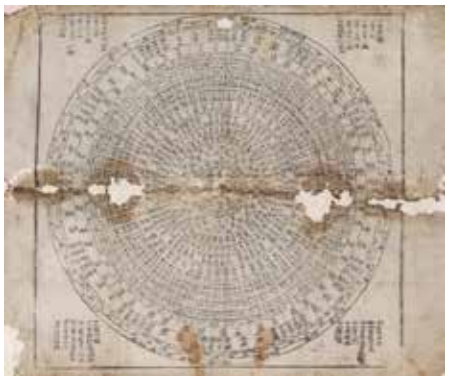
437 /

십사경발휘경락유혈골도지도
十四經發揮經絡兪穴骨度之圖

1점
70x91cm

시작가 ₩ 100,000

전면·후면·측면 등 세 부분의 그림으로 구성되어 있다. 骨度分寸法(몸의 각 부위를 일정한 수로 등분한 다음 그 한 등분을 1치로 하고 그 수치에 의하여 혈(穴)의 위치를 정하는 방법)의 내용이 達筆의 楷書體로써 정서되어 있다.



438 /

윤도
輪圖

목판본 / 1점
48x57cm

시작가 ₩ 100,000

가운데에 지남침을 장치하고 가장자리에 원을 그려 24방위로 나누어 놓아, 방위를 헤아리는 데 쓰는 그림으로 風水家나 地官들이 사용하였다. 목판으로 인출되었으며 제작연대는 생략되었다.

제257회 삶의흔적

PART.05

서화





439 /

설산 최광익

부부 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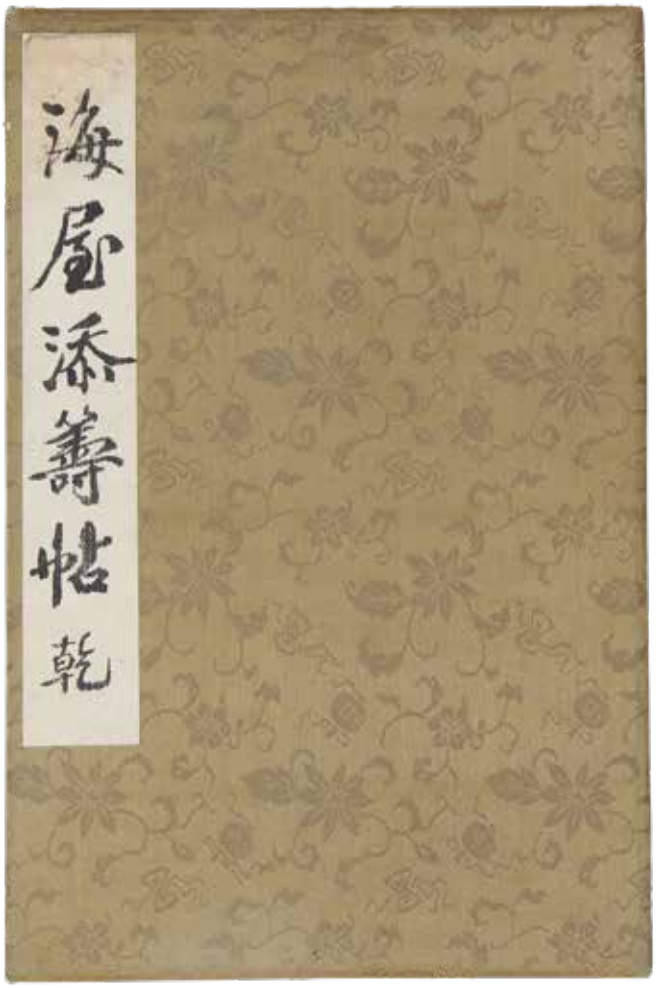
견본 채색 / 2점
53x84cm

시작가 ₩ 15,000,000

근대 초상화단의 1세대인 설산 최광익(雪山 崔光益, 1891~1970)의 작품이다.

설산 최광익은 전남 해남 출생으로, 일본 동경미술학교를 졸업하고 국내에 들어와 근대 초상화의 대가들인 춘곡 고희동, 이당 김은호와 같이 활발하게 활동하였다. 우리나라 근대 초상화단을 이끈 인물로서, 대표작으로는 순천 선암사 "경붕당 익운 진영", 충남 예산의 "경허선사 초상화"와 해남 단군성조영모회에 모셔진 "단군 어영" 등이 있으며, 인물표현이 섬세한 붓 터치와 입체감 있는 묘사가 특징이다.

주로 사찰의 진영을 주로 그려 남아 있는 일반 작품이 거의 없어 매우 희귀한 작품이다. 채색과 표현 기법은 보존 상태가 좋으나, 인물 상단 배경에 일부 얼룩이 남아 있다.



440 /

해옥첨주첩

송수첩

종이에 수묵 / 1점(25편)
18x27cm

시작가 ₩ 800,000

槐隱 仁兄의 還甲을 祝賀하며 春谷 高羲東, 鶴田 金誠鎭, 怡堂 沈晩鎭 等이 親筆로 쓴 글씨와 그림, 한 사람이 正書한 晬宴詩가 收錄된 頌壽帖 [海屋添籌帖] 乾卷 1첩이다. 모두 25篇의 作品이 실려 있다.

上記한 人物들 以外에도, 蘇山 洪台憙, 心堂 蔡奎世, 玉蘇 沈衡鎭, 三笑 李寬鎬, 雲菴 趙重元, 首陽 鄭榮根, 規堂 李允熙, 寡悔 任道淳, 游齋 鄭樂朋, 松巖 嚴衡燮, 梅雪 尹觀熙, 廣陵 安東洙, 芝亭 尹秉哲, 玄庵 鄭浚謨 等이 親筆로 撰한 晬宴詩稿가 包含되어 있다.



441 /

산수화

종이에 수묵담채 / 1점 / 27x19.5cm

시작가 ₩ 100,000

다리를 건너는 행인들을 보여주는데, 먹의 농담과 적절한 채색으로 주변 풍경을 표현하고 있다. 풍경을 작은 화폭에 담아냈으며, 산수화 특유의 준법과 표현이 인상적이다. 작자 미상이다.



442 /

용 그림 초본

4점 / 54x99cm 이내

시작가 ₩ 150,000

정본을 완성하기 전에 밑그림 형식으로 그린 초본이다. 4점 모두 용을 장지에 그렸는데, 그 중 한 점은 쌍용이 마주보는 대련 형태로 그렸다.

443 /

금강산도

견에 채색 / 8폭
115x31cm(1폭)

시작가 ₩ 500,000



장안사, 구룡연 등 금강산의 주요 명소의 모습을 담고있다.

가늘고 뾰족한 암봉과 미점준을 사용한 토산의 표현 등으로 보아 정통 金剛山圖 양식에서 발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본래 10폭으로 구성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현재 8폭만 남아 있다. 각 폭마다 畵題가 적혀 있으며, 長安寺, 九龍淵, 毘盧峯, 隱仙臺 등 금강산 주요 명소들의 화폭에 담겨 있다.

444 /

풍속화 초본·풍속 그림

17점
100x31cm(1점)

시작가 ₩ 100,000

결혼, 장원, 한림내각, 정경출입광경, 훈련대장 등의 풍속모습을 담은 초본그림으로 제2도부터 제9도까지 그림의 제목을 표기한 [풍속화 초본] 8점과 그것을 인쇄한 [풍속그림] 9점 등 17점 일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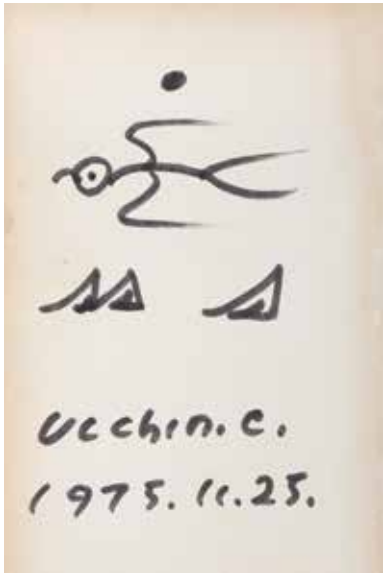
445 /

장욱진
까치와 나무

1975년 / 종이에 펜
17.7x12cm

시작가 ₩ 2,000,000

한국 근현대 미술을 대표하는 장욱진의 작품이다. 그가 가장 잘 그리던 소재인 '까치'와 '나무'를 담았다. 하단에는 서명과 함께 제작 연도를 적어 놓았다.



446 /

폴 자쿨레
Le Nid: Coree

1941년 / 다색 목판화
15x10cm

시작가 ₩ 2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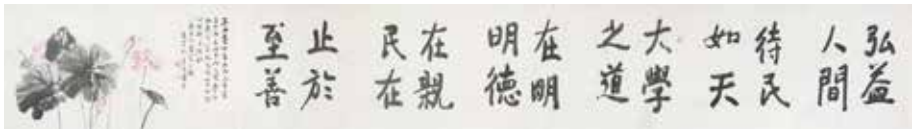
프랑스 파리 출신 작가 폴 자쿨레의 대표작으로, 작가 특유의 우키요에 판화 기법으로 아기새에 먹이를 주는 노인을 표현했다. 그의 판화에는 우키요에 다색 목판화 기법이 들어가 있어 표현 양식이 일본적이고 이국적이다.



447 /

금봉 박행보

서화



2000년 / 종이에 먹과 수묵담채

72x544cm

시작가 ₩ 500,000

전남 진도 출신의 한국화가 金峰 朴幸甫의 5미터가 넘는 대작이다. 앞쪽에는 大字 글씨가 6폭에 걸쳐 이어지며, 뒤쪽에는 2폭에 걸쳐 그림이 자리하고 있다.

맨 뒤쪽에는 연꽃과 연잎을 먹으로 시원하게 그려 놓았으며, 옆에는 화제와 함께 작가의 낙관이 쳐져 있다. 2000년(庚辰), 작가의 나이 66세 때의 작품이다.

448 /

석정 이준용

글씨



종이에 먹

36.5x120.0cm

시작가 ₩ 100,000

'돌 같이 만년을 누리라'는 뜻의 장수를 기원하는 내용을 담은 石坡 李昰應의 장손인 石庭 李埈鎔(1870~1917)의 글씨이다. 왼편에 '石庭'이라 적힌 인장이 捺印되어 있다.



449 /

관재 이도영

縱書

종이에 먹 / 126x31cm

시작가 ₩ 100,000

貫齋 李道榮(1884~1933)이 梧堂 仁兄을 爲해서 自作하여 親書한 七言絶句의 漢詩이다.

글씨 末尾에는 "梧堂 仁兄 法覽"·"芾巢 李道榮"이라고 墨書되어 있으며, 그 아래에는 "李道榮印"·"芾巢"라고 새겨진 圖署가 순서대로 날인되어 있다. "芾巢"는 李道榮의 別號이다.



450 /

석신(石新)

篆書

종이에 먹 / 95x33cm

시작가 ₩ 200,000

"石新"은 日本人으로 보인다. "石新"이 乙丑年 春月에 唐나라 張繼(? ~779)의 漢詩 「楓橋夜泊」을 達筆의 篆書로써 正書해 놓은, 글씨 簇子이다.





451 /

권도경
대형 글씨

천 위에 먹, 아크릴
178x610cm

시작가 ₩ 2,000,000

유시민, 정세균, 이재명 등이 참석한 노무현 12주기 서거 추모 전시 '사람 사는 세상 展' 개막식에서 라이브로 선보인 권도경 작가의 '새 시대의 물결' 캘리 아티스트 대형 붓글씨이다.

왼쪽 하단에는 '고맙습니다. 당신은 나의 대통령 노무현입니다. 사랑합니다.'라는 글씨가 쓰여 있다. 먹으로 쓴 붓글씨 위에 추모의 의미를 담아 노란색으로 아크릴로 칠한 부분이 있다.

452 /

담계 옹방강
太華夜碧

현판 / 65x172cm

시작가 ₩ 1,300,000



大形 크기로 製作된 秋史 金正喜의 스승 覃谿 翁方綱(1733~1818)의 懸板 글씨이다.

"太華夜碧"은 中國 唐나라 詩人 司空圖(837 ~ 918)의 「二十四詩品」에 나오는 詩句이다. 글씨 末尾에 "翁方綱"이라고 되어 있고, 下段에는 號가 있다.

제257회 삶의흔적

PART.06

민속품·도자기



453 /

모담

조선시대 / 1점
202x153cm

시작가 ₩ 8,000,000

'조선 철(綴)'로 불리는 조선시대 카펫, [모담(毛毯)]이다.

'조선 철(綴)'이라는 명칭은 일본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조선에서 온 철직(타피스트리기법)물'이라는 뜻이다.
'조선철(綴)'은 염소와 같은 거친 짐승의 털(모사)을 씨실로 해 문약을 짜 맞춘 직물로, 일반적으로 그 위에 먹이나 안료로 선이나 그림을 그렸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모사를 사용했느냐에 따라, '모담', '담', '계'로 불렸다. 주로 수평 구도에 한국의 토속성이 드러나는 학과 봉황, 길상문이 어우러졌다.

본 출품물은 수평 구도에 한 가운데 대형 학 문양을 중심으로 네 마리의 학이 더해져 안정감을 주고 있다. 여기에 학 문양 주변으로 난초 그림으로 장식하고, 각 모서리마다 길상 문양으로 포인트를 주었다. 특히, 주변의 길상 문양은 먹으로 그린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한국적인 소재를 이용해 간결한 선과 색감, 면의 분할과 비례감 등이 현대의 디자인 감각과도 일맥상통한다. 일반적인 카펫 보다는 작은 편이나 문양이 좋고, 보관 상태 또한 우수하다.

454 /

금사 단학 흉배

조선시대 추정 / 2점
20x18cm

시작가 ₩ 4,000,000



짙은 초록색 운문단에 금사로 단학을 자수한 흉배이다.

1871년에 이르러 문인 당상관은 쌍학, 당하관은 단학, 무관 당상관은 쌍호, 당하관은 단호를 사용하였는데 본 출품물은 단학으로 당하관 용 흉배라고 볼 수 있다. 학은 고고한 학자를 상징하여 문관이, 호랑이는 용맹을 상징하여 무관이 사용하였다.



455 /

단호 흉배

조선시대 추정 / 2점
19.5x17.2cm

시작가 ₩ 2,500,000

조선시대 것으로 추정되는 종3품부터 종9품까지의 무관 당하관 관복용 단호 흉배이다.

1871년에 고종 8년에 이르러 문관 당상관은 쌍학, 당하관은 단학, 무관 당상관은 쌍호, 당하관은 단호를 사용하였는데 본 출품물은 단호로 당하관용 흉배라고 볼 수 있다. 학은 고고한 학자를 상징하여 문관이, 호랑이는 용맹을 상징하여 무관이 사용하였다. 조선 초기 초상화의 호문흉배에 나타난 호랑이에는 줄무늬가 있었으나 후대로 내려올수록 점차 점을 박은 표범이나 호랑이와 표범이 혼재된 호표로 묘사되었다. 본 출품물의 호랑이는 줄무늬가 아닌 표범 무늬로 묘사된 것을 보아 조선 후기로 추측된다.





456

목제 동자상

조선시대 / 1점
기단 5cm, 동자상 높이 54cm

시작가 ₩ 31,000,000

불교의 동자상은 청정한 세계를 표현하는 나이 어린 인물의 불교 예배상을 일컫는다. 동자상은 일반적으로 모두 어린 소년이나 소녀의 모습으로 머리는 쌍계와 길게 땋은 머리가 섞여 있고, 손에는 두루마리, 붓, 벼루, 봉황, 호랑이, 자라, 수박 등 다양한 지물을 들고 있다.

본 작품은 특히 이목구비의 조각선이 특별히 우수하여 얼굴의 표정이 마치 살아있는 듯하다.
표면에 칠해진 당채는 벗겨졌으나, 본체의 나무의 나이는 19세기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휨이나 뒤틀림이 없이 비교적 완벽하게 원형 조각이 보존되어 있는 수작이다.

457 /

중앙황아진부

부적 목판

1점
19.5x22.5cm

시작가 ₩ 1,000,000



符籍 木版 가운데에는 다음의 銘文이 雕刻되어 있다.
“右符上請 中央黃炁 黃庭高仙 服以黃炁 飮以醴泉 一如誥命風火驛傳 年月日告下 上淸經籙叨行主奏事 承誥奉行 中央黃靈皇老天君 主盟.” 오른쪽 側面에 “芽付”라고 새겨져 있다.

458 /

목안

1점
11x30x20cm

시작가 ₩ 1,000,000



두상부분과 몸체가 분리되도록 만든 목안으로, 나무를 깎아 만든 느낌이 그대로 살아있으며 단순하지만 대상의 특징을 잘 잡아내고 있다.

459 /

목제 필갑

1점
10x42.5x4cm

시작가 ₩ 500,000



붓을 넣어 보관하는 통인 筆匣이다. 전체적인 형태는 직육면체형으로, 몸체의 윗면에 미닫이 형식의 뚜껑이 있다. 표면에는 전체적으로 칠이 되어 있다.



460 /

조바위

1점 / 길이 19cm

시작가 ₩ 800,000

은장식으로 고급스러움을 더한 여성용 방한모이다. 뒤쪽의 은장식은 꽃으로 이어 길게 늘어뜨린 형태인데, 다른 작품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장식이다.



461 /

백동상감 팔각연적

조선 말 / 1점 / 지름 7cm, 높이 3cm

시작가 ₩ 600,000

상단에 '福'을 상감기법으로 새겨 넣은 백동 연적이다. 조선 말기에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462 /

석제 도장

3점 / 5.5x5x4.5cm 이내

시작가 ₩ 1,000,000

우리나라에서 製作된 圖章으로 보인다. 圖章에는 "淸陰"·"張濟鵬印"이라는 銘文이 새겨져 있다. 글자의 一部分이 깨진 圖章 1點이 있다.



463 /

시전지·피봉

105점 / 30x21cm 이내

시작가 ₩ 900,000

화병, 가야금, 대나무, 매화, 서대, 기와, 바둑판 문양 등이 있는 [시전지] 및 [피봉] 등 총 105점 일괄이다. 晩悟齋, 書帶分香, 文藻齋, 鴻文齋, 古徑山房 등 각종 제작소 혹은 소장자로 추정되는 글귀가 보인다.

464 /

지함

일제강점기 추정 / 3점
29x45.7x12.7cm 이내

시작가 ₩ 100,000



본 출품물은 각기 다른 크기의 상자 3개로, 종이 틀에 색지(한지)를 발라 장식하였다. 윗면과 옆면에 태극 문양과 나비 문양으로 장식하였다.

465 /

지승 가방

1점
67x36cm(펼친 크기)

시작가 ₩ 700,000



고서나 종이 등을 일정하게 잘라 꼬아 노끈을 만들고 그것을 엮어 생활용품을 만든 지승 공예품이다. 한쪽 면을 길게 만들어 수납공간을 덮도록 만들고, 측부를 꿰매어 연결하였다.

466 /

보부상 지승끈

1점
폭 3.3cm

시작가 ₩ 200,000



'쓰고서 쥔의긔젼허시오' '用之後還歸本主' 등 한글과 한문으로 주의사항이 묵서된 [보부상 지승끈]이다. 상기 주의사항에 이어 '楊淡 生淵里 淵洞嶌堂' 명문도 보인다.



467 /

곱돌 솥

조선 말 추정 / 1점
지름 18cm, 높이15cm

시작가 ₩ 300,000

납석이라고도 하는 곱돌로 제작하였으며, 뚜껑까지 완전한 [곱돌 솥]이다. 곱돌은 십이지상, 향로 뚜껑 등 여러 가지 장신구와 생활용기를 제작하는데 이용된 재료이다.



468 /

단계연
벼루

1점
20.3x13x3cm.

시작가 ₩ 300,000

연꽃과 게 문양을 양각으로 장식한, 중국 벼루의 으뜸이라 불리는 [단계연]이다. 단계연은 윤기가 흐르는 자색을 띠며, 먹이 부드럽게 갈리고 먹물이 쉽게 마르지 않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중국 벼루 중에서도 으뜸이라고 불린다.



469 /

매화 화조문 원형벼루
김진한 作

1점
지름 10cm

시작가 ₩ 200,000

충남 무형문화재 제6호로 3대에 걸쳐 벼루를 만들고 있는 書巖 金鎭漢이 제작하였다. '남포벼루'는 성주산 기슭에서 캐낸 단단한 돌을 쪼아서 만든 것으로 돌 빛깔이 하도 까매서 이름이 오석(烏石)이라 붙었다.

470 /

청자 흑백상감 운학 봉황 여의두문 발



고려시대 / 1점
지름 20.5cm, 높이 6.5cm

시작가 ₩ 2,000,000

고려시대 상감청자의 전성기에 제작된 [청자 흑백상감 운학 봉황 여의두문 발]이다.

상감청자 전성기에 제작된 사발로서, 무려 9개의 문양(운학, 어란, 봉황, 여의두, 당초, 국화, 연판, 모란, 회문)이 사발 내외에 총 망라되어 상감 되어 있다. 이렇게 한 작품에 9개의 문양이 새겨져 있는 작품은 매우 희귀하다.

유약도 잘 발현되었으나 사발 외면에는 출토되어 산화된 흔적이 일부 있다.



471 /

다완

천한봉 作

8점 1세트 / 높이 14.5cm, 지름 9cm. 이내

시작가 ₩ 500,000

原 케이스가 있으며, 작가에 대한 안내문도 포함되어 있다. 각 작품의 굽 위쪽 부분에는 '千'자가 새겨져 있다. 陶泉 千漢鳳은 '막사발'이라 불리는 고려다완 기법을 재현해 내어 일본에서 큰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472 /

미사용 장지

조선시대 / 17점 / 58x100cm

시작가 ₩ 350,000

조선시대에 제작한 대형 크기의 미사용 [장지] 17점 일괄이다.

제257회 삶의흔적

PART.07

부록

경매약관
회원가입 신청서
서면예약 신청서

주)코베이옥션 삶의흔적 경매약관

제 1조 (목적)

이 약관은 ㈜코베이옥션(이하"코베이옥션"이라 한다)이 경매를 실시함에 있어 그 절차와 제반 기준 및 경매관련자들의 권리 · 의무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 (현장경매의 성질과 목적)

현장경매는 코베이옥션이 회원 각자의 자기결정에 의하여 회원 상호간에 물품매매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래장소(marketplace)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단지, 회원 간 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증진시키는 도구만을 제공합니다.
회원 간에 성립된 거래와 관련된 책임은 거래당사자인 회원들 스스로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 3조 (정의)

① "위탁자"라 함은 본인 소유의 물품을 당사의 경매 방법에 의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② "입찰자"라 함은 코베이옥션의 경매에 참가하여 경매물을 낙찰 받고자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③ "낙찰자"라 함은 코베이옥션의 경매에 참가하여 경매물을 낙찰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④ "시작가"라 함은 경매사가 입찰을 시작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⑤ "낙찰가"라 함은 경매사가 비딩판 번호를 지칭함으로써 확정된 최고응찰가격을 말합니다.
⑥ "구매가"라 함은 낙찰가에 낙찰 수수료를 포함한 가격을 말합니다.
⑦ 본 약관상에 期限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금융기관 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 4조 (회원)

① 입찰자격확인서(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한 회원과 코베이옥션(www.kobay.co.kr)에 가입한 회원은 당사의 정규회원이 됩니다.
② 정규 회원은 도록과 온라인상의 각종 정보 등을 제공받으며, 당사가 시행하는 경매에 응찰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습니다.
③ 준회원은 입찰자격 확인서(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코베이옥션(www.kobay.co.kr)에도 미가입한 상태에서 경매응찰을 하려는 회원으로서, 당사의 신분확인 절차를 거친 후, 경매장출입 및 경매입찰이 가능하게 되는 회원을 말합니다.
④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는 회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1) 가입신청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경우
2) 낙찰대금 등 기타 경매와 관련하여 회원이 부담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다른 사람의 경매 참여를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유포, 회원명의 대여, 담합행위 등 경매질서를 교란하는 경우
4) 경매에 관하여 위법한 행위를 하거나, 약관을 위배하거나,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제 5조 (경매물의 위탁)

① 위탁자는 수시로 경매물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그 접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작품의 진위여부에 관하여 시비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본 경매의 특성에 맞지 않거나 경매 물품으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3) 위탁자와 당사 간에 경매물에 대한 시작가를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② 위탁자는 물품위탁 시에 경매 출품에 관련된 기본 경비(도록 등재비, 일반 감정료 등)에 대한 부담은 없지만, 위탁자는 이외에 특별 감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정실비를 특별 감정 출품료로서 지불하여야만 합니다. 유찰이 된 경우에도 출품료는 위탁자에게 반환하지 않습니다.

③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와 책임을 집니다.

1) 위탁자는 자신이 위탁하는 경매물에 대하여 처분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2) 위탁자는 위탁물품에 대하여 제3자가 유치권, 질권 등 기타 어떠한 권리도 가지지 아니함을 보증할 의무가 있습니다.
3) 위탁자는 낙찰과 동시에 위탁물품의 소유권이 구매자에게 이전됨을 보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4) 위탁물품을 당사에서 경매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 당사는 이 사실을 위탁자에 통보 하고 위탁자는 그 통보를 받은 후 5일 안에 물품을 인수해야 합니다. 위탁자는 인수 지연 중에 발생하는 작품의 훼손, 분실 등에 대하여 당사에게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으며, 당사의 통보 후 7일 경과 후에는 당사 규정의 보관료가 징수됩니다.
5) 위탁자는 위탁물품이 문화재보호법에 저촉되지 아니함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위탁물품이 매장문화재, 도굴품, 장물 등 불법적인 물품임이 드러나는 경우 그 민형사상 책임은 위탁자에게 있으며, 위탁자는 위탁대금 전액을 즉시 환급하여야 함은 물론 그로 인하여 당사가 입는 손해 일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④ 위탁계약서가 작성된 이후에는 위탁자는 위탁을 임의로 철회할 수 없으며, 부득이 철회를 하는 경우에는 위약벌로 위탁수수료와 중개 수수료를 합한 금액의 2배를 철회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당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중개수수료는 출발가를 낙찰가격으로 보고 제9조에 따라 정해지는 금액으로 합니다). 또한 위탁자의 위탁 철회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당사는 위 약벌 약정과 별개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⑤ 위탁자는 유찰된 물품을 경매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수하여야 하고, 15일 경과 후에 발생된 손상에 대한 책임은 당사가 부담하지 않으며, 당사 규정의 보관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⑥ 위탁물품이 낙찰되는 경우 당사는 낙찰일로부터 15일 이내(3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25일 이내)에 낙찰대금에서 판매자 수수료와 제 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위탁자에게 지급합니다. 단 낙찰대금이 입금되지 아니하면 위탁대금 지급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위탁대금 지급일이 비영업일일 경우 지급일은 그 익일로 합니다.

제 6조 (경매의 방식)

① 코베이옥션은 경매 전에 입찰 희망자들이 경매 물품을 미리 살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미리 보기를 개최합니다.

② 도록에 기재된 물품 번호순으로 이루어짐을 원칙으로 하나,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 통지 없이 예정된 물품의 경매를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③ 호가는 전적으로 경매사의 재량에 의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응찰자는 구두로 임의의 금액을 제시할 수 있으나 경매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④ 경매사는 최고입찰액을 1회 이상 부르고, 최고입찰자의 입찰판 번호를 지칭함으로써 낙찰자와 낙찰가를 결정합니다.
⑤ 경매사는 입찰자들 사이에 논쟁이 있거나 입찰의 타당성이 의심되는 경우 유효 입찰자를 결정할 수 있고 또 해당 물품을 재경매에 부칠 수도 있습니다.

제 7조 (입찰과 낙찰)
① 경매에는 코베이옥션 회원 또는 회원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입찰할 수 있습니다.
② 입찰은 공개입찰, 온라인(서면)예약의 방법이 있습니다.
③ 공개입찰은 코베이옥션 소정의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한 후, 입찰판을 교부받아야 입찰할 자격이 있습니다. 입찰판을 교부받은 회원은 경매장에 참석하여 경매사의 호가에 입찰판을 들어 입찰의 의사를 표시합니다.
④ 회원은 코베이옥션 소정 절차에 따라 온라인(서면)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⑤ 낙찰은 최고 가격을 제시한 입찰자에게 돌아갑니다.
⑥ 공개입찰자와 온라인(서면)예약자가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경우에는 온라인(서면)예약자에게 우선하여 낙찰됩니다. 동일한 가격의 온라인(서면)예약자가 있는 경우에는 온라인(서면)예약이 먼저 완료된 입찰자에게 우선하여 낙찰됩니다.
⑦ 온라인 예약의 경우는 경매시작 1시간 전까지 예약자 성함, 예약물품, 예약가 등을 코베이옥션 지정 게시판으로 예약내용을 작성한 후, 서면예약의 경우는 코베이옥션 소정의 서류를 작성.제출한 후, 코베이옥션 지정계좌로 예약가의 20%를 예약보증금으로 입금함으로써, 예약처리가 완료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당일 경매장에서 낙찰 받지 못하실 경우, 보증 예치금은 경매일포함 5일 이내에 전액을 환불합니다. 다만, 당일 낙찰자로 결정이 되었는데, 낙찰일 포함 5일 이내에 미입금 처리함으로서, 유찰 시킬 경우에는 위약벌로 낙찰가의 30%를 지급해야 하며, 예약보증금에 대해서 코베이옥션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⑧ 예약된 물품의 현장경매 진행방식은 코베이옥션이 예약자의 위임을 받아 예약가까지 대리입찰을 하게 됩니다.
⑨ 위탁자는 자신이 위탁한 경매물품에 대하여 입찰을 할 수 없습니다.

제 8조 (코베이옥션의 권리 및 책임 한계)
① 코베이옥션은 예정 고지한 경매일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코베이옥션은 미리보기에 참가를 희망하는 자의 성명과 신원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신분 증명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코베이옥션은 코베이옥션의 재량으로 미리보기 입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③ 위탁계약이 성립된 물품에 대하여 코베이옥션은 홈페이지와 관련 인쇄물에 코베이옥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④ 경매 물품의 진위시비, 거래의 불법성 시비 및 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코베이옥션은

위탁물품을 경매에 출품하지 않을 수 있고, 경매에 출품하여 낙찰된 이후에도 낙찰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 코베이옥션은 위탁자나 낙찰자에 대하여 원상회복 이외에 손해배상 등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⑤ 예약에 의한 매수 신청이 있었고 당사가 이를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실수나 그 밖의 이유로 인해 입찰이 경매에서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코베이옥션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일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⑥ 위탁계약이 성립하고 코베이옥션이 경매를 위해 촬영한 작품의 사진 저작권은 코베이옥션이 가지며, 코베이옥션은 이를 경매도록 및 홈 페이지 사전 전시 및 지속적인 DB구축과 유료 또는 무료 이용자 제공 등에 사용할 권리를 갖습니다.

제 9조 (입찰자의 의무)
① 경매 도록에 기재된 작가명, 작품명, 재질, 크기, 출처 등 모든 내용은 코베이옥션의 의견일 뿐 절대적 사실이 아닙니다.
② 코베이옥션은 경매물품을 [있는 그대로] 출품합니다. 입찰자는 경매이전에 입찰희망 물품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코베이옥션이 경매 물품의 상태 및 속성과 관련해 제공하는 설명과 물품이미지 가운데 위탁자는 약관 13조에 규정된 내용 이외의 사항에 대해 보증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입찰자는 작품의 훼손 및 복구 여부, 도록 기재의 오류 및 생략 부분, 작품 이미지와 실물의 차이 등에 대해 확인한 후,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경매에 참여해야 합니다. 코베이옥션은 입찰자가 이러한 의무를 충실히 수행했다는 전제 하에서 경매를 진행합니다.
③ 위의 ①,②항은 공개입찰자, 온라인(서면)예약자에게 모두 적용됩니다.
따라서 온라인(서면)예약자는 경매이전에 실물확인 작업이 꼭 필요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①,②항의 미확인으로 인한 위험부담은 모두 예약자가 지게 됩니다.

제 10조 (중개수수료)
① (판매자 수수료)
판매자 수수료는 낙찰가 1백만 원 미만의 경우에는 낙찰가의 15%(부가세 별도)를 적용하고, 1백만 원 이상의 경우에는 낙찰가의 10%(부가세 별도)를 적용합니다.
② (구매자 수수료)
구매자 수수료는 낙찰가 5,000만 원 미만의 경우에는 낙찰가의 15%(부가세 별도)를 적용하며, 낙찰가 5,000만 원 이상~ 1억 원의 경우에는 낙찰가의 12%(부가세 별도)를 적용하며, 낙찰가 1억 원 초과의 경우에는 낙찰가의 10%(부가세 별도)를 적용합니다.

제 11조 (낙찰대금 납부와 물품인도)
①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비영업일 포함, 낙찰가가 3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21일 이내)에 경매 물품 대금, 낙찰 수수료 등을 포함한 모든 비용(총 구매비용)을 완납해야 합니다.
단 낙찰가 3억 원 이상일 경우 구매자는 5일(비영업일 포함) 안에 20%의 금액을 선납해야 합니다.
납입기일이 비영업일일 경우에는 익일을 납입기일로 합니다.
②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낙찰가 3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21일 이내)에

총 구매대금을 완납하지 않는 경우 지연일수에 대하여 코베이옥션이 정하는 소정의 지연배상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③ 낙찰자는 낙찰을 철회할 수 없으며, 부득이 철회를 하는 경우에는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의사를 통보해야 하고,
위약벌로 낙찰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 위약벌의 약정은 코베이옥션과 위탁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④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어떠한 의사 표시도 하지 아니하면 구매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사는 다음의 각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코베이옥션은 낙찰자가 대금을 입금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철회하고 재경매 및 다른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낙찰자는 11조 3항에 규정한 바와 같이 위약 벌로 낙찰대금의 30%를 지급해야
합니다. 위 위약벌의 약정은 코베이옥션과 위탁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 코베이옥션은 위탁자가 손해 배상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위탁자에게 낙찰자의
개인정보를 알려줄 수 있습니다.
⑤ 낙찰자는 총 구매대금을 코베이옥션사 지정의 은행계좌송금, 자기앞수표, 현금, 신용카드 결제 등으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
〈(주)코베이옥션 삶의흔적 경매 계좌번호:1005-501-087679(우리은행)〉
⑥ 낙찰자는 입찰 전에 코베이옥션과의 합의에 의하여 구매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⑦ 낙찰자는 대금완납 후 7일 이내에 구매한 물품을 인수하여야 하고, 물품 인수가 지연되는 경우에
코베이옥션 규정의 보관료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대금완납 후 21일이 지나도록 물품을 인수해 가지 않는 경우
해당 물품 손상에 대한 책임은 코베이옥션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 12조 (배송과 보험)

① (배송)
위탁자나 낙찰자가 물품의 운송을 원하는 경우, 당사는 위탁자나 낙찰자의 책임과 비용부담 하에 물품의
배송 및 보험가입을 주선할 수 있습니다. 도자기, 액자, 병풍 등과 같이 기타 배송과정에서 파손의 위험이 있는 물품은
직접 수령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보험)
위탁자는 코베이옥션에 경매물품을 인도할 때로부터 코베이옥션에서 보관관리를 중지하는 시점까지,
또는 경매예정일로부터 50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코베이옥션이 만족할만한 보험 증권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코베이옥션은 위탁자가 원하는 경우 위탁자의 책임과 비용부담 하에 보험가입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제 13조 (보증과 원상회복)

① 물품의 위탁자는 경매물품에 대하여 도록 상 첫 줄에 굵게 인쇄된 표제사항에 대하여만
보증합니다. 단, 경매진행중 경매사의 구두 물품설명은 위 보증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 이 외에 도록에 실린 보조설명이나 추정가, 기타 당사 직원이 구두나 글로 표현한 내용은
참고자료일 뿐 보증의 내용이 아닙니다.
② 낙찰품이 화폐인 경우는 경매 현장 내에서만 ①이 적용됩니다.
③ 낙찰자가 원하는 경우 물품의 위탁자는 위 보증의 한도 내에서 보증서를 발행합니다.

④ 물품의 위탁자의 보증기한은 낙찰일로부터 3년까지(외국물품은 제외)이며, 이 기간 중 보증이 잘못된 것으로 밝혀지면 코베이옥션에서는 본 경매의 낙찰을 취소처리 하게 되며, 물품의 위탁자는 당연히 낙찰자에 대하여 원상회복(낙찰대금 환불)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위탁자는 본 거래로 인한 기존의 중개수수료(판매자 수수료)에 대해서도 코베이옥션에 환불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보증책임의 문제는 낙찰자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에 한합니다.

1) 낙찰자가 물품의 위탁자의 보증 내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할 경우, 낙찰자는 해당 작품이 거래된 경매 일자와 물품 번호, 문제제기의 납득할 만한 근거 등을 서면으로 작성해 당사에 청구해야 합니다.
2) 낙찰자는 물품의 위탁자의 보증 내용에 대해 처음으로 의심을 갖게 된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당사 내지 물품 위탁자에게 서면 청구해야 합니다.
3) 낙찰자는 해당 작품을 경매 당시와 동일한 상태로 물품의 위탁자에게 인도해야 합니다.

⑤ 낙찰자가 제시한 근거에 대해 물품의 위탁자와 낙찰자간 이견이 있는 경우, 국내의 제 3기관감식 결과에 따라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때 국내의 제3 기관 지정은 당사자 간 합의를 전제로 하되 상당기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는 코베이옥션에서 직권으로 제 3기관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공인 감식비를 양 당사자가 코베이옥션으로 입금 완료하면 지정된 제 3기관을 통해서 감정을 진행하며, 그 결과에 책임 있는 당사자는 본 감정비를 부담합니다.
코베이옥션에서 반품시 위와 같은 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당사자로서는 아니며, 다만, 현장경매 운영자로서 경매의 공정성을 담보함으로써 경매의 신뢰성을 유지·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당사자가 위의 절차에 비협조적이거나 감식결과에 따라서는 계약위반, 매매부적합물 등록, 불공정경매조성 등의 이유로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할 수 있을 뿐, 결국은 당사자 간에 해결해야 할 당사자문제입니다.

⑥ (보증제외 사항)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보증에서 제외됩니다.

1) 경매 당시에 경매물품에 대한 의견이 전문가의 일반적인 의견이었으나, 이후 전문가의 의견이 변경되었거나 의견의 대립이 있는 경우
2) 학계나 전문가 집단에서 이견의 가능성을 도록을 통해서나 경매장에서 고지를 한 경우
3) 경매 당시에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방법이나 비현실적으로 고가의 비용이 드는 방법 또는 파괴분석을 해야 하는 방법으로 보증내용이 틀렸음을 증명하는 경우

⑦ 물품의 위탁자가 보증 책임을 지는 경우 해당 물품의 위탁자는 원상회복의 의무를 갖은 것은 물론 나아가 해당 물품에 대한 旣 낙찰수수료(중개수수료)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⑧ 증항목에서 보증하는 내용은 양도되지 않습니다. 즉 보증 내용은 처음 구매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다만 첫 구매자가 3년 이내에 사망하여 해당 물품이 상속되었을 경우 보증 내용은 그 상속인에게 양도됩니다.
⑨ 물품의 위탁자의 보증 책임은 낙찰자가 코베이옥션에 실제로 지불한 금액에 限하며, 어떠한 경우도 이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제 14조 (약관의 개정 등)

① 코베이옥션은 이 약관을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② 코베이옥션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코베이옥션이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에 공지합니다.

제 15조 (문화재 보호법)

① 위탁자 관련사항

위탁자는 경매 위탁 물품 중 문화재 및 유물의 위탁 시에는 문화재 보호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당사에 위탁경매된 문화재 및 유물이 매장문화재, 도굴품, 장물 등 불법적인 것일 경우에는 위탁자는 위탁대금 전액의 환불 및 이로 인한 일체의 손해배상 등의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하며, 이에 관하여 당사는 일체의 책임이 없습니다.

② 구매자 관련사항

구매자는 경매 시 문화재 및 유물을 구매할 경우에 국외로의 수출 또는 반출이 금지되어있음을 인지합니다.

제 16조 (재판권관할 및 준거법)

① 코베이옥션과 이용자 간에 발생한 상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관할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합니다.

② 코베이옥션과 이용자 간에 제기된 상거래 소송에는 한국 법을 적용합니다.

삶의흔적 경매전 회원가입 신청서

성명 :		생년월일 :	
전화	자택 :	직장 :	휴대폰 :
주소	자택 :		
	직장 :		
	E-mail :		

물품 및 도록, 소식지 수신처 : ☐ 자택 ☐ 직장 ☐ 기타 :

코베이옥션 온라인 회원 가입 여부 : ☐ **가입** ☐ **미가입**

미가입 회원일 경우 추후 온라인 회원 가입을 진행할 것이며 ㈜코베이옥션에서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미동의

㈜ 코베이옥션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 하였으며 위와 같이 삶의흔적 경매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 중요약관 공지사항

1. 구매수수료

입찰을 통하여 구매하시면 낙찰가 5,000만 원 미만의 경우에는 낙찰가의 15%의 수수료(부가세 별도), 낙찰가 5,000만 원 이상~1억 원의 경우에는 낙찰가의 12%의 수수료(부가세 별도), 낙찰가 1억 원 초과의 경우에는 낙찰가의 10%의 수수료(부가세 별도)가 있으며, 낙찰가와 수수료를 합한 금액으로 구입하시게 됩니다.

2. 낙찰 철회 시 위약금

낙찰자는 낙찰을 철회할 수 없으며, 부득이 철회를 하는 경우에는 낙찰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국외반출 금지사항

낙찰자는 경매로 낙찰 받은 문화재 및 유물을 국외로의 수출 또는 반출이 금지되어 있음을 인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 참여 시 입찰자의 의무에 관련된 약관 및 주요 약관을 숙지후 입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_____ 회 삶의 흔적 경매전 서면예약등록신청서

예약자 성명 : _____

휴 대 전 화 : _____

자 택 전 화 : _____

온라인 아이디 : _____

다음의 물품에 대해서 입찰상한가까지 본인을 대신하여 경매입찰을 수행할 것을 (주)코베이옥션에 위임하며,
서면예약등록신청서에 서명함으로써, (주)코베이옥션에서 정한 약관을 준수함을 동의 합니다.

no	물품번호	물품제목	시작가	예약금액	비고
1					
2					
3					
4					
5					
6					
7					
8					
9					
10					

년 월 일

성명 인 (또는 서명)

1. 위의 서면예약서를 작성하여 접수하신 후 아래 코베이옥션 지정계좌로 예약가의 20%를 입금하시면 서면예약이 완료됩니다.

2. 삶의흔적경매전에 처음 예약하시는 분은 뒷면의 회원가입신청서를 함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은행 1005-501-087679 ㈜ 코베이옥션

TEL. 02-738-1268, FAX. 02-738-1269

물품대행서비스가 궁금하세요?

코베이옥션 물품대행서비스란?

코베이 전문가가 직접 방문하여 온라인, 오프라인, 기획경매, 메인배너 경매의 접수를 대행하여 도와드리는 서비스입니다.

물품대행서비스의 장점

담당자가 직접 방문하여 가치평가 및 작품접수, 등록, 배송까지 도와드리기 때문에 직접 움직이실 필요가 없습니다.

소장품의 가치평가 절차

국내, 국제경매장 등 미술품시장에서 10년 이상 실전경험이 있는 전문가가 직접 방문하여 소장가품을 컨설팅하여
판매하기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안내해드립니다.

물품대행 서비스비용

온라인 물품은 기존의 수수료 외에 별도 비용으로 낙찰가의 6%의 컨설팅 및 운반, 보관, 등록, 낙찰 후 배송 비용이 발생됩니다.
모든 비용은 물품 낙찰 후 정산 과정에서 처리되며, 별도의 출장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오프라인 물품은 삶의흔적경매 기본 수수료와 동일하며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판매 물품 배송절차

물품이 안전하게 도착하도록 코베이 전문가가 직접 포장하여 배송합니다. 배송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당사에서 부담합니다.

물품대행 서비스 신청

코베이 물품대행등록 경매지원팀장 (010-9130-1268)로 직접신청 가능합니다.



문의접수

코베이에 등록하고 싶은 물품이나 궁금하신점에 대해 문의주세요.

경매지원팀장
010-9130-1268



방문계획조율

코베이 물품대행 등록서비스는 접수 후 순차적으로 일정이 정해집니다. 고객님과 담당자의 방문계획 일정조율이 필요합니다.



방문 및 물품확인

고객님과 미팅 후 소장하고 계신 물품을 확인하고 작업을 준비합니다.



물품작업 및 관리

온라인, 오프라인, 메인배너, 기획경매 등 적합한 판매루트를 소개해드리며 해당 부분에 맞게 작업을 진행해 드립니다.

온라인 경매

코베이옥션 온라인 경매는 회원 간의 투명한 경매를 통해 자유롭게 서로의 소장품을 사고 팔 수 있는 하나의 오픈 마켓 플랫폼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간단히 경매를 등록하고 입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회원 간의 신분 확인과 신용도를 통해 안전하게 거래를 하실 수 있습니다. 고미술품, 고서적은 물론이고 근현대 생활사 자료와 취미 수집품까지 누군가에겐 소중한 추억과 기억이 될 다양한 소장품들을 코베이옥션 온라인 경매를 통해 서로 공유해보세요.

차순위 입찰 방식이란?

저희 코베이옥션의 온라인 경매는 최고 금액으로 입찰한 분께서 차순위 금액으로 낙찰을 받으시는 '차순위 입찰 방식'으로 온라인 경매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경매 진행 중에는 최고 입찰 금액은 공개되지 않으며 차순위 입찰 금액이 현재가로 공개됩니다

판매방법

01 물품등록 → 02 경매진행 → 03 낙찰 → 04 결제 후 배송 → 05 배송완료 → 06 거래완료

구매방법

01 입찰 → 02 낙찰 → 03 결제 → 04 물품수령 → 05 거래완료

온라인 경매 카테고리

고미술/고서적, 근현대사 자료, 취미/수집









코베이옥션
제257회 삶의흔적

펴낸이	김민재
펴낸곳	㈜코베이옥션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457 수운회관 6층 Tel. 02)738-0552 Fax. 02-738-1269 Website. http://www.kobay.co.kr
기획	㈜코베이옥션
편집 및 해설	권용우·김승만·전연희·안진호·김남영
운영지원	㈜코베이옥션 경영지원부
사진	Phillipe Jan(Magna Carta)
디자인	송지혜
발행일	2022년 01월 12일